



4

1990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4호

(루계 510)

◇◇◇◇◇◇◇◇◇◇

## 차 례

◇◇◇◇◇◇◇◇◇◇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소원 .....	4
위대한 손길 .....	5
의리 .....	6
하늘 (3).....	12
<b>김일성</b> 동지의 만수무강은 세계인민들의 .....	13
간절한 념원 .....	13
자유가 탄생한곳 만경대 .....	13
인민들이 사는곳 그 어디에나.....	14
왜 노래를 지은 창작가의 이름이 없는가?.....	15
백두산의 진달래 .....	16
내 곁에 설레는 봇나무숲.....	17
끝나지 않는 이야기 .....	17
4 월 .....	18
은혜로운 해빛아래 빛나는 지하평양 .....	19
《수령님을 모십시오!》 .....	21
언제나 그 한생각.....	21
조국땅은 여기서 끝나도 .....	22
위대한 인간에 대한 예술적형상화.....	23

백두산밀영의 숲이여, 물이여 .....	26
백두산의 물맛.....	27
밀영의 밤에 .....	28
대동강 기슭에서 .....	29
위대한 수령을 모신 조선인민은 행복하다.....	30
이런 사람들과는 .....	31
추억 .....	32
우리 집은 행복했다 .....	33
아버지 훈장 .....	33
아버지가 걸던 그 길을 걸으며 .....	34
열쇠 .....	35
침략의 그 불길은.....	41
영원한 삶.....	42
《자력갱생직장》 나의 일터여 .....	43
어머니의 마음.....	44
전변의 흐름 .....	52
불이 물을 이끌어.....	52
어디서 그 어디서.....	54
고향과 위훈과 병사 .....	55
우등불, 네 홀로 탈때.....	57
인간본보기로서의 주체형의 인간의 .....	58
전형적성격과 그의 형상 .....	58
짧은 토막 기사를 낸 후에.....	65
분교의 녀선생 .....	68
통일열원 .....	78

#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소원

강현세

4 월의 이 아침

창가에 노을이 물드니

더더욱 뜨거웁구나

수령님 은덕에 목메이는 이 마음

내 부모잃은 고아처럼

가난과 굴욕에 짓밟히며

망국의 설움에 눈물짓던 세월

오늘의 조국을 안고 오시려

쉽도 잊으시고 걸으신 길

찬란한 령도의 자욱자욱은

자주의 생명을 키워내신 해빛이어서

돌이켜보면

후치령기슭의 한 야학방에서

벽찬 가슴에 빗발쳐오던 보천보의 불길이

어린 녀를 휘감았던

공포의 사슬을 토막쳐버렸고

《보국대》로 끌려나가던 그 아침

고역에 터갈린 손으로 한줌 흙 움켜잡을 때도

나라잃은 분노가 가슴에 끓어

내 다시금 우리르던 백두산

아 장군님의 해발은 그날에도

민족의 녀를 속깊이 지니게 해준

운명의 빗발이었어라

그때문에

광복의 새날은 밝아

환희에 물결치던 그날

우리는 담벽같이 일어섰다

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그이의 건국로선을 지키려...

어찌 그 광휘로운 나날을 잊으랴

가장 천대받고 억눌렸던 사람들을

이 세상 가장 높은

존엄의 상상봉에 세워주시고

참된 생명을 안겨주신

주체의 태양, 자애로운 아버지

내 그 생명을 지니여

싸우다 묻힐곳은 있어도

살아 물러설곳은 없었던 고지에서

원췌의 흉탄에 쓰러졌을 때에도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아

사랑의 손길로 소생시키신 은덕이여

아,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시여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업으로

빛나는 나날들은

위대한 주체의 해발로

우리 인민을 영웅으로 키우신 나날이었나니

세기를 넘어 이 세상 끝까지 걸은들

그 은정 어이 다 갚으오리까

고마움에 목메이는 마음속엔

세월의 한끝까지 길이 모시고

받들려는 생각뿐이옵니다

그 마음 안고

뜨거운 생각속에 밝아오는 이 아침

세계의 목소리에 마음 합쳐

오직 하나의 소원만을 아뢰입니다

-아버이수령님

길이길이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 위대한 손길

박래설

이른새벽

나는 만수대언덕에 오른다

한없는 경건함과

승엄함에 휩싸여

층계 또 층계를

저거밟으며 오르는

영광의 언덕...

그 무슨 거대한 힘이

나를 이끌어 여기에 세웠는가

걸음 멈추고 조용히 둘러보나니

사위는 새벽빛에 드러나고

정다운 거리는

새날의 숨결 높은데

나의 가슴은 높이 뛰여라!

누리에 존엄높은

위대한 영상이

나를 굽어보심으로 하여...

백두성산의

위대한 력사가 흐르는 언덕에서

내 이 아침

마음속깊이

새날의 축원을 안고

자애로운 영상앞에 다가가노라

그러면 나의 눈앞에

누리를 가득 채우며 환히 비쳐오는

광휘로운 빛발

아, 태양은 여기서부터 솟아오르는것인가...

우주의 아침이 여기서 시작되는것인가...

높이 드신 손길로

저멀리 동터오는 하늘가

희망인양 기발인양 불타는

아름다운 아침노을을 가리키시는

불멸의 영상, 위대한 모습-

위대하여라... 승엄하여라...

세기의 언덕에 높이 서시여

공산주의 휘황한 미래에로 부르시는

혁명의 태양 **김일성**동지!

거룩하신 그 손길!

높이 드신 그 손길아래

이 땅우에 푸른 하늘 열려

조국광복의 새 아침이 밝아왔고

그 손길 천리마를 불러

세월을 앞당기며 기적을 창조하며

여기 동방의 기슭에

아침해 찬란한

주체의 락원 펼쳤나니

그 손길아래 이 아침도

고요한 요람우에서

귀여운 아기의 불웃음이 피어나고

밤새워 불화광 솟구치던 야금기지에

새날과 더불어

뜨거운 쇠물이 굽이쳐흐르거니...

아 세기의 암운질은 캄캄한 밤

《E.C》의 해불높이

풍랑사나운 대양우에

혁명의 닷을 올리신 때로부터

혈전 수만리-

불구름 헤쳐 또 수만리-

인민을 승리와 광명의 언덕에로 부르시고

인류의 머리우에

자주의 새 력사를 펼치신

크나큰 손길!

그이께서는 내리우지 않으시리

세계가

공산주의에로 들어서는 날까지

그 위대한 손길을!

## 의 리

정창윤

먼동이 터올무렵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농가의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시었다. 내륙북방 고산지대의 초겨울 바람은 마당 좌우쪽에 서있는 황철나무우듬지들을 휘어잡고 쉬임없이 흔들었다.

밤마다 작전대결에서 밤을 보내시고는 찬바람부는 마당에 나오시여 새날을 맞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었다.

전선은 벌써 먼 남쪽으로 옮겨졌다. 3 계단 작전을 담당한 1 계대 사단들은 반격의 길에서 파도처럼 진격해가고있다.

이곳까지 전략적으로 후퇴하였던 사단들도 대렬을 재편성하고 남으로 가고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일렬종대를 이룬 병사들이 아득히 멀어져가는 남쪽의 산발들을 바라보신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에 알릴락말락 룬락을 드러내는 산들이다.

위험에 처했던 조국은 구원되었고 민족도 구원되었다. 허지만 최고사령관동지의 추가신 표정은 여전히 무겁다. 너무도 많은 짐이 아직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어깨우에 실려있다. 아물지 않은 상처 또한 가슴속에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 전란의 나날에 쌓이고 덧쌓인 슬픔이 그대로 그 무거운 표정속에 지워지지 않고있다.

이름없는 산, 골짜기, 들판에서 적들과 싸우다가 전사한 수많은 병사들과 지휘관들,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는 적후련대들과 사단들, 재더미로 되어버린 도시들, 공장들, 학교들,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적들에게 강점되었던 지역들에서 학살된 당원들... 이 모든 설움을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는 혼자서 안고계신다.

바람세는 더욱 높아지면서 황철나무우듬지에서 울고있다.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 이 골짜기 마을의 한옆에서는 어느 부대가 대렬을 편성하느라고 밤을 밝히고있다.

군관들의 갈린 목청이 병사들의 이름을 쉬임없이 부르고있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 이름들은 아주 똑똑하게 들린다.

《고춘택, 박수동, 리한경...》

그다음은 또 다른 군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온다.

《이제부터는 102련대 1대대 명단을 부르겠소. 방호철, 강민우, 우술환...》

그 이름들을 듣고계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뒤에 서있는 총참모장에게 물으시었다.

《102련대라고 했지요? 그건 새로 조직되는 사

단의 2련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총참모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씀드리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새로 조직되는 사단에 71사의 명칭을 주는것이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무거운 안색으로 말씀이 없으시었다.

총참모장은 그이의 시선을 대하자 저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고말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 시선을 돌리시여 대렬편성중에 있는 병사들쪽을 바라보시었다.

71사단은 아직껏 생사여부를 알길없는 사단이다. 71사단은 락동강에서 적들의 완전포위속에 들게 된다는것을 알린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져버렸다.

부관이 털외투를 들고 최고사령관동지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군의들이 이런 날씨엔 특별히 조심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방안으로 들어가실것을 간청하는 부관이였다. 그랬지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신듯 그 어떤 응대도 없으시자 나직한 한숨을 내쉬며 총참모장이 서있는 뒤편으로 물러났다. 오랜 기간 부관으로 있는 그로서는 지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크나큰 슬픔속에 계시다는것을 인차 알수 있었다. ...

건당, 건국, 건군의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가던 나날이였다.

제 1 중앙군관학교 교장실에 한 청년군관이 호출되어와서 **김일성** 장군님앞에 섰다. 재직반 학생 박청덕이였다. 구리로 부어낸듯한 검붉은 얼굴의 단단한 청년이다. 큰 눈이 숯불같은 빛을 뿌리는 그는 벼랑이나 고층건물,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그대로 댕다 떨어진듯 날파람있어보이는 청년이였다. 중기에 두드러진 근육은 금시 팽팽한 군복의 앞가슴과 어깨를 터치고 나울상싶었다.

《이리로 와서 앉으시오.》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곁에 놓인 의자를 가리키시였다.

《동무를 한번 더 만나보고싶어서 불렀소.》

장군님께서는 청덕이와 가지런히 앉게 되자 그의 한쪽손을 잡아주시였다.

《손도 무쇠덩이같구만. 고향은 어디요?》

장군님께서는 청덕에 대하여 많은것을 알고 싶어하시였다.

《중학교는 졸업했다지, 어느 중학교요? 아버지는 계시오? 무슨 일을 하시오?》

청덕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내뿜었다.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는 교장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혔다. 자기네 학생이 장군님께 대답을 제대로 올리겠는지 걱정하는 그였다.

그러나 청덕은 교장이 늘 요구하는 군인식대답, 간단명료하게, 전후가 명백하게 똑똑한 발음으로 대답을 올렸다.

평북도 의주생, 중학교는 신의주에서 고학으로 졸업하였다. 그후엔 철공소의 철공, 어머니를 잃고 온돌쟁이였던 아버지와 둘이서 만주에 건너갔다. 그 낯설은 땅에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품팔이 생계를 이어가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무렵에 아버지마저 잃었다. 해방과 함께 고향에 돌아올 때는 외톨이였다.

새 조선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중 첫 사람, 병사로, 분대장으로, 소대장으로, 그다음은 대대장이 되면서 군관학교 재직반에 공부하려고 왔다.

장군님께서는 청년군관의 짧은 생애가 흘러간 토막토막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였다.

박청덕은 오늘 장군님께서 직접 집행하신 전술상학시간에 (방어진투시 런대지휘)런대장으로 지명되어 지휘관으로서의 뛰어난 군사적자질을 보여주었다.

장군님께서는 신생 인민조선의 무력을 떠메고 나갈 미래의 지휘관들인 군관학교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검열하기 위하여 재직반 학생들의 검열상학을 몸소 집행하신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지명된 학생마다에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을 제시하시고 그 처리과정들을 주시하시였다. 검열대에 오른 청년군관들의 정황처리능력은 높은 수준이였다. 그중에서도 박청덕은 규범적요구와 창조성 적용에서 단연 첫 자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수시로 변하는 각이한 정황을 주시였지만 청덕은 매번 숨쉴있게 처리하곤하였다.

순간순간 변하는 정황을 처리하는 그의 방법은 아주 훌륭하였고 매혹적이였다. 여러가지 방법들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줄 알았고 정황이 변함과 동시에 적군 지휘관들의 기도를 포착해낼줄알았다.

장군님께서는 방어시 런대전투를 지휘하는 청덕의 놀랄만한 군사적자질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상학을 총화하실때는 대렬앞에서 청덕을 치하까지 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학교를 떠나시기 앞서 청덕을 한번 더 만나보시려고 교장실로 부르신것이다.

《나는 오늘 동무를 알게 되어 매우 기쁘오. 앞으로 동무는 신생조국의 무력건설에서 한몫을 단

단히 하리라 믿소.》

《...》

청덕은 황송하여 몸가질바를 몰랐다. 어느때나 규범이 요구하는 동작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때만은 그 자세가 흠여졌던것이다. 늦게야 자기자세를 되찾고 답례를 올리고져 일어서려 하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그가 일어나지 못하게 어깨를 누르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청덕을 방에서 내보낸후에도 교장실에 늦게까지 남아계셨다.

《교장동무는 저 동무가 앞으로 훌륭한 군사일군이 되리라는것을 믿소? 저 동무는 앞으로 런대장이나 사단장도 할수 있고 군단장도 할수 있는 군사수재요. 동무는 교장으로 사임하는 기간 그런 청년들을 수많이 찾아내야 하오. 인재를 발견할줄 아는것도 능력이고 재능이요. 우리는 지금 강력한 민족무력을 건설하고있소. 우리가 키워내는 지휘관 한사람, 한사람은 모두가 명장이 되어야 하오.》

텅빈 넓은 방에는 장군님의 굵은 음성만 울리였다. 자기 사무탁이 아니라 손님용앞탁에 옮겨앉은 교장은 장군님말씀을 받아쓰고있었다. 항일전의 나날 장군님을 모시고 싸운 투사였던 교장은 장군님이 무엇때문에 군관학교에 관심이 크신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였다.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혁명은 계속되고있다. 신생조국을 하루아침에 삼켜버리려고 미제와 그 앞잡이 피퇴들은 38 선을 넘어 들어올 기회만 노리고있다. 그리하여 신생조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다시금 망국노가 되느냐 하는 준엄한 역사적시각에 처한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교장이 앉아있는 길다란 앞탁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천천히 거니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가 산에서 싸우던 때를 회상해보오. 용감한 대원들이 있고 능하게 전투를 조직지휘할줄 아는 지휘원들이 있는 부대들이 패한적이 있소? 나는 오늘 박청덕동무와 같은 명장감을 찾게 되어 몹시 기쁘오. 교장동무도 그런 학생들을 계속 찾아내여 특별한 관심속에 키우시오. 앞으로 나는 군관학교에 더 자주 나오겠소.》

장군님께서는 약속대로 그후엔 더 자주 군관학교에 나오시였다. 그때마다 몸소 검열상학을 집행하시면서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보살펴주시였다.

전술상학만 아니라 사격, 병기 등 각 과목에 걸쳐 주의를 돌려주시였다. 어떤 날엔 실탄사격장에서 화선에 엮드린 학생들의 사격자세까지 바로잡아주시면서 목표물로 탄알이 정확히 날아가도록 해주시였다. 또한 학교에 나오실 때마다 청덕을 만나보시곤하였다.

《그동안 몸은 건강했소?》

《배는 고프지 않소?》

《국수를 좋아한대지.》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청덕의 학업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계시었다. 지어는 청덕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하는것까지 알고계시었다.

이 군관학교 후방부교장은 국수라면 질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국수를 누를수 있는 분틀조차 제대로 장만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런 내막을 아시게 된 장군님께서는 교장쪽을 바라보시며 웃음절반의 말씀을 하시었다. 《난 오늘저녁 학교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가겠소. 교장동무가 우리 일행도 급식인원으로 쳐주지 않으려오?》

후방부교장은 낯선 사람이었다. 어느새 아구리 넓은 분틀과 메밀가루가 든 마대들을 식당으로 실어들였다. 잠시후엔 학생들과 교원들의 식탁우에 먹음직스럽게 만 국수그릇들이 올랐다.

장군님께서도 청덕이와 식탁에 마주 앉으시었다.

《들자구, 나도 국수를 좋아하지.》

장군님께서는 눈에 띄게 큰 그릇에 만 국수를 청덕이앞에 밀어놓으시었다. 저가락을 먼저 드신 장군님께서는 국수사리를 뒤척이시었다.

《원래 국수군들이란 한두그릇쯤으로는 성차하지 않소. 청덕동무는 몇그릇이나 처리하오?》

장군님께서는 청덕이를 건너다보시었다.

《...》

순간 장군님께서는 잡으셨던 저가락을 놓으시었다. 국수그릇우에 머리를 숙인채 울고있는 청덕을 보셨기때문이다.

청덕은 두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을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

한동안 장군님은 울고있는 청덕을 아무런 말쑤도 없이 건너다보실뿐이었다.

청덕이자신도 그때야 자기가 울고있다는것을 안듯 황급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쳤다.

《강철 갈은 사나이가 눈물을 보이다니 웬일이요?》

《죄송합니다. 장군님, 이국땅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국수를 좋아한다는것을 알고 품팔이 고달픈 날들에도 샅전을 받아주면 국수집으로 데리고 가군하셨습니다.》

《...》

장군님께서는 서글픈 표정을 지으시고 청덕의 말을 물으시었다. 들으시는동안 도간도간 나직하게 긴숨을 내쉬군하시었다,

이국땅과 아버지... 나라잃은탓에 타국 타향에서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슬픔을 놓고 말한다면 장군님이상의 쓰라림을 겪은 사람이 또 어데 있으랴. 아버님도 어머니도 장군님께서는 이국땅에 묻고 돌아오시었다. 조국에 개선하신후 함께 오지 못한 부모님들이 때없이 떠오르군하여 잠드

시지 못한 밤은 얼마나 많으셨던가.

《저를 키우노라 아버지는 천대란 천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게 몇몇한 생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저세상으로 가면서도 그것이 한스러워 눈을 감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그 몇몇한 삶을 주시었습니다. 당원으로, 군인으로, 군관으로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십니다. 이렇게 장군님앞에 앉으니 아버지앞에 앉아있는것만 같아 저절로 눈물이 쏟아집니다.》

청덕은 울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다.

《...》

장군님께서는 무거워진 기분으로 청덕이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시었다.

《우리 군관학교 학생들은 장군님께서 오시면 아버지가 오신것처럼 기뻐드립니다. 우리모두가 장군님을 학부형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저의 동무들은 장군님의 아들이 되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보답할 각오속에 살고있습니다.》

《고맙소. 청덕동무, 나는 아버지가 되고 동무들은 아들이 되어 서로 믿고 의지합시다. 앞으로도 나는 동무들이 보고싶을 때면 부대들에 찾아가겠소.》

그 이듬해 여름이었다. 그해따라 삼복더위가 류달리 대지를 찌물구었다. 훈련강도가 높았던 군관학교 학생들의 잔등은 언제나 땀으로 질벅해지군하였다.

이러한 여름에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에게 표창휴가가 차례졌다.

청덕이도 그들중 한사람으로 휴가를 받게 되었다.

표창받은 학생들은 부모형제자 있고 애인들이 있는 고향집으로 떠나갔다. 허지만 청덕에겐 갈 곳이 없었다. 그에겐 부모들이 살고있는 고향집도 없었고 가까운 친척들도 없었다. 이 동무 저 동무가 자기네 고향집으로 함께 가자고 청덕을 끌어당겼다. 허지만 청덕은 동무들을 따라가고싶지 않았다. 어째서인지 동무들을 따라나서면 혈혈단신으로서의 외로움이 더한층 진하게 가슴속으로 파고들것만 같았다.

이러한 때에 장군님께서 군관학교 교장을 전화로 찾으시었다. 청덕이가 휴가기간을 장군님덕에 와서 보냈으면 좋으시겠다는 의향이시었다.

청덕은 눈물을 훔치면서 평양으로 떠났다. 평양정거장에 장군님의 부관이 나와있다가 청덕을 맞아주었다.

《장군님께서 기다리고계십니다.》

눈앞이 흐려져서 차창을 스치며 지나가는 풍경조차 내다볼수 없는 청덕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청덕동무가 아무런 불편도 없이 휴가기간을 제 집에서처럼 보내기를 바라십니



다.》

장군님택에서 보낸 청덕의 휴가기간은 꿈같은 나날들이었다. 휴가의 전기간 청덕이가 보낼 하루하루의 시간표를 장군님께서 직접 짜주시었다.

그 시간표엔 청덕이가 봐야 할 사적지들, 기념 건물들이 들어있었고 가극들, 연극들, 영화들이 들어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간혹 일찍 들어오시게 되면 청덕이와 마주 앉으시곤하였다. 이 행복의 순간순간에 청덕은 그가 것처럼 알고싶어했던 백전백승의 항일유격대 전법들을 배울수 있었다.

《청덕 동무는 휴가기간에도 공부할 생각만 하오?》.

장군님께서서는 청덕이가 그 전법들의 군사학적 특성들을 무척 알고싶어할 때면 이처럼 말씀하시곤하였다. 하시면서도 복잡한 하루의 집무를 끝내신 피곤도 잊으시고 항학열에 불타는 청년군관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것 개별강의를 해주시었다.

신출귀몰이란 무슨 뜻이며 그 전법의 군사적 실천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격전과 방어전에서 이 전술의 적용은 제각기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축지법이란 어떤것인가? 그것의 군사행동상 가능성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동성서격의 전술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가? 그 준비단계에서 류의할 점은 무엇인가?

이외에도 항일유격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전법들인 외면매복전과 쌍면매복전, 습격전, 배후교란전 등 장군님께서 청덕에게 가르쳐주신 내용은 다양하였다.

어떤 날 저녁엔 지휘관과 대렬, 전투에서 지휘관의 결심, 용감한 지휘관에게 비겁한 병사가 없다,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주시기도 하였다.

청덕의 일생에서 장군님의 군사사상을 심오하게 습득할수 있었던 이 휴가기간처럼 행복했고 또 귀중했던 때는 없었다.

그 이듬해에 청덕은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교문을 나섰다. 재직반 졸업생들은 장군님께서 직접 한사람한사람 배치하시었다.

청덕은 새로 조직되는련대의 련대장으로 임명되어갔다.

련대에서의 청덕의 하루하루는 바쁘게 흘러갔다. 하면서도 청덕은 장군님께 편지를 꼭꼭 올리곤하였다.

...아직은 신입병사들이어서 련대의 기풍은 감칠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병사들을 훌륭한 전투원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군련대들중 가장 우수한 련대의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그때엔 세간난 아들이 자기 집에 아버지 초청하듯 장군님을 련대에 모시겠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박청덕련대는 여러차례의 전인

민군적인 판정검열에서 가장 우수한 련대들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인제는 부끄럽지 않게 련대를 꾸렸습니다. 우리 련대의 병사들은 누구나 어엿한 병사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련대병사들 모두의 소원이자 제자신의 소원인 장군님 모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나 박청덕련대 병사들과 지휘관들의 소원은 이루어질수 없었다. 조국은 미제침략자들이 강요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된것이다. 박청덕련대는 전선으로 나갔다. 련대는 가장 어려운 구간을 담당하고 원수들을 격멸하며 남진하였다.

련대장 박청덕은 눈코뜰새없는 격전의 길에서도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는것을 잊지 않았다.

...로회한 적장들이 련대의 전진전방에 나타나 군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시기부터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 사단장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장교로서 온갖 악독한것을 다하던 피뢰군 련대장이나 사단장들이 우리 련대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방어선을 겹겹이 둘러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련대는 적들을 짓몽개버리며 진격의 길을 다그치고있습니다. 제가 만일 장군님께서 배워주신 전법을 적용할줄 몰랐다면 이런 전과는 기대할수 없었을것입니다. ...

...오늘도 련대는 적들의 준비된 방어선을 돌파하고 30 킬로미터를 전진하였습니다. 련대의 전진은 계속되고있습니다...

박청덕은 남진의 드세찬 열풍속에서 사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날 청덕은 최고사령관동지께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오늘 71 사단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의 이 신임이 고마워 울었습니다. 전장에서 희생된 사단장동지의 뒤를 잇기엔 제가 모든 면에서 어렵니다. 그는 장군님의 전사된 의리를 목숨으로 키친 항일혁명투사였습니다. 저도 이처럼 장군님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단은 래일부터 락동강에 진출합니다. 락동강에서 71 사단은 부끄럽지 않게 싸우겠습니다...

부관이 다시한번 최고사령관동지께로 와서 정중하나 단호한 어조로 말씀올린다.

《방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큰 바람이 터질것 같습니다.》

그랬으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신다. 저쪽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사단을 조직하는 대렬군관들의 호명소리가 들려온다.

《분대장 리상철, 부분대장 박만기...》

몇달전 어느날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작전대를 굽어보시며 서계시었다. 무거운 표정이었다. 여름이건만 목단추하나 풀어놓지 않으신채 락동강전선에 시선을 주시고 서계신다.

작전대 건너편에 마주서있는 총참모장 얼굴빛 역시 몹시 어둡다.

불길에 싸인 락동강이다. 아군표식의 붉은 화살표들과 적군표식의 검은 화살표들이 그물처럼 얽혀진 좌안 계선이다.

아군사단들은 함안,령산,창평 일대와 현풍지구의 적들을 쫓아내면서 락동강넘어 깊숙이 전진하였다. 허나 이제는 더이상 전진할 길이 막혀버렸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미칠수 없는 어마어마한 적들의 유생력량이 아군사단들의 전진전방에 장벽을 쌓았다. 포병대의 탄막사격, 비행대의 주단식폭격, 여기서는 나무도 돌덩이도 지어는 철덩이들까지도 불에 타고있다. 한조박의 푸른 하늘도,성한채로 있는 한치의 땅도 찾아볼수 없다. 그중에서도 락동강돌출부인 152.2고지는 불길에 휘말려 정점 한끝만 보일뿐이다.

거기엔 지금 아군 한개 사단이 있다. 공격성파를 확대해보려고 출로를 모색하던 그 사단이 있다. 공격성파를 확대해보려고 출로를 모색하던 그 사단은 지금 방어에로 이전하였다. 반대로 적들은 이 고지를 되찾으려고 반돌격을 진행하고있다. 그 반돌격력량은 3개사단이다. 이 3개사단을 총지휘하고있는건 위커자신이다.

부산과 대구가 하나의 작전지구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토막나서 각개격파되느냐 하는것은 152.2고지를 차지한 인민군 사단의 전진 출로를 허용하는가 불허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적들은 간주하고 있다.

정황은 더이상 인민군 사단들의 공격이 곤란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미제는 일본과 본토에 있던 사단들과 추종국 부대들까지 투입했거나 투입중에 있다. 만신창이 되어 비참하기가 이를테없이 되었던 피퇴군 사단들과 려단들까지 대렬을 재편성하고 락동강 좌안계선에 진출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러한 적정료해에 기초하시여 인민군사단들이 락동강에서 떠날것을 명령하시였다. 현재의 유생력량들을 보존한채 급속히,그러나 은밀히 안전통로들을 택하여 북쪽으로 이동을 개시하라는 명령이였다. 그러나 152.2고지에 있는 사단엔 다른 명령서가 하달되였다.

명령서는 조선인민군 71사단 사단장 박청덕앞으로 되어있었다.

락동강에서 아군부대들의 철수가 진행되는 기간 152.2고지는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 현재 붙잡고있는 적들을 끝까지 묶어두는것은 아군주력집단들의 퇴각압호로 된다. 아군부대들이 락동강 좌우안 계선에 없다는것이 철저히 확인되었을 때 71사단도 152.2고지계선에서 철수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의 존함으로 씌여진 이 명령서는 벌써 71사단에 전달되였다. 이 명령서는 71사단이 조선인민군의 최전위부대로부터 최후위부대로 된다는 뜻이며 몇시간후엔 적후사단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여전히 152.2고지를 굽어보시며 서계신다. 총참모장

역시 그렇게 서있다.

천만톤의 무게를 실은 적막이 깃든 작전실이 다.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부관이 들어섰다. 전선으로부터 새로운 무전문이 도착한것이다.

...미제침략군 땅크 190 대 152.2 고지 후면에 나타남, 새로 실어온 300 문의 포도 152.2 고지 방향으로 이동중에 있음, 152.2 고지는 좌우린접과 련계가 끊어지고 완전포위됨. 71사단은 원형방어로 이전함...

그 하나의 무전문은 이런것이였다.

...새로 편성된 미제침략군 아몬도 10군단이 움직임 ...

부관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되돌아나갔다.

《71사단이 걱정됩니다》

총참모장이 침울한 어조로 최고사령관동지께 말씀올렸다.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작전판에서 물러나시여 천천히 거닐기 시작하시였다.

이 시각도 불바다속에 있을 71사단 병사들과 사단장 박청덕을 생각하시는 최고사령관동지시였다.

(박청덕... 박청덕...)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아보신다.

험지에 홀로 떨어져서 피투성이 격전을 벌리고 있을 그였다.

흙도 나무도,돌마저 불타고있는 152.2고지를 지키고있는 박청덕... 이마에는 봉대가 감기였다. 병사들과 함께 전호속에 있는 그의 옷은 불에 타고 찢겼다. 손엔 수류탄과 보총이 들려있다. 병사들을 고무하는 청덕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동무들, 힘을 냅시다. 적들을 우리가 붙잡아둡시다. 그래야만 린접사단들이 무사히 락동강지구를 떠날수 있습니다.》

청덕의 구리빛 얼굴로는 굵은 땀방울이 줄을 그으며 씩없이 흘러내리고있다.

이 모든것을 그려보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가슴은 날카로운 쇠붙이에 긁히우듯 아프셨다...

새로운 사단은 지금도 계속 조직되고있다.

《리령길, 강길서, 유한풍... 대답을 크게 하란말이요.》

밤을 지새며 대렬을 편성하고있는 군관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온다. 영영 움직이지 않으실듯 한자리에 서계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마당의 이쪽 황철나무밑에서 저쪽 황철나무밑까지 걸어가보신다. 벌거벗은 황철나무우듬지들은 여전히 찬바람에 휘감기며 애처롭게 울고있다.

다시 되돌아서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쪽 황철나무밑에서 저쪽 황철나무밑까지 걸어가보신

다. 벌거벗은 황철나무우듬지들은 여전히 찬바람에 휘감기며 애처롭게 울고있다.

다시 되돌아시킨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쪽 황철나무밑으로 오신다. 총참모장은 그이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71 사단은 영영 없어졌는가요 ?》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나직이 물으신다.

《...모두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총참모장의 울음을 참는 대답이었다.

그동안 최고사령관동지와 총참모장사이에서는 71 사단에 대한 일을 두고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어느 경우에도 71 사단에 대한 말을 입밖으로 내기를 피하였다. 너무도 슬픈, 너무도 가슴 아픈 말이었기때문이다.

《그 모두란 무슨 뜻인가요 ?》

《우리의 전쟁을 처음부터 지켜보고있는 많은 나라 군사통신들까지 그렇게 쓰고있습니다. 도표 방송도 계속 그렇게 보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총참모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로서는 다음말을 잇기가 힘들었던것이다.

《그래서 저는 새로 조직하여 전연에 진출시키려는 사단에 71 사의 명칭을 주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71 사단은 살아서 싸우고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총참모장은 바람속에 서있었지만 이 말씀을 올릴 때 이마우에 땀방울이 내뿜었다.

《그런 시위는 무엇때문에 필요합니까?》

《...》

총참모장의 그 심정을 모르시지 않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였다. 그래서 총참모장은 아무런 말씀도 울리지 않았다. 《새로 조직되는 저 사단을 작전예비대로 돌립시다. 사단명칭은 아직 조선인민군에 없었던 새 이름을 답시다. 멀지않아 제 2 전선에 파견된 사단들로부터 박청덕과 만났다는 소식이 오리라 믿습니다. 71 사단은 지금 적후에서 싸우고있을것입니다.》

《...》

총참모장은 머리를 숙인채 서있었다.

《나는 박청덕동무를 나자신처럼 알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152.2 고지에 남기지부터 앉았을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습니다. 71 사단의 덕분에 락동강전선에서 조선인민군 주력사단들이 안전통로를 얻어 무사히 철수할수 있었습니다.》

《...》

총참모장은 이제 곧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머리에 오는것이 있었다. 그래서 머리를 더욱 깊이 숙이였다.

《우리가 만일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71 사단의 소식이 오지 않을 때... 그리고 열가지 확인자료에 의하여 더는 71 사단이 돌아올 길이 없다는것이 명백해졌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71 사단이란 이름을 다른 사단에 주어서는 안됩니다. 조선인민군 사단들중에 71 사단이란 이름이 영원히 공백으로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력사는 어째서 조선인민군 사단들중에 71 사단이 없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국과 당과 수령에게 더없이 충직했던 영웅들의 사단이 바로 71 사단이었다는것을 후손들도 알도록 해야 합니다.》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부관이 어깨우에 얹혀준 외투자락의 한끝을 세찬 바람이 날리고있다는것도 모르시고 몇발자욱 옮기셨다가 다시금 총참모장이 머리를 숙이고 서있는곳으로 돌아오시였다.

《자존심의 시위보다는 의리를 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는것이 우리들입니다. 박청덕과 71 사단의 영웅병사들은 우리에게 대한 의리에 충실했습니다. 우리 역시 박청덕과 71 사단 영웅병사들에 대한 의리를 잠시나마 잊어서는 안됩니다.》

큰 바람은 드디어 터지고야 말았다. 마당량옆에 서있는 황철나무도 울고 울타리나 지붕도 울었다.

이런 바람속이언만 총참모장은 머리를 꼭 숙인채 그대로 서있었다.

3일후에 제 2전선의 최현장령으로부터 보내온 무전보고문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

《71 사단은 건재함, 그동안 적후에서 잘 싸웠음, 사단장 박청덕은 부상당하여 담가우에 실려다니면서 전투를 지휘하였음,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 담가에서 내렸음, 나의 이 전문을 지체없이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릴것.》

최고사령부의 모든 군관, 하사관, 병사들이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어데서나 71 사단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이런 시각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관을 부르시였다.

《이제부터 나도 한시간쯤 눈을 붙이겠소. 지금이 3 시요. 그러니 4 시까지요》

그러시고는 작전대에서 물러나시였다.

## 하늘 (3)

리병철

끝날줄 모르는 어둠속  
태를 묻은 고향도 잃고 조국도 잃고  
우리 겨레 모두숨을 쉬며쉬며  
그 무슨 한줄기 빛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 바로 그러던 때  
그 어둠의 황막 한 공간속에서  
분명 안도쪽 먼 산너머에서  
땅을 흔드는 그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지나가버린 폭풍우의 여운인가 생각했더니  
아니아니 그소리는  
어찌 들으면 고운 목소리의 속삭임과도 같고  
어찌 들으면 정다운 사람의  
귀에 익은 발자욱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소리  
빼앗긴 고향  
바다기슭에 부서지는 파도소리가 생각했더니  
아니아니 그소리는  
몇천 몇만 세월만에 열리는 큰 문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우리의 주소를 알아내어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고  
숨가빠 달려오는 발자욱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점점 가까이  
점점 뚜렷이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눈물이 나도록 반가운 말소리였습니다.  
조선말소리였습니다.

우주공간에 조선말 울리기 시작한지 수수천년에  
가장 크게 가장 빛나게 울리는  
그런 영광스런 말소리야  
동포들 귀전에 별이 돌아나듯 들려왔습니다.  
- 《김일성 장군님 군사를 무으셨다.!...》

점점 가까이  
점점 뚜렷이 울려오는 소리

그것은 꿈결에 듣는 반가운 발자욱소리였습니다.  
우리 군사들 이리로 이리로  
줄을 서서 걸어오는 발자욱 소리였습니다.

붉은기를 앞에 날리며  
총대를 번쩍이며  
김일성 장군님 명령받은 우리 군사  
저벅저벅 발을 맞추며  
빼앗긴 우리 나라 조선을 찾으려고  
밤에도 낮에도 진격하는 발자욱소리였습니다.

아, 그 말소리, 그 발자욱 소리  
반가워 하도 반가워 울었습니다. 조선은  
울었습니다.

운명의 낭떠러지 삶의 기슭에 쫓겨나  
의지가지 없던 고아-조선은  
그때에야  
안길 품이 있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어린 눈으로 우리는 그려보았습니다.  
조선은 그려보았습니다.

수령님께서 대오앞에 세워주신 그 붉은기  
끝끝내 가져다 꽃을 당중앙위원회 청사와 같은  
그런 은빛 높은 지붕  
그런 지붕우의 저 푸른 하늘을

수령님께서 무어주신 항일유격대  
진두에 젊으신 장군님을 모시고  
한번은 꼭 들어서고야말 개선문과 같은  
그런 화강석 추녀우에 높이 열리는  
그런 비취색 고운 우리의 저 하늘을

참으로 우리 인민을 다 안아줄 품이사  
높고 넓은 하늘이 아니겠습니까  
한나라우에 밤이면 이슬을 주고  
낮이면 해빛을 주는 품이사  
높고 넓은 하늘밖에 또 있겠습니까.

#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은 세계인민들의 간절한 념원

라쉬드 음판다치

동방에 솟은 태양 누리를 비치고  
자주의 궤도따라 세계인민 전진하네  
허세와 거만으로 악명떨치던 대륙도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헤매이던 나라도  
자주의 궤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네

사람들 나라와 민족은 서로 달라도  
신앙과 정견은 같지 않아도  
하나의 줄기찬 대하가 되어  
자주의 새 시대 떠밀어가네

인류력사에 명인들 많아도  
만사람의 심장 틀어잡으시고  
하나의 전진운동에 나서게 하신분  
그 어느 나라 력사에서 찾아볼수 있었거나

그이는 다름아닌 **김일성** 동지  
사상의 영재 정도에 대가  
그이는 다름아닌 **김일성** 동지  
주체사상의 창시자 자주시대의 정도자

그이 계시여  
식민지였던 조선은 세계에 빛을 뿌리고  
그이 계시여  
세계인민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그이 계시여  
수천년 갈망하던 인민의 념원  
인민이 세계의 주인된 인류의 새시대  
오늘의 현실로 꽃피나고  
그이 계시여  
인류의 미래는 찬란하여라

자주시대의 주인된 세계인민들  
삼가 머리 숙여 인사드리네  
간절한 소원 담아 인사드리네

-탄생일을 맞으시는

**김일성** 동지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필자는 탄자니아 민족복무대에술단

민족무용단 책임자임)

## 자유가 탄생한곳 만경대

시라즈 쇼우드리

목란꽃 송이송이 만경대에 피여날제  
꽃들은 말해주리 낡은 질서의 끝장을  
꽃들은 말해주리 만민이 따르는 사상을  
영웅들 이룩한것, 인민들 바라는것 무엇인가를

만경대 만경대  
자유가 탄생한곳  
네 품에 아름답게 피여난 목란꽃  
언제면 내 조국에도 피어나려나

조국과 민족 위한 투쟁의 길에서

손에 총을 잡고 죽음을 각오할제  
인민에게 충성을 다할수 있었다고  
한 가정의 이야기 전해주는곳

만경대 만경대  
자유가 탄생한곳  
네 품에 아름답게 피여난 목란꽃  
언제면 내 조국에도 피어나려나

세대는 바뀌어도 사상은 하나  
원썬놈들의 감옥에 갇힌 몸 되어도

고향 떠나 수만리 방황하여도  
새날을 맞이할 그 길 찾으리

만경대 만경대  
자유가 탄생한곳  
네 품에 아름답게 피어난 목란꽃  
그 언제면 내 조국에도 피어나려나

선조들의 넋원을 꽃피우신분  
만경대에서 자라신 그 위인  
바라던 정의를 안아오신분  
위대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

만경대 만경대

자유가 탄생한곳  
네 품에 아름답게 피어난 목란꽃  
그 언제면 내 조국에도 피어나려나

꿈속에서도 누리고싶던 자유  
민족을 이끌어 찾아주었다고  
속삭이며 전하여주네  
이제는 활짝 피어난 목란꽃

만경대 만경대  
자유가 탄생한곳  
네 품에 아름답게 피어난 목란꽃  
그 언제면 내조국에도 피어나려나

(필자는 방글라데슈 라디오방송기자임)

## 인민들이 사는곳 그 어디에나

장건식

오시였던 그날이 어제같은데  
깊은 밤 이른새벽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이께선 소문없이 찾아주신다

이 나라 북단에 새로 선 발전소  
수도에서 천리길 험한곳까지  
건설자들의 그 위훈 축복해주시려  
준공식을 앞둔 새벽 찾아주신분

때아닌 폭우가  
제방을 위협하는 강안마을에  
해병들을 거느리시고  
누구보다 앞서 찾아주신분

공장에서 탄전으로  
농장에서 어촌으로  
생산에서 막힌 고리 풀어주시며  
기뻐하는 인민들의  
그 기쁨이 소중하시어  
견고걸으시는 현지지도의 수천만리길

저녁길 바빠 돌아오실 때에도  
길가 마을 지나치기 아쉬우신듯  
동구길에 달려나온 농민들과 함께  
달빛 넘친 들판을 돌아보시며  
밤이슬도 즐겨 맞으시는분

때로

산촌마을 토방에도 걸터앉으시더라  
제대된 외손자의 머느리 맛을  
할머니와 함께 웃으시며  
한집안의 잔근심도 풀어주시며...

사람마다 마음깊이 지닌 생각도  
허물없이 터놓게 하시는분  
만민의 생각과 숙원을 헤아리시어  
나라의 큰 일  
한가정의 작은 일도  
다 말아안으신 인민의 수령

그분께선 이어가신다  
포전에서 구내길로  
외진 산촌마을로...  
아직도 무엇인가 아쉬우신듯  
베루시는 그 사랑이 모자라신듯

인민들이 있는곳이면 그 어디에나  
찾아주시는분  
온 나라 매 가정의 한식술 되시어  
한 나라의 수수한 공민이 되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분

아, 인민의 수령  
온 나라 가정에 어버이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  
우리의 수령님!

## 왜 노래를 지은 창작가의 이름이 없는가?

오늘 우리 인민들이 다함없는 흥모의 정을 담아 부르는 충성의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는 작사자도, 작곡가도 밝혀있지 않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1971년도 다 저물어가던 12월 27일이였다.

이날 중앙의 어느 한 예술기관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지를 모시고 노래시청회가 진행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그 창작을 받기하시고 포치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에 대한 시청회였다.

시청회에는 세련의 노래가 무대에 올랐는데 창작가들은 오래동안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만든 노래들이기에 이번만은 그이께 만족을 드릴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빠른 생각이었다.

준비한 세련의 노래를 다 듣고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엇인가 생각하시는듯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수고한 동무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안되였지만 이번 노래들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며 마음의 피로움을 푸시려는듯 천천히 일어서시여 정원으로 나가시였다.

창작가들은 또다시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무거운 자책감을 안고 조용히 그이의 뒤를 따랐다.

정원에는 눈이 소복이 깔려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말없이 눈길을 거니시며 거리를 내다보시였다.

밤거리에는 울긋불긋한 장식등, 축등들이 번쩍거리고 그림으로서는 악기통들을 옆구리에 낀 어린 녀학생들이 눈장난을 하면서 깔깔대며 걸어가고 있었다.

명절을 앞둔 수도의 아름다운 야경,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해마다 새라새롭게 달라지는 년말의 밤풍경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야경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피로우신 음성으로 나는 동무들을 그토록 믿고 사랑하는데 동무들은 왜 내 마음을 그리도 몰라주는가고 하시며 새해에는 수령님께서 60 돌 생일을 맞으시기때문에 이번 새해아침에는 꼭 수령님께 이 노래를 선물로 드리자고 했는데 동무들이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준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이처럼 가슴아픈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이께서는 이 노래의 창작을 포치하신후 이날 이때까지 중요한 명절이나 경축절을 맞으실 때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

를 드리지 못하는것을 몹시 서운해하시였다.

1971년 설날에도 그랬고 4월 15일에도 그랬으며 9.9절과 10월 10일에도 그랬다.

그런데 이날 또다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니 창작가들은 죄송스러운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책에 모대기는 창작가들을 측은한 눈길로 잠시 바라보시더니 동무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심려와 로고를 안으시고 한평생을 고생속에서 살아오셨는지 모르고있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 인간이 겪어온 모든 고생과 슬픔과 피로움을 다 체험하시였고 위험한 사선을 수없이 넘으시면서 혁명의 길에서 잃은 전우들을 품에 안으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시였고 오늘도 그들을 생각하시며 잠못이루고계시는데 대하여, 또한 수령님께서 언제 한번 마음 편안하게 쉬신적이 없이 만주광야에서 20여년 세월의 눈비를 맞으시며 보내시였고 해방 후에는 새 조국건설을 위해 밤을 새우시고 전쟁 3년간은 물론 전후에도 악랄한 종파놈들과 싸우시면서 인민들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검소한 식사마저 미루시면서 오늘까지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로고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시였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푸짐히 내리는 햇썸같은 함박눈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눈을 그대로 맞으시며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이 마련되고 꽃핀데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들은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고 받들어 나가면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절절히 바라고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상과 감정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가 찾는 명가사와 명곡이 되지 않겠는가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에게 눈오는 바깥에 세워두고 너무 오래 이야기하여 미안하다고 하시며 천천히 승용차 있는곳으로 가시였다.

잠시후 차는 떠나고 눈발은 홀날렸으나 창작가들은 방금전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사무쳐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하였다.

마디마디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그 말씀은 새기면 새길

수룩 그대로 우리 인민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하나의 완결된 불후의 명가사로 안겨왔던것이다.

창작가들은 그 길로 창작실에 달려들어와 그의 말씀을 그대로 종이우에 적어나갔다.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  
아버이 그 사랑 그 품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은 꽃폈습시다

그리고 그들은 련이어 그의 말씀에서 받은 감흥을 그대로 선불에 담아 노래를 불려나갔다.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  
...

순식간에 한편의 노래가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래를 지어왔지만 그 모든 노래들과는 가사도 곡도 전혀 다른, 그지없이 밝고 부드럽으면서도 무한히 깊은 중심을 가진 노래였다.

창작가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고 음미해보며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감격은 다음날에 더 컸다.

이튿날 그 노래를 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뻘뻘하고, 바로 이것이 만점짜리라고 하시며 이제야 바라던 노래가 나왔다고 더없이 기뻐

하시었다. 그리고 창작가들을 분에 넘치게 치하해주시고나서 그자리에서 노래를 지체없이 전국에 보급할 대책까지 세우시었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뉘를 맞이하는 뜻깊은 1972년 첫아침, 백발의 로투사들도 젊은 혁신자들도 새해의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사선을 넘어온 남녘의 혁명가들도 총련의 일군들도 이 노래를 합창으로 부르며 목메여 흐느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곁에 있는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자, 울지 말고 다들 앉으시오. 앉으시오.》라고 하시며 손수건을 조용히 눈언저리에 가져가시었다.

일군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눈가에도 맑은것이 빛나고있었다.

우리 인민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충성의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는 이렇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니 이 불후의 기념비적인 송가에 어떻게 개별적인 작가나 작곡가의 이름을 올릴수 있겠는가.

그 이름없는 빈자리에는 자나깨나 어버이수령님의 만년장수를 절절히 념원하는 우리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이 노래의 창작을 몸소 발기하시고 완성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귀하신 성함이 높이 모셔져있음을 사람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것이다.

## 백두산의 진달래

윤병규

오는 봄이 더딘듯  
눈덮은 절벽가에 활짝 피어  
백두의 노을빛을 잎잎에 머금은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아라

그 라는 빛 말 못할 행복이런듯  
티 한점 앓을세라  
바람도 백두의 바람에  
꽃잎을 씻고 또 씻네

해빛 따르는 진달래 밝은 웃음에  
내 생의 자욱자욱을 비쳐보는 마음  
조국 위한 진정에 한점 티라도 있다면  
마주 웃기 차마 부끄러우리

아 어제도 오늘도  
때없이 때없이  
백두의 눈비속에  
기꺼이 서보는 내 마음아!



## 내 곁에 설레는 봇나무숲

서봉재

멀리서도 나를 불러  
다정히 손잡아 불러  
가지를 휘젓는 봇나무 봇나무  
백두밀영의 하얀 봇나무

눈물 겨웁다  
아직도 생각하면  
벌써 한해가 넘게  
해도 바뀌고  
달도 흘렀건만은,

꿈은 아니련만  
아직도 진정 꿈과도 같다  
흰살결, 흰가지의 네숲아래  
아버이수령님 모시고  
우리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우러러 감격에 목메인  
발굴대원들의 손과 손 뜨겁게 잡아주시며  
억만금과 바꿀수 없는 만년재보  
동무들이 아니면 찾아낼수 없었다고  
그러히도 기쁨에 잠기시던 수령님!

하늘로 날으는 룡마바위도 바라보시고  
장검바위도 가리키시며  
소백수목가 구호나무도 어서 보자고  
우리들을 앞세워주시던 아버지 그 사랑

산발을 넘고 길없는 숲을 헤치며

아는이 없이 새겨온 그 진정 헤아리셨던가  
그전날엔 이곳 밀영의 대원들과  
사진 한장 남겨놓은것 없지만  
오늘 이 산발의 사적발굴대원들과  
여기 봇나무앞에서 사진을 찍자하실 때  
아, 눈물은 어찌하여 그러히도 멈출줄 몰랐던가

가슴엔 걱정이 파도쳐도  
그이를 모신 영상 흐려질가봐  
숲, 봇나무숲도  
그 설레임 멈추고  
아버이 그 품에 안긴 영광  
밀림은 영원한 화폭속에 간직했나니

광야에 피를 뿌린  
투사들이 먼저 서야 할 그자리에  
피도 아닌 땀을 바친  
발굴대원들을 가까이 부르시여  
항일의 전사들과 나란히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이어

아, 그날의 그 믿음으로  
나의 신념 백두산발에 뿌리내리고  
그날의 그 영광으로  
나의 삶 굳센 아지를 펼쳐주는 봇나무  
어데서나 내곁에 가까이 설레이며  
그 언제나 내 마음의 기둥을 높이 세워주는  
백두밀영의 봇나무숲이여!  
-백두산밀영에서-

## 끝나지 않는 이야기

리영봉

우뢰치던 전기로도 숨결 낮추고  
떠들썩하던 용해공들도 말이 없다  
방금 평양에서 돌아온  
지배인의 옷센에서는 눈이 녹아내리는데  
자랑에 겨워 터놓는 그의 이야기

전원회의 짧은 휴식참에도  
수령님께서 용해공들의 안부 물으셨다고  
만톤의 강제로 나라의 허리퍼게 한  
그 로장도 젊은 용해공도  
다 잘 있는가 모두 만나보고싶다고,  
기쁨이여, 이런 때는 어찌하여

뭉클 가슴도 젖어오느냐  
로장은 슬며시 돌아서며 눈시울 닦고  
젊은 용해공들 철가슴 들먹이는데  
또다시 이어지는  
지배인의 더듬는 목멘 이야기

새 거리도 새 공장도  
일떠세워야 할 오늘  
강철이 많아야 한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당은 동무들을 믿는다고  
뜨겁게 뜨겁게 말씀하셨다고...

순간  
 평양하늘 우러러 경건히 선  
 용해공들의 마음인가  
 웅-웅 전기로는 뚫고  
 밤하늘가 저 멀리 노을은 빛발쳐가네

후더운 가슴들을 들먹이며  
 로장도 용해공들도 말이 없다  
 어려움도 시련도 애오라지  
 수령님만 믿고 헤쳐온 그들  
 잊을수 없는 12월의 그 눈송이도  
 다시 가슴에 안아보며,

아, 용해공들의 눈가엔 뜨거운것이 고이고  
 전기로엔 사뭇치며 쇠물이 끓고있었네  
 수령님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님을 믿었기에  
 위대한 조국을 일떠세운  
 조국의 어제와 오늘이 있고  
 래일도 굳게 담보되어있거니

이미 이야기는 끝났어도  
 마주보는 눈길엔 사연도 많다  
 수령님과 인민의 오고가는 위대한 정은  
 먼 후날 후대들도  
 이렇게 감격속에 계속되리라

## 4 월

리종덕

어린 마음인양  
 기쁨과 환희로  
 새 달력장을 펼치는 가슴속에  
 해빛처럼 눈부신 글발로 새겨지는  
 4 월

오, 생각해 보면  
 봄, 여름 가을없이 겨울도 없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4 월이었구나, 4 월이었구나

눈내리던 날엔  
 씨앗을 고르며  
 만경대 고향집 프락으로  
 마음의 돛을 올리던 4 월이었고

새싹을 틔우면서도  
 평양하늘 우러러  
 마음을 거울처럼 비쳐보며  
 기다리던 4 월이었나니

내 조국의 한해는  
 4 월을 맞자고 달려온  
 날과 달이 아니던가  
 4 월을 맞자고 바뀌어 온  
 계절이 아니던가

아버이수령님 탄생하신  
 4 월의 봄이 있어  
 창조의 활력이 이글거리는 오늘이 있고  
 무궁토록 밝게 열린 래일이 있나니

그래서  
 이 땅의 꽃들은 이토록 향기를 풍기고  
 락원의 천만 창문들은  
 기쁨과 행복의 미소로  
 온 세상이 환하도록 웃는것이 아니냐

눈내리는 겨울 오고 여름 와도  
 새날이 밝고 별이 돌아도  
 언제나 해빛처럼 안고 사는  
 4 월이여, 4 월이여

해를 따라 빛나는 4 월이지만  
 광복거리 창문가에 비낀 해빛이여선가  
 순천땅 새 공장구내에 넘친 봄빛이여선가  
 올해 따라 더더욱 빛나는 4 월

오, 조선의 행복과 미래가  
 해빛처럼 눈부시게 피어난 4 월 .  
 아버지수령님의 탄생일을  
 태양의 명절로 인류가 대경축하는  
 빛나는 4 월이여, 4 월이여

## 은혜로운 해빛아래 빛나는 지하평양

리창록

4 월은 얼마나 좋은 계절인가. 어디를 보아도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꽃의  
계절, 환희의 계절...

아마도 사람들은 이 계절처럼 해빛의 은혜로움  
을 가슴뿌듯이 느끼지는 못하리라.

따사로운 4 월의 아침 우리는 로동당시대의 기  
념비적창조물인 평양지하철도를 찾았다.

온갖 꽃 만발한 모란봉기슭에서 풍겨오는 그윽  
한 꽃향기에 취해 지하철도 개선역으로 들어서니  
여기도 또한 아닌가. 계단승강기에 실려 아득한  
지하역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신기한《꽃송이  
들》...

해빛이 있어 그렇듯 신비로운 화원이 펼쳐지는  
듯 싶었다.

우리는 지하철도건설에 참가했던 한 일군의 안  
내를 받으며 승강기앞으로 다가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신 승강기 197  
3년 9월 5일》

승강기 앞부분에 새겨진 글발을 읽는 우리의  
가슴은 평양지하철도개통의 장엄한 메아리가 울  
려퍼진 그날의 영광으로 하여 마냥 후두위울랐  
다.

《기자동문 이 사경을 걸어서 올라와본적이 있  
습니까?》 우리를 태운 승강기가 지하역을 가까이  
했을 때 동행하는 일군이 물었다. 《물론 없을 겁  
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이 사경을  
오르셨지요.》

《수령님께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새어나왔  
다. 지상역이 까마득히 올려다보였다. 수백길, 아  
니 수천길은 뭉측하다. 그 언덕길을 걸어서 오르  
시다니...

《지하철도건설이 한창이던 1968년 9월 29일  
이였지요. 지하막장을 또다시 찾으신 수령님께  
서는 어느 한 지하역에 이르시여 갱입구로 올라가  
는 계단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몸소 가파로운  
계단을 한층두층 밟으시며 오르셨습니다. 여러  
시간을 건설자들과 함께 굴안에서 보내신 피로도  
잊으신채 말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할 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  
려보시며 사경을 오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  
하신 영상이 안겨왔다.

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으  
시는 어버이수령님!

우리는 지상과 지하를 철무지개로 이어놓은 계  
단승강기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땔수 없었다. 지  
하철도에는 승강기를 꼭 놓아주어야 한다고 간곡

히 말씀하시던 수령님의 음성이 들리는것만 같았  
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사랑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아로새겨질것이다.

이윽하여 우리는 벽이며 바닥이 천연대리석과  
화강석으로 장식된 련결복도로 나섰다.

《언젠가도 애기한바 있지만 지하철도는 현대공  
업의 발전상이라고 할수 있지요.》 이렇게 서두를  
뻔 그는 지하철도건설에 얼마나 많은 자재와 자  
금, 최신과학기술의 성과가 요구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자립적민족경제의 뒤받침이 있어 그 모  
든것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었다는데 대하여 궁지  
높이 이야기하였다.

건축력사에 지하철도라는 단어가 기록된 때로  
부터 100여년이 지나갔지만 지하철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얼마 없다. 한것은 지하철도건설이  
그처럼 어렵고 방대한 공사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 몇해사이에 세인들이 기적이라고 하  
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니 어찌 궁지가 높  
지 않으랴.

《지하철도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게 아마 19  
68년부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별  
찌 전후시기에 평양에 지하철도를 건설할데 대하  
여 가르쳐주시였지요》

아직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웠던 당시의 형  
편에서 막대한 자금과 자재가 드는 지하철도와  
같은 큰 공사에 대하여 생각한다는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니였다. 하지만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  
활조건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하철도를 건설할  
데 대한 대담한 구상을 펼치시고 건설에서 틀어  
쥐고나가야 할 원칙과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도의 교통문제를 풀며 인민들  
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서 지하철도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며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건설할데 대하여 일깨워주신  
그날의 가르치심, 참으로 그것은 지하철도건설  
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였다.

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의 천길지심을 흔들어깨  
우며 착공의 첫 발과소리가 울렸고 지하철도건설  
의 자랑스런 력사가 시작되였던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웅장한 건축물을 보고 경탄하기  
는 쉽지만 그것을 받들고있는 기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 아름답드리나무가 보이지 않는  
뿌리에 근원을 두고있음을 잊고있듯이.

그렇다. 오랜 세월 깊이 잠들어있던 천연암반  
을 헤치고 지하평양을 안아온 이 거대한 사변의

근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력도와 은정깊은 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이다. 한 걸음한걸음 암반과 석수, 황포탄 자연을 길들이며 힘겹게 전진해야 했던 그 나날들... 무엇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때도 있었고 무너져내리는 봉락앞에서 동요도 없지 않았다. 지형조건만 타산하면서 인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과 문화휴식터들을 설계에 예견하지 못한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서는 걸음마를 타는 어린 아기를 손잡아이드는 아버지심정으로 설계도면의 점 하나 선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잘못을 바로잡아주시기도 하시고 공사과정에 있을수있는 애로와 난관을 미리 포착하시고 경험적단계도 설정해주시며 곧바른 길로 이끌어주시었다. 수령님께서 몸소 지휘해주신 물막이전투의 그 나날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강력한 건설력량과 운수부대까지 조직해주시고 친히 새로운 시공방법과 새 기술자들도 알려주시며 깊은 밤 이른새벽 잠 못이루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던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련결복도를 돌아서자 휘넓은 지하역이 한눈에 안겨왔다. 우리는 부풀어오르는 가슴을 안고 팔장같이 드넓은 지하홀로 내려섰다. 유리알같이 알른거리는 대리석바닥, 아름다운 벽화와 장식조명등...새삼스레 지하평양에 대한 긍지가 가슴속에 굽이치였다.

문득 《평양지하철도는 말그대로 궁전》이라고 하던 한 외국손님의 말이 떠올랐다. 《지하궁전》, 과연 어디를 둘러보아도 손색이 없는 황홀한 지하역이다. 잠시 벗어섰던 전동차가 경쾌한 경적소리를 울리며 떠나자 지하역은 다시 환히 트이고 량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벽화가 드러났다. 화폭의 웅대함, 높은 예술적기교, 생동한 형상에 심취되어있는 우리에게 그 일군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지하철도를 단순한 교통수단으로써가 아니라 건축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인민들의 훌륭한 교양장소로 꾸릴데 대하여 밝히시면서 매 지하철도역들의 주제적내용과 장식방향을 일일이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감동깊이 이야기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벽화에 노동자, 농민을 많이 내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 순간 우리의 가슴은 크나큰 걱정으로 들먹이었다.

일반적으로 벽화는 기념비적의의를 가진다. 건축물과 함께 후세에 전해지는 까닭이다. 기원 4세기의 안악제 1 호무덤벽화와 강서세무덤의 고분벽화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보존되어 오고있다. 그러나 그것이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

여본적은 없었다.

그런데 력사에 길이 남을 평양지하철도벽화는 다름아닌 인민을 위해 마련된 인민자신의 자랑스러운 재보인것이다.

인류사의 그 어느 시대에도 평범한 인민대중이 이렇듯 높은 존엄과 영광을 지닌적은 없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서 것처럼 높이 불러주시는 인민이라는 숭엄한 의미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문득 까마득히 잊었던 옛추억의 쪽대문이 살며시 열린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그토록 신비스럽게만 생각되던 유년시절, 그때 본 하늘의 푸르름과 아롱다롱한 무지개의 칠색빛, 꽃이 피고 열매를 무르익히던 풍요한 전원이며 추운 겨울이 물러가면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조바심치던 계절의 엇바뀜... 그 모든것이 해빛의 조화였음을 알고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거니와 만능의 힘을 지닌 고마운 해빛도 한치의 망속조차 비치지못한다는것을 알았을 때의 실망감은 그만큼 컸었다.

예로부터 지하란 어둡고 침침한곳, 빛없는 암흑세계의 대명사였다.

허나 보라. 우리의 눈앞에는 얼마나 눈부신 지하의 세계가 펼쳐져있는가.

볼수록 경탄하지 않을수 없는 지하철도이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가없는 하늘인양 높이 들린 무한대의 상징인 궁룡식천정을 올려다보았다. 해빛이런듯 즐기치게 쏟아져내리는 무리등의 광채에 눈이 부시다. 과연 저것이 우리의 지하세계를 비치는 그렇듯 고마운 빛발일까, 천길땅속에도 꽃을 피우는 그 신비로운 해빛...

아니였다. 포근하고 정다운 빛발은 어딘가 우리의 몸가까이에서 빛나고있었다. 강렬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 빛을 좇아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옮겨갔다.

잊을수 없는 력사의 그날이, 개선광장이 그대로 옮겨졌는가. 높은 단상위에 서시여 환호하는 인민들에게 답례의 인사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우리의 눈굽은 뜨거워올랐다.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헌신적복무로 한생을 빛내여오시는 인민의 수령,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 삶의 영원한 태양!

정녕 한없이 위대하고 은혜로운 그 품속에서 오늘의 우리 조국이 태어났고 지하평양이 빛을 뿌리고있거늘

평양지하철도여! 그 사랑 그 은정을 후손만대에 전하라. 력사의 증견자되여...

## 《수령님을 모십시다!》

조창선

금산포 굽이굽이  
숫구치며 부서지며  
은구슬을 뿌리는 물결도  
못잊을 그날의 걱정애 설레이고

박토산을 떠실고 기쁨을 떠실고  
수평선 아득히 흘러가는  
벨트콘베아 수송선도  
잊지 못할 그날의 그 말썽  
우리의 가슴에 되새겨주는가  
《수령님을 모십시다.》

감격도 새로운 시운전의 그날  
바다를 밀며 멀리멀리 흘러가는  
수송선의 장쾌한 그 모습 바라보시며  
여기에 수령님을 모시자고  
모시여 기쁨을 드리자고  
금산포가 울리도록 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말썽

아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자리  
그토록 빈틈이 없을 때  
그이의 가슴에서 울린  
고귀한 그 말썽

새로 건설된 광복거리  
화려하게 일떠선 경기관들 보시여도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기쁨을 생각하시며  
그이께서 하신  
충성의 그 말썽

아 몇만권의 책으로도  
몇세기의 력사로도  
어이 대신할수 있으랴

인민을 위한  
조국을 위한 창조물들 일떠세우시면  
제일먼저 수령님께 드릴 기쁨부터 생각하시는  
그 위대한 충성

세월은 흘러흘러  
산천은 변하여도  
변함없을 그 말썽  
우리들 심장속 깊이깊이  
어떻게 수령님을 받들어야 하는가를  
금산포 출렁이는 물결은  
오늘도 새겨주며 전하여주네  
《수령님을 모십시다!》

## 언제나 그 한생각

진춘근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그리운 마음  
해맑으면 해맑아서  
간절한 소원

오시였으면...  
그날처럼 웃음도 환히  
꽃밭처럼 설레이는 기대사이로  
비닐제품 손수 만져보시며  
친애하는 그이 오시였으면...

그렇듯 세차게 찬비는 뿌렸건만

영예군인 우리가 보고싶으시여  
소문도 없이 우리 공장에 오셨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이 알랴 해빛밝은 이런 날엔  
해빛을 안으시고 다시 오실지

펼쳐올린 그 우산을  
오히려 내 머리우에 받쳐주시며  
이몸을 껴안으시고 걸으시던 그날  
우산에서 흘러흘러  
그이의 어깨에는 비물이 떨어지고  
나의 옷섶에는 눈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처럼 간절한것인가  
해빛밝은 날에도  
마음속에 떨어지는 그날의 비방울  
비가 오면 더더욱 못잊어  
그날의 감격 늘 안고사는 이 마음

쓰고사는 지붕도 그날의 우산같고  
이고사는 하늘도 그날의 우산같아라  
어버이수령님 다녀가신 그 길을 이어  
또다시 내 발걸음 부축해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병사시절의 그 피를 끓이며  
다그쳐가는 일손마다

염화비닐제품만이 꽃으로 피어나는가  
전화속에 입은 상처  
그 아픔도 다 잊고사는 우리 모습도  
친애하는 그이 우리러 계속 피는 꽃

비가 와  
내리는 비를 바라볼 때도  
해밝아  
해빛이 더없이 따뜻할 때에도  
이 가슴 가득히 언제나 떠오르는 그 한생각

하늘 가득, 땅 가득  
그이의 영상만을 그리며 사는  
우리의 나날은  
오는 날 가는 날이 모두 행복이여라

## 조국땅은 여기서 끝나도

김성철

저 하늘의 흰구름도 따라왔느냐  
조국의 서북변 ,  
청푸른 압록의 물결도 함께 가려느냐  
정겨운 기적을 남기며  
국경역을 떠나는 외국방문렬차

수령님 우리러  
뜨겁게 배웅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밝은 웃음이어  
조용히 흔드시는 숭엄한 손길이어

한걸음이라도 더 멀리  
수령님을 바라시려  
한순간이라도 더  
수령님을 보좌하시려  
수도에서 국경까지 오신 길

그이의 웃음은  
저 멀리 하늘가에 환히 비껴가누나  
현지지도의 길우에 수령님 오르실 때면  
활짝 열어드리시는 푸른 하늘  
쏟아져내리는 그 해빛과 같이

오래오래 저으시는 손길은

대륙 멀리 가시는 길 펼쳐드리시는것 같구나  
낮이면 백과 무르익는 향기속에  
밤이면 산촌역 그날의 고요속에  
수령님 모시고모시는 안녕의 그 길과 같이

그이 이제 또 걸으시며  
건설장에 농장벌에 한껏 피우실  
조국의 크나큰 기쁨을  
구름아 너도 담고 흐르리  
물결아 너도 노래하며 굽이치리  
전파야 너도 안고 날으리  
수령님께로 수령님께로

정녕 렬차는  
철길따라 가는것인가  
수령님 안녕을 바라시는  
그이 축원의 한마음에 받들려  
국경철교를 넘어서고있거니

아, 이 나라 강산은 여기서 끝나도  
그이의 마음속엔 조국의 하늘과 땅이  
렬차를 따라서며 끝없이 이어 저가누나  
국경 넘어 광활한 누리에로

## 위대한 인간에 대한 예술적형상화

리상복

오늘 전당과 온 사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짙어 들어차 있으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이 그 어느때보다 공고화되고 주체형의 피가 차넘치는 충성의 대오가 세기적변혁과 기적을 창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이 벽찬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문학앞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현실은 수령의 위대성을 사상과 이론, 령도에서뿐만아니라 인간적품모의 측면에서 생활적으로 더 깊이 보여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보여주는것은 수령형상작품의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인간의 형상을 깊이있게 창조하는것은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항구적으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는 정치적수령의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수령의 형상을 숭고한 인간애의 감정으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하는것과 관련된다. 다시말하여 수령의 고결한 인간품모를 깊이 파고들어 그 내면세계를 생동한 생활적화폭으로 설득력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려면 로동계급의 수령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품모를 옹게 그려야 하며 그것은 인간학의 본성적요구와도 관련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위대한 인간의 불멸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인간중의 가장 위대한 인간이시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령도자로서만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의 귀감으로 폭넓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인간의 형상을 깊이있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대한 인간을 인간관계와 생활에서 공식적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을 극복하고 인간세계를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취급하는 작품이라고 하여 격식화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혁명영화에서 인간을 잘 그려는것이 중요하며 그러자면 형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인간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격식화, 공식화의 경향은 위대한 인간을 인간관계와 생활에서

격식화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을 참다운 인간애가 흘러넘치게 생동하게 그리지 못하고 딱딱하게 도식적으로 만들어놓는데서 나타난다.

수령의 숭고한 품모와 덕성을 생활적으로 보여 주는데서 중요한것은 수령이 지닌 숭고한 인정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이다.

수령의 혁명적가정에 대한 형상에서도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말고 수령과 일가분들의 호상관계를 위대한 인간들만이 가질수 있는 숭고한 인정생활세계로 생활적으로 파고들어 감동깊이 그리는것이다.

위대한 혁명적가정의 일가분들은 모두가 혁명에 떨쳐나선 혁명투사로서 수령님과 일가분들의 관계는 진정한 혁명적동지간의 관계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공식적으로 격식화할것이 아니라 혁명투쟁과정에서는 동지적인 관계이면서도 생활적으로는 위대한 혁명가정의 생활기품을 참답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인간의 귀감이신 수령님의 인간세계를 진실하고 참답게 보여줄수 있다.

작가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간적품모를 옹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품모를 깊이 체득하고 형상적인 환상의 나래를 펼치는 대담한 자세가 필요하다.

수령형상작품에서는 언제나 위대한 인간을 진실하고 설득력있게 보여줄수 있는 감동적이고도 전형적인 인간세계를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장편소설 《1932년》은 소사하집장면을 통하여 혁명투쟁의 한길에서 어머님에 대한 효성을 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정세계를 보여주는것과 함께 혁명에 모든것을 바쳐나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강반석어머님의 인정세계의 면모를 잘 형상화하고있다.

지극한 사랑과 효성이 한데 엉켜 심리적으로, 생활적으로 가슴뜨거운 인정세계를 펼치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강반석어머님의 인간세계의 미가 있다.

이 장면이 력사적사실에 충실하여 감동적으로 묘사될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강반석어머님과 관계의 조금도 격식화하지 않고 깊이 파고들어 생활적으로 잘 형상한데 있다.

여기서 우리 작가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것은 정치적수령을 존엄성있게 형상한다고 하여 성격형상을 추상화하거나 격식화해서는 안되며 위대한 인간세계를 아무런 꾸밈도, 보탬도 없이 생활그대로, 있는 그대로 펼친다면 깊은 감동과 극

적견인력, 시적여운을 줄수 있다는 그것이다.

위대한 인간의 형상을 깊이있게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명동지들과의 관계에서 격식화를 없애고 수령이 지닌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기념비적대작으로 되도록 이끄시면서 영화에서 처음부터 수령님의 위대성을 기정사실화 해놓아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과 혁명동지들과의 관계는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참된 혁명동지의 관계로서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 혁명전사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굳게 이어져있다.

수령의 혁명활동과 생활자체가 인민들과 혁명동지들사이에서 생활적으로, 혈연적으로 련결되어 진행되는것만큼 문학작품에서도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야지 격식화해서는 결코 생동한 생활화폭을 창조해낼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만이 지니신 위대한 인간의 생활세계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뜨거운 인간애, 숭고한 혁명적의리, 깊은 인간 신뢰였다.

그러기에 수많은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역세계 일어나 한길로 달려나갔던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인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인민들과 혁명전사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에게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한없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푸시어 인간에 대한 사랑, 혁명동지들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높이에서 보여주시였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은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동지들사이의 호상관계를 공식적으로 격식화하지 않고 생활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고있으며 그를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인정세계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고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실로 영화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수령님을 동지로, 벗으로, 스승으로 우러러 따르면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추대하는 과정을 잘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전사 김혁에게 참된 사랑의 진정한 세계를 깨우쳐주시기 위하여 200 리밤길을 달려오신 새마을 오두막장면이라든가 김혁과 설은주사이에 맺힌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것처럼 애쓰시는것은 다 혁명적동지애와 뜨거운 인간적품모를 높은 경지에서 보여준 하나의 산 실례이다. 참으로 영화는 구체적인 생활과 사실을 통하여 혁명전사들의 모든 생활과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끝까지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수

령님의 위대한 인간세계를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잘 그럴데 대한 사상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뜨거운 참된 인간애와 혁명적동지애의 심원한 세계를 높은 차원에서 감동적으로 더 잘 그럴데 대한 독창적인 수령형상론이다.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감명깊게 형상할데 대한 수령형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총서 《불멸의 력사》와 혁명영화의 창작성과들에 의하여 빛나게 확증되고있다.

실로 가장 아름답고 영웅적인 위대한 생활이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지는 숭고한 인간세계를 통하여 위대한 인간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뜨거운 사랑넘치는 고결한 인간애와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로 수놓아져있음을 볼수 있다.

위대한 인간의 형상을 깊이있게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수령의 사상감정과 내면세계를 섬세하고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작가는 현실생활에 대한 인간들의 견해와 태도, 립장에서 나타나는 사상감정을 항상 옹바르고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생활체험과정의 내면심리를 구체적으로 계급적관점에서 진실하고 섬세하게 형상하고 설득력있게 밝혀내야 한다.

인간과 생활을 그리는데서 작가는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생겨나는 인간의 내면세계 섬세한 움직임을 깊이있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성격창조를 제대로 할수 없다.

인간의 사상감정과 내면세계를 섬세하고 생동하게 그려내는 문제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도 언제나 그대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인간의 위대성은 인간의 사상정신적품모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감정정서의 심오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위대한 인간일수록 감정정서가 풍부하며 내면세계가 깊으므로 감정정서와 내면세계를 풍만하게그리는것은 인간으로서의 수령의 고매한 품모와 인간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 문학에서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모든 인간관계가 단순한 인정세대적관계속에서가 아니라 혁명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속에서의 참된 관계로, 혁명적동지들과의 진실한 관계로 심오하게 그려졌다.

수령의 령도품모와의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그려진 위대한 인간품모의 빛나는 형상, 이것은 우리 문학이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이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된다.

소설의 처음에 펼쳐지는 흑심한 식량난과 심각



한 강철문제, 기술인재의 부족으로 인한 현실의 절박성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온다.

이러한 현실생활속에서 강병철, 안동권, 양춘만 등 지식인들의 체험세계에서 체득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지식인포섭전취에 대한 생활적화폭들은 심원한 폭과 깊이를 가지고 흐르고있다.

안동권, 강병철, 양춘만뿐만아니라 한병구, 최준걸 등 지식인들은 출신과 생활처지로부터 사회와 생활, 자기 전문분야에서 제 나름의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여서 그들을 본래의 생활궤도에서 벗어나 인생행로를 바꾸게 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그들의 고질적인 낡은 인생관을 허물어버릴수 있는 위대한 생활리념, 정치적인념이 있어야 하였다.

바로 장편소설은 위대한 사상과 인간애를 지니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 한없이 따뜻한 포용력으로 그들모두를 전취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도를 예술적으로 잘 그리고있다.

참으로 장편소설은 자기의 인생관대로 제갈길로 가던 사람들을 민주와 자주독립의 기치밑에 하나의 초점으로 집결시킨 위대한 집에 대한 문제를 극적인 관계속에서 감동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을 형상창조의 기초로 하여 크고작은 생활세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적품도의 심원한 세계를 예술적으로 확증하는데로 강하게 지향시키고있다.

장편소설의 경우 묘사수단, 형상수단에 아무런 제한없이 생활자료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사할수 있으므로 위대한 인간의 내면세계는 물론 그 모든 생활세계를 효과적으로 충분히 보여줄수 있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하고 풍부한 내면세계도 잘 묘사하고있다.

작품에서 펼쳐지는 지식인문제와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오기섭이 사이에 진행되는 심각한 대화, 철도기관구 노동자들과 가진 진지하고 설득력있는 담화 그리고 강병철, 안동권들을 설복하시는 장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견문과 예리한 통찰력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감동적인 생활세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깊고도 심오한 사색, 넓은 식견과 크나큰 도량, 예리한 통찰력과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설득력을 높은 차원에서 잘 보여주고있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수령의 인간적품도를 심오하게 훌륭히 그리려는것은 하나같은 열망이다.

위대한 인간에게는 만사람들의 본보기로 될만한 크나큰 생활이 있다.

작가들이 수령의 인간품도를 심오히 밝혀내자면 무엇보다도 수령에게 고유한 위대한 생활을 찾아야 하며 그것을 세부화하여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하는것이다. 그래야 수령의 위대성을 진실하고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천명할수 있다.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예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몇가지 창작적수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작가들의 충성심에 관한 문제이며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창작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오직 작가들의 높은 사상미학적안목만이 생경한 론리와 추상적인 정치적개념의 설명을 없애고 수령형상창조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를 제때에 빛나게 해결할수 있다.

작가들은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만 수령님의 위대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형상할수 있다는 명백한 진리를 다시금 깊이 느끼고 창작의 붓을 들고 글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그리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아직도 부분적인 결함이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정중하고 심오하게 그린다고 하면서 무거운 양상의 글을 쓰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있는바 그것은 도식과 류형이 낡은 결과이다.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생활적으로 그려야 할 작품에서 도식과 류형을 극복하는것은 더없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물론 우리 작가들은 수령형상창조에서 최대의 정중성을 가지고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심오하게 적극적으로 그려내야 한다.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정중한 자세에서 옹바르게 형상한다는것과 어둡고 무겁게 그려낸다는것과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다.

수령형상창조에서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정중하고 숭엄하게 그린다고 하면서 무거운데로 끌고가는것은 정중성의 본질을 외곡하는 낡은 미학관의 발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간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배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고결한 혁명적동지애, 한없이 너그러운 인민적성품을 지니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위대한 령도자의 빛나는 력사이며 위대한 인간의 숭고한 사랑의 력사이다.

우리 문학에서 수령의 인간적품도는 그것이 자기의 고유한 독자적특성을 가지고 그려졌으며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인간품도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예술적으로 그려

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확고한 혁명적원칙성, 지칠줄 모르는 투지와 혁명적정력을 지니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시는 위대한 혁명가의 위대한 귀감이시다.

류레없이 풍부하고 숭고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있고 그것을 원만히 형상할수 있게

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문학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문학발전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나아갈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인간의 생활을 더 잘 형상화하기 위하여 력사적사실이 담고있는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 훌륭히 그림으로써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 백두산밀영의 숲이여, 물이여

김윤철

백두산말기에 회오리치는  
북방의 드세찬 눈보라속에  
더 푸르러 싱싱한 천고의 숲  
좌-아 설레이고있어라

아름드리 장대목이 얼어터지는  
백두의 사나운 강추위속에서도  
더 세차게 솟음치며 얼지 않는 물  
쭈쭈-흐르고있어라

오, 신기하여 눈길 못떼는  
백두산밀영의 숲이여, 물이여  
그 억만 아지새로 금빛뿌리며  
물결우에 일렁이는 해빛도 눈부신데

숲은 끝없이 설레이며  
저 사령부의 귀틀집에서  
조국광복의 그날에로 부르시던  
확신과 열정에 넘친 음성  
밀영의 하늘가득 울려주누나

저 언덕의 구호나무아래에서  
한자, 두자, 애국의 뜻 새기는  
너전사의 모습도 눈에 선히 보이고  
산나물 헤우는 물소리도 들리는듯

아, 정녕 향도성 높이 솟은 그날에  
자장가 흐르는 참가에 내려앉아

민족의 눈빛으로 빛나던 별무리  
영원히 새겨진 그 숲이 아니라

혁명의 고향집 트락을 감돌아  
인류의 영광 만년의 행복 싣고  
대양으로 굽이쳐 흘러흐르며  
걱정에 넘치는 물줄기 아니라

그렇구나, 밀영의 숲이여, 물이여  
하늘가득, 땅가득 이 세상 끝까지  
반들어 빛내는 그 영광, 그 행복  
전하며 떨치는 그 환희, 그 열정  
있새마다 방울마다 뜨겁게 어려

아, 아 백두의 눈보라속에도  
푸르싱싱 그 모습 변색을 모르고  
굽이치는 그 흐름 변심을 모르나니  
숲의 저 설레임은 신념의 노래  
물의 저 흐름은 의지의 서사시

숲은 더욱 장엄히 설레이라  
물은 더욱 줄기차게 굽이쳐라  
조선의 참모습 여기에 력력하고  
민족의 숨결 여기에 뜨거워  
아지 하나, 잎새 하나, 물방울 하나  
무심히 볼수 없는 백두밀영 숲이다!  
온 마음 적서보는 백두밀영 물이다

## 백두산의 물맛

김광수

예로부터 물이 좋은곳에서는 명인들이 나오고 무병장수하며 물이 나쁜곳에서는 폐인이 나오고 단명을 면할수 없었다고 한다.

맑은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워오는 우리 조국은 그 어디 가나 다 산 좋고 물 좋다. 그중에서도 백두산의 물맛은 그 어느곳보다 제일 좋은 천하제일미라고 해야 할것이다.

나는 그것을 백두산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과정에 가슴깊이 느낄수 있었다.

우리 일행이 답사행군로정을 따라 걸음을 다그쳐가고있던 어느날이었다.

나는 심한 갈증을 느꼈다.

행군과정 땀을 흘린 관계도 있겠지만 아침식사를 후 물을 조심스럽게 마신데서 오는 갈증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물갈이를 몹시했다. 어머니를 따라 친척집에 나들이를 갈 때면 매번 물이 몸에 맞지 않아 배가 아프다고 칭얼대곤하였다. 그때면 어머니는 《원 애두... 너 어디 가든 물을 메구 다녀야겠구나.》 하며 아들이 물갈이를 몹시하는 체질을 놓고 걱정하곤하였다.

군사복무의 나날 역시 그랬다. 며칠씩 다른곳으로 군사훈련을 떠날라치면 중대정치지도원은 《물병을 몸에 건사했나?》 하고 다심하게 묻곤하였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나 더운물을 마시는것을 철칙으로 삼았고 찬물은 정 부득이한 경우에만 조금씩 마셔왔던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답사숙영소에 가닿을수 있고 그곳에는 더운물이 있으리라.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더욱 갈증을 느꼈다. 그때 우리는 삼지연군의 어느 립산마을앞을 지나고있었다. 그런데 마침 동구밖 박우물가에서 마을의 한 처녀가 산나물을 행구고있지 않는가.

나는 급히 그쪽으로 다가가 물을 청하여 걸탐스럽게 들이마셨다.

시원한 감각이 온몸에 짜르르하게 퍼져갔다.

허나 다음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찬물을 마셨으니 탈이라도 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감쳐들었기때문이었다.

그러자 처녀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에 무슨 티라도 ? ...》

《아 아니요. 물갈이가 심하다나니 탈이 나지 않겠는가 해서 ...》

《예, 그런걸 난... 이곳 백두산물은 누구에게나 다 맞는답니다.》

순간 처녀의 그 말은 내 가슴속 깊은곳을 쿵 울려주었다.

(백두산물은 누구에게나 다 맞는다!)

평범한 말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것인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수많은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그 기슭마다에 젖줄기마냥 생명의 즙을 주고있다. 장백의 줄기마다에 흘러내리는 맑은 물은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두었기에 영원히 마를줄 모르고 흐르는것이다.

거연히 솟은 백두산을 우러러보느라니 자연히 마음이 숭엄하게 젖어들었다.

1939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삼지연못가에 이르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삼지연의 맑은 물을 정히 떠서 장군님께 먼저 올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누구나 다 장군님을 우러르며 감격의 눈시울 적시였고 삼지연의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시며 기어코 조국광복을 이룩하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력사적인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다. 산천은 변하고 사람들도 달라졌다. 그러나 그날의 물맛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가슴속에 흘러들고있다.

백두산 기슭의 아담한 포태마을이 바라보이는 보서리의 샘물터, 그 샘물맛에 감취되어 아프리카에서 온 벗은 어떻게 말하였던가.

《샘물을 마시니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온다.

나는 이 샘물맛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 아프리카에 가겠다.》

격동된 심정이 어찌 이 한사람뿐이겠는가.

정일봉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백두산고향집을 감돌아흐르는 소백수의 맑은 물, 그 물가에 불요항일의 녀성영웅김정숙동지께서 몸소 사용하시던 박우물의 물맛을 본 재일동포들과 재미동포들, 세계 5대륙의 벗들은 한결같이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백두산고향집을 감돌아흐르는 소백수의 물은 정말 맑다. 이 물을 마시니 흐리였던 정신이 맑아지고 새힘이 솟는다.》

《백두산에서 흐르는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주체의 물이다. 이 물을 마시고 주체사상을

배워가겠다.》

《이렇게 물이 좋으니 위인들이 나오고 주체조선은 더욱 통성변영하는것이다.》

그렇다. 세계의 수많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마음껏 마시며 새힘을 가다듬는 백두산의 맑은 물.

그 물은 누구에게나 다 맞듯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 역시 싸우는 나

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체질에 다같이 맞는 인류사상사의 영원한 생명수라고 말할수 있지 않는가...

나는 오늘도 백두산의 물을 그 어디서나 마음속깊이 마셔본다. 그러면 힘이 솟는다. 크나큰 힘이 온몸에 짝 퍼져감을 다시금 느낀다.

## 밀영의 밤에

방만필

한자 쓰고는

뜨거움을 삼키고

또 한자 쓰고는

눈굽을 훔치며

나어린 투사 흰눈우에

또박또박 글을 쓰네

내 고향

내 조국

눈송이도 삼가 글발우에 내려앉고

우등불도 소리없이 타고있는 밤

못잊어 못잊어 꿈같은 나날들이

글발과 함께 마음속에 비껴오는 밤

조국을 빼앗겨 고향도 빼앗겨

제이름 석자마저 잃었던 그에게

고향은 어디에

조국은 어디에 있었던가

천리로 아득했더라

배움의 꿈이 나래치던 희망의 그 길은

풀머슴살이 서럽던 그에게

그에겐

아, 총을 멘 그 봄날이 아니었던가

옹이 박힌 손에 연필을 쥐여주시고

우리 글을 익혀주시며 밝게 웃으시던

장군님의 그 품에 안긴 그 봄날이

그날부터였어라

이름을 찾고 희망을 찾고

자유와 존엄을 찾았기에

인생의 모든것 새로이 시작된것이

그래서 한자를 쓰면 그 영상이 어려오고

또 한자를 쓰면 그 미소가 어려와

고향과 함께 조국과 함께

가슴가득 차넘치는 장군님 모습

눈내리는 밀영의 밤

한자 또 한자

쓰고 또 쓰는 투사의 마음은

그이의 품으로만 달리네

내 고향

내 조국

흰눈우에 깨긋한 흰눈우에

글발은 뜨겁게 새겨지고

오, 글발을 써가는 투사의 눈앞엔

그 품에만 있는 내 고향 내 조국

그리운 부모형제들의 모습이

가까이 가까이 마중해오고있었네

# 대동강 기슭에서

리응래

대동강! 어머니강아!  
나는 자주 네 기슭에 서서  
생각에 잠기곤하노라

여기는 나의 한시절이 흘러간  
추억많은 그 기슭 분명하건만  
아 경이로워라  
그 시절의 모습 찾을길 바이 없구나

마치도 신비로운 고장에나 온듯  
황홀경에 취하여  
안겨오는 일만경치 바라보나니

아득히 펼쳐진 강아닌 호수  
거슬러오르며 구름넘어  
호수위에 층층 또 호수  
갭문위에 갭문 또 갭문  
장쾌하구나 대운하여!

노을비낀 기슭엔  
불구름 타래쳐오르는 대야금지구  
저 하늘가에 높이 솟은 수도의 위용  
아, 장엄한 기상이어

종구나  
실버들 늘어진 강가에  
낙시대 척 드리우고 앉아  
차려진 행운을 마음껏 맛보며  
젊음을 되찾은 로인들의 미소가

귀기울이면 들려오는듯  
양수장마다 은은한 전동기동음  
활짝 열려진 수문들에 물드는 소리  
혈맥처럼 뻗어간 관개수로로  
생명수 흘러내리는 소리

물결을 타고 흘러온다  
평남, 황해 가없는 들에

강냉이파도 설레이는 소리  
간석지논에 벼이삭패는 소리  
풍년농악소리

아 대동강  
락원의 강 행복의 강이어  
우리 시대에 복받은 어머니강이어  
나는 지금 났을 잃고 서서  
더욱 아름다워질 래일을 그려본다

얼마나 좋으나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구상따라  
이 나라의 하많은 강들을 토막내어  
곳곳에 언제나 솟고 갭문이 솟아  
호수로 수놓은 내 나라  
운하로 이름난 내 나라

산수경개 천하절승인데  
가물과 홍수를 모르는 전야엔  
세세년년 만풍의 풍요한 가을  
언제마다엔 폭포수의 대교향악  
고압선그물로 덮인 공업의 나라  
아, 세상에 부럼없는 내 조국

이것이, 이것이  
노을이 불타는 저 지평선에 바라보는 현실이어서  
내 때없이 이 강가에 서서  
흰서리 내린 머리를 쓸어올리며  
끝없이 누리고싶은 삶의 박동을 안아본다

대동강, 어머니강이어  
번영하는 조국이어  
내 언제나 이 기슭에서  
젊어지는 네 모습 보고싶구나  
너와 함께 오래오래  
공산주의 락원 꽃피는 조국의 모습속에서  
나도 이 땅에 공민된 긍지를 안고  
천만년 너를 받들고싶구나

# 위대한 수령을 모신 조선인민은 행복하다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외국인들의 인상기-

메히꼬대표단 단장은 축전개막식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의 커다란 꽃송이를 방불케 하는 5월 1일 경기장에 펼쳐진 환호의 춤물결, 수천수만의 꽃송이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친선, 단결의 무대, 이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친선, 단결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 청년학생들의 념원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세계청년학생운동발전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대축제였다.

**김일성** 주석의 두리에 뭉친 조선인민이 아니고서는 것처럼 황홀하고 훌륭한 대축전장을 펼치지 못하였을것이다. 우리는 오늘 위대한 인민의 힘을 보았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인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학회 서기장 에드몽 쥬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개막행사는 말그대로 하나의 세계적인 대절작이다.

확실히 조선인민은 단결력과 조직력이 강한 인민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을 령도하시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개막식에서 세계청년학생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의의있는 고무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이것으로 하여 개막식은 더 의의있는 순간으로 되였다.

네데를란드령 안틸레도민족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 준비한 개막식은 대단히 성대하고 조직적이다.

축전개막식행사는 너무도 훌륭하여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다.

저의 일생에 이런 뜻깊고 성대한 행사는 다시 볼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이번 개막행사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령도밑에 창창한 미래를 개척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생동히 보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을 굳게 뭉치게 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세계인민들이 원하는 모든것을 훌륭히 해결하실수 있는 거대한 힘을 지니신분이다.

특히 **김일성** 주석께서는 축하연설에서 훌륭한 사상을 밝히시어 세계청년학생들에게 힘을 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행복하다.

열세번에 걸쳐 진행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빠짐없이 참가한 쏘련작가이며 텔레비존 론평가인

와쉴리 자하르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축전에서 본 모든 행사들은 다른 축전에서 보지 못한것이였다. 특히 해불시위도 다른 나라에서의 축전때와 달리 특색있게 진행된 개막행사와 함께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해불시위는 축전의 상징, 조선인민의 통일단결의 상징이였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되는 평양축전은 완전히 성공하였다. 축전은 무조건 성공적이다. 그것은 새롭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데 있으며 조직성에서 성공하였다.

축전준비를 위하여 건설한 하나의 도시를 련상시키는 수많은 체육시설들과 축전대상물들의 다양한 구조와 대도로, 여기에는 조선인민의 지혜와 노력이 깃들어있다.

조선인민의 얼굴에 비친 미소는 나의 마음에 들었다. 조선인민의 이러한 웃음은 오직 행복한 인민들의 얼굴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나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는 기회를 가지였다. 국제친선전람관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훌륭한곳이다.

나는 **김일성** 주석께서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내놓으신 련방제형식의 통일방안을 지지한다. 이 방안은 하나의 조선을 위해 접수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재미교포너류화가인 홍정자는 자기의 격동된 소감을 피력하였다.

조국 북반부땅속에 금은보화가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그것은 물론 나라의 번영을 위해 귀중한 재부로 된다고 본다. 그런데 조국 북반부에 그보다 더 귀중한 재부가 있음을 나는 발견하였다. 그것은 소박성과 겸손성, 근면성과 애국적열의 그리고 거기애다 진실한 동지애가 가미된 사람들의 참된 인간성이다.

그는 계속하여 자기가 받은 다른 감동의 하나는 민중의 철석같은 통일단결이라고 하면서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개막식과 폐막식의 장면 장면에서 그것이 그대로 중시되였다고 말하였다.

어떻게 되어 수만의 군중이 그 넓은 경기장에서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순간순간에 천지조화를 일으킬수 있는가, 그것은 강한 단결이 없이는 도저히 할수 없는것이다.

그 단결력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앞서 여러 예술인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도 느낀바이지만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혁은 민중이 수령님과 혈연적관계를 이루고있는 데서 비롯된것이다.

수령님과 지도자선생님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

적인 신뢰, 주민들에 대한 수령님과 지도자선생님의 크나큰 믿음, 이것이 참된 인간성을 낳고 철석같은 단결력을 낳고있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나는 이것을 통해 북에서 민족의 참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조국의 참모습을 교포들속에 널리 소개하기 위해 힘쓰겠노라고 말하였다.

《세계민주청년가》의 작사자인 소련의 이름있는 시인 레브 오샤닌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비상한 조직적 수완을 가진 인민이다.

조선사람들은 행사를 하나 조직해도 대담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조직하는것이 특징인데 이번 개막행사와 화불행진은 그 뚜렷한례로 된다.

개막행사가 이처럼 값나게 준비되기는 축전사

상 처음일것이다.

축전에 참가하여 《까레얀까》(조선처녀)라는 시도 썼는데 이것은 남조선의 《전대협》대표 림수경에게 드리는것이다.

그는 이번 축전의 꽃이었다.

15 여만 군중이 눈물을 머금고 그를 환호하였다.

그 순간 나는 조선인민의 통일열망이 얼마나 크고 절절한것인가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이 체험을 안고 용감하고 매혹적인 남조선의 처녀대학생에 대한 시를 썼다.

그가 평양축전에 참가한것은 꿈같은 현실이다.

그러나 이 꿈이 깨어나면 조국은 통일될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인민이 앞으로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 이런 사람들과는

김남걸

내 어디서나 만나면  
한마디 말에  
피와 숨결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심장도 꺼내놓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마을  
레사롭고 사사로운 그 모든것도  
툭 털어놓고 이야기하고싶다.

그러면 마음속 아픔도  
안개처럼 가셔지고  
그러면 작은 기쁨도  
천배로 더 늘어나고...

젊어서 고생  
락으로 여기며  
땀에 젖은 배낭 등에 지고  
험한 산밭 넘으며 의지를 키운 사람들  
  
물색고운 옷보다 먼저

돌격대 제복입고  
날바다를 막아보고  
철길을 놓아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쉽게 통하더라

왜냐하면  
조국이 바라는것  
진정으로 자신의 피부로 느끼며  
땀을, 피를, 청춘을, 사랑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왜냐하면  
자신의 안락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앞에선 어쩐지  
우정도 진정도 아낌없이 기울여줄  
내 마음의 문은 좁아지고...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앞에선  
어쩐지 내 마음의 문은 넓어져  
이런 사람들과는 한생을 같이하고싶어라  
형제처럼 친지처럼 정을 쏟으며

## 추억

송명근

### 위대한 추억속에

나의 아버지  
두메골안 작은 광산의 광부

45년도 첫 당원 평범한 착암공으로  
54년도 제대병사 갱장이었던 나의 아버지

내 어릴적 어느날 아침  
그 아침의 목소리가 내 가슴 울리누나

-쇠돌산을 높이 쌓고  
그우에 너를 앉히면 평양이 보일게다

아, 웃으며 웃으며 눈곱이 젖어  
평양하늘 바라보던 그 눈빛 다시 안겨오누나  
속깊이 품었던 그 소원 다 이루지 못했어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로동계급을 잇을수 없다고

아 우리 수령님  
못잊으시며 아버지세대를 내세워주시니

위대한 추억속에  
광산골안의 이름없던 광부도 있었구나

이미 앞자리를 내어준줄 알았더니  
위대한 믿음속에 대고조의 앞장에 다시 선  
세대여

그 무엇으로, 위대한 추억이 남았는가?  
90년대 진군길에서 다시 생각하노라

### 그날의 시계종소리

우리 집엔 탁상시계가 있다.  
바늘을 맞추면 자명종이 울리는  
이제는 야광도 다 바랜 시계  
언젠가 분기총화 상품이라고  
아버지가 들고온 시계

생각난다 이 시계를 볼 때면  
내 아직 어린 시절, 56년이...  
밤을 꿰워 쇠돌을 캐느라  
아버지의 눈은 늘 충혈되어있었다.  
잠은 모자랐어도  
잠시나마 누울때면 머리말에  
탁상시계를 놓는것이 습관이였다.

따르릉... 따르릉...  
태엽이 다 풀리도록 종을 울려도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는 멈출수 없었다.  
그러면 조심조심  
내가 아버지를 흔들었었다.  
그러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갱으로 가던 아버지였다.  
탁상시계를 귀에 대보고...

잘 생각나지 않는다 지금도  
로당원, 아버지들이  
발퍼고 통잠을 자던 날이 얼마였던지...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간  
천리마의 그 정신 떨친것 아니던가

나의 아버지가 아끼던 유물  
낡은 탁상시계여  
실사 곤한 잠 깨우기엔  
네 종소리가 작았어도  
잠들 때마다 긴장속에 마음을 맞추던  
56년, 그날의 정신  
그날의 종소리로  
안일한 꿈에 들면 깨워다오!  
나를 깨우쳐다오!



## 우리 집은 행복했다

아버지의 《전투》 주간이면  
한밤중에도 아닌 새벽에도  
어머니는 때없이 밥을 지었다.  
나는 그저 좋아서  
김치바게뜨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나섰다.

요동치는 착암기 정대끝에도  
내달는 광차의 바퀴에서도  
불꽃이 튀기는 갯막장  
늘 이러면 정말 딱하다고  
광부아저씨들 어줍게 반겨줄 때  
아버지는 막장이 떠나갈듯  
《이래서 마누라가 제일사랑이》  
그러면 갯도가 들썩 웃음판이 터졌다.

흐늘어진 웃음소리에  
쇠돌꼭포가 허물어져내린다고  
한어깨에 간데라를 걸고  
등에는 나를 업은 아버지  
어머니와 나란히 침목을 밟으며 하던 말-  
나는 그 의미를 알수 없었다.

살림이 좀 어려웠어도  
어머니는 불편을 몰랐다.

대밭과 경사에 기쁘기만 하다고  
애지중지 키워온 돼지를 끌어내면서도  
성수나하던 아버지  
《이래서 마누라가 제일사랑이》  
그 한마디면 다 보상이 되는듯...

나의 아버지  
집안살림엔 밤중이었다.  
천리마로 달리며 뚫던 그 시절  
제집 가산을 늘일 생각  
제잘살 궁냥으로 뛰여다닌 아버지들이 있었던가!

수령님 바라시는만큼  
나라가 기다리는만큼  
쇠돌만 캐내면 그만이었던  
아버지의 마음속 보화가 재산이었다.

쌀자루는 달을 채우지 못해도  
단칸방엔  
도배한 께짝 하나 놓여있었어도  
맑은 웃음이 있었고  
가름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아버지 옮겨달던 천리마휘장도 있었으니  
우리 집은 정녕 행복했다.

## 아버지 훈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  
당위원회에서, 갯에서, 기능공학교에서...

낚시질도 몰랐고  
즐기던 장기도 자주 두지 못했고  
자나깨나 생각은 쇠돌 하나뿐  
갯에 들어서면 늘 밥시간도 잊던 아버지  
계획을 넘기지 못하고는 잠도 잊던 아버지

그때엔 떠들썩한 방송야회도  
성대한 수훈식도 그리 많지 않았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담벽의 포스타도 소리쳐물던 그 시절엔

나라의 어려운 일에  
묵묵히 어깨를 들이댔도  
위훈이라 하기엔 너무도 평범했던가

많지 않은  
아버지의 훈장을 놓고  
변명이 아니라 끝이끝대로  
나는 자신을 위안했노라  
온 광산의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오는 사람마다 못잊어하는 사연이 많아서...  
우리 갯장아바인 쇠돌밖에 몰랐다고  
누구나 외우는 그 말  
급수높은 표창처럼 간직하며

메달과 훈장이  
삶의 흔적의 전부는 아니었구나  
56년, 가장 어려운 때  
증산으로, 대고조로  
우리 당을 웅위한 세대  
그날의 정신은  
오늘도 시대앞에 기발처럼 나뭇기나니

자부하노라!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가식과 담을 쌓은 성실성은  
시대를 넘어  
후세의 마음속에 길이 사는것이라고!

## 아버지가 걷던 그 길을 걸으며

나는 가네  
돌에 맺힌 물방울 하나  
똑-하고 안전모에 떨어지는 소리마저  
추억을 불러내는 길  
아버지가 걷던 길

어린 시절... 까만 발뒤축이  
허연 돌가루범벅이 되도록  
아버지 밭파들고 가고오던 길  
간데라 없어도 환한 길  
걸어가네  
오늘은 내가 이 갱의 주인이 되어...

나도 아버지처럼  
간소한 제대배낭 여기 내릴 땐  
그리도 감회깊던 그 모든 추억  
인제는 갈수록 희미해  
어느 편도의 낡은 폐갱처럼  
세월의 버럭더미에 묻혀지는가

오- 추억이여 추억이여  
너는 갱입구에 서있는 동발처럼  
들어갈수록 뒤에 멀어지는것인가  
앞뒤는 다 잊고 한대목만 남은  
어린 시절의 옛말과도 같은것인가

무서워라  
번듯해진 갱도  
좋아진 오늘의 생활속에  
시련의 날 간고분투하며  
수령님을 받든  
천리마대고조의 그 열정  
내 생활의 기준점을 잇는다면...

아니다, 오, 아니다!  
세월도 지울수 없는것  
세월과 함께 더 뚜렷해지는  
화폭도 있어

쇠돌과 함께 웃고  
쇠돌을 위해 고민하고  
쇠돌을 위해 석수도 맞받아 내대던 가슴들

정녕, 값진 추억은  
선광장의 쇠돌처럼  
버력이 다 떠내려간후에 남는것  
온갖 잡사는 다 흘려보내고  
시간만이 남기여 빛내는 보석

자신에게 묻노라, 물으며 가노라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던 아버지들  
찍어놓은 자욱우로 간다고  
내 자욱도  
시대의 보폭으로 남을것인가  
위대한 창조의 90년대와 함께  
못잊어, 나의 자식들도  
광부로서 나를 추억할수 있을것인가

가노라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  
쇠돌을 보태며  
로동계급의 량심을 엮으며  
성실히  
또 부지런히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자식들의 수치로 되지 않도록  
세월에 씻겨가는 막돌이 아니되도록

## 열쇠

류도희

은평관개부속품공장 지배인 박성규는 올해에 나이 선여덟이다. 이태만 더 있으면 년로보장을 받을 나이다. 그러니 예전세월 같으면 한생을 다 산 늙은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하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한생을 바쳐온 사람에게 사회적혜택으로 편안히 쉬면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배려하는것은 우리 사회에서야 응당한 도리이니 그도 그것을 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는것이다.

그런데 웬걸... 그는 나이먹은 티라고는 조금도 내지 않고 아직 40 대 젊은이들도 무색할만큼 원기왕성하게, 그리고 욕심스럽게 일하는 품이 년로보장을 고사하고 앞으로 몇십년을 더 일할 잡도리갈다.

나이는 속일수 없어 그의 이마며 눈귀에도 잔 주름이 덮이고 머리에는 흰서리가 질게 내려앉았으나 쩍 벌어진 넓은 어깨며 두툼한 가슴이며 우뚝하고 불그레한 얼굴에는 아직도 팔팔했던 젊은 시절의 여운이 청춘의 후렴처럼 간직되어있다.

백발홍안이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인 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그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의 나이를 잘못 보기가 일쑤다. 지어 지난해 언젠가는 공장에 취재를 나왔던 한 잡지사의 젊은 기자가 그의 나이를 마흔댓쯤으로 착각하여 한바탕 유쾌한 웃음을 터뜨린 일까지 있었다.

그가 지배인으로 일하고있는 공장은 군이나 도에는 물론,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있다. 한것은 결코 공장이 커서가 아니다. 크기로 말하면 기껏해서 4 류급에나 속하겠는지... 종업원이 500 명도 되나마나한 공장이다.

그렇다면 다른데서 만들지 못하는 류다른 제품이라도 만들기때문인가? 그런것도 아니다. 이 공장의 기본생산지표란 타빈양수기와 용접관이며 기타 물뿔개나 각종 토시 등 양수설비부속들과 정미부속들, 그리고 양수관류들이니 그런것들이라면 우리 나라 어디서나 만들고있지 않는가. 그러니 제품의 특수성때문이라고 볼수도 없겠다.

하다면 소문난 까닭은 무엇이란말인가. 아마도 그것은 중앙과 도의 신문, 방송들에 자주 소개되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늘어남에 따라 인민경제계획으로 공장앞에 시달되는 생산과제도 해마다 높아지기 마련이었으나 이 공장에서는 어느 한해도 그것을 미달해본 일이 없이 꼭꼭 넘쳐수행하였다.

그러다보니 중앙과 도의 신문, 방송, 텔레비존 등 출판보도기관들에서 기자들이 뻔질나게 찾아와서는 이들의 빛나는 성과를 취재하여 특별로 자랑하곤하였다. 그러니 공장의 명성이 높아진데

는 두말없이 일을 잘한 공장과 함께 취재기자들의 수고 또한 적지 않게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박성규지배인은 이 공장과 처음부터 운명을 같이해온 사람중의 하나다. 그가 제대배낭을 벗어놓고 공장의 기초를 파기 시작한 때로부터 꼭 36년이 된다. 그 긴 세월을 그는 이 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부터 직장장을 거쳐 지배인으로, 이날이 때까지 일해오고있다.

36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10년이 세번도 넘어 고래쳤으니 그사이 얼마나 많은것이 변했겠는가.

산천이나 논밭, 읍거리의 변모에 대해서는 그만두고 공장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처음에 제초기와 달구지, 액비탱크, 호미와 낫 등 쇠쇠한 농기구를 두드려 만드는것으로부터 걸음마를 떼었던 공장이 오늘은 양정고가 100 메터를 넘는 성능높은 양수기를 팡팡 만들어 내고있으며 1,000 미리까지에 이르는 각종 규격의 양수관들을 기계로 척척 말아내고있으니 그 규모나 기술장비로나 생산능력으로 나를 어찌 피대선반 두대를 가지고 닳을 올렸던 36년전과 대비를 할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또 어땠는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함께 공장을 일떠세우던 그 시절의 동무들은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고 없어져 이제는 그때를 추억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만한 사람도 몇사람 남지 않았고 그나마 모두 다음 세대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뒤전으로 물러나 《아바이》대접을 받고있다. 그 사이 웅근 한세대가 자라났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박성규의 경우만 놓고봐도 그렇다. 그가 의용군에 입대하여, 고향을 떠난후 전쟁을 치르던 군대생활기간은 썬에 넣지 않는다치고 은평에 와서 공장의 첫 말뚝을 박던것이 그가 스물세살의 새파란 총각이었다.

그랬던 그가 오늘은 성성한 백설을 머리에 이고 종업원 수백명을 헤아리는 공장의 지배인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 자란 세 남매를 거느린 한가정의 가장으로 되었으니 36 년이란 세월이 과연 얼마나 길며, 얼마나 많은것을 달라지게 하였는가.

사람들은 흔히 박성규를 두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들 한다. 하긴 그런 말을 들을만도 한것이 지난 수십년동안을 줄창 공장에 나와서 일에 파묻혀살다싶이 하기때문이다.

그의 집으로부터 공장까지는 뒤마장 실히 되는데 그 어간에서 살고있는 읍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각에 같은 자세로 공장으로 가는 박성규를 보기마련이다. 만

일 그 시간에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회의나 강습으로 그가 은평을 떠나고 없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를 두고 한때 피백하다는 말도 있었는데 까닭인즉 그가 이상스럽다리만치 문소리에 신경을 쓰기때문이었다.

공장의 건물들은 지은지 오래 돼서 쇠붙이들에 녹이 쏘여 문을 여닫을 때마다 돌쩌구에서 쇠갈리는 소리가 나군했는데 지배인은 웬일인지 그 소리에 남달리 신경을 썼다. 남들은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범상히 흘러보내는 문소리에조차 그는 별스럽게도 귀를 밝히고 여간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디서 삐걱소리가 나기만 하면 영낙없이 경리부가 추궁을 받군했다. 경리부로서는 골치를 앓지 않을수 없다. 아무리 크지 않은 공장이라 하더라도 수백개를 헤아리는 그 많은 문들을 돌아가며 살핀다는것이 어디 간단한가. 참으로 조련치 않은 일이라 하겠다.

《제기랄! ...돌쩌구에서 삐걱소리가 난다고 생산이 안되나? 별로 까다롭게시리...》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소리였는데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들에서 삐걱소리가 사라져감에 따라 그 푸념도 어느사이엔지 잦아들고말았다.

어쨌든 박성규지배인은 주위에서 자기를 뭐라고 하든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공장일에만 온 넋을 쏟아붓고있다.

밤낮 일에 파묻혀 사는 박성규의 심정을 그의 안해는 잘 알고있다. 그는 남편이 결코 남들이 말하는것처럼 그렇게 메마른 목석이 아니며 오히려 결보기와는 달리 무척 다감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이들어 갈수록 점점 더 굳어져가기만 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나무람게 생각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남편**에 대해 잘 알고있어야 하고 또 알고있다고 생각해보는 자기자신조차도 남편의 남다른 심정을 너무도 적게밖에 이해하지 못하고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안해가 이렇진대 남이야 탓해 뭇하랴싶어서였다.

박성규는 웬일인지 췌 나이들어 늦게야 결혼했다. 그들이 결혼한것은 박성규가 직장장으로 사업하기 시작한 1963 년 이였으니 나이 서른한살 때였다. 그때까지 독신으로 지내다보니 주위에서는 《왜 장가를 안가느냐?》, 《고향에 두고온 안해를 기다리는게 아니냐?》 하고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해가며 성화를 먹였다. 사실 총각으로 집을 떠난 성규는 분계선녀머에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게 될 날을 하루와 같이 기다려왔던것이다. 어머니앞에서 성례를 치르고 어머니로 하여금 새 며느리의 큰절을 받으시도록 하는것이 아들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왔기때문이다. 그의 결혼이 늦어지게 된것은 순전히 이때문이었었던것이다.

결혼후 안해는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남편의 아픈 심정을 이해하려고 무척 애썼으며 그

의 외로운 마음을 메꾸어 보려고 남모르는 노력도 많이 해왔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면서보니 고향을 그리며 고향으로 향하는 남편의 마음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따를수도 없을뿐아니라 헤아릴수도, 가늠할수도 없는 그런 폭과 깊이와 농도를 가진것이라는것을 그는 갈수록 절감하게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으면 차츰 남편의 마음의 아픔도 가라앉겠지 하고 속으로 자신을 위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된 셈인지 나이들어갈수록 남편의 마음은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해가는것만 같았다.

몇해전에 있는 일이다. 하루는 집에 돌아온 남편의 기색이 어쩐지 좋지 않아보이기에 그 까닭을 물었더니 주물직장장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왔다는 대답이였다. 장례에 갔다온 사람의 기분이 가벼울수야 없지 하고 안해가 범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규가 《당신은 젊어서 나한테와서... 시어머니의 사랑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이젠 로친이 됐구려!》하고 느닷없이 말하고는 쓸쓸하게 웃는것이였다.

《아니, 그런 또 무슨 소리요?!》

자기 생활에서 시어머니란 있어본 일이 없었으며 따라서 시어머니란 말조차 입에 올려본 일이 없었던 안해는 갑자기 목이 콕 메여올랐다.

《여보! 이젠 어머니가 살아계시기를 바라기가 힘들겠지?》

갈린 소리로 뇌이며 바라보는 성규의 오뇌에 찬 눈빛앞에서 안해는 온몸이 얼어붙는듯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였구나!)

그저 장례를 치르고 왔기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방금전의 자기 생각이 끝없이 민망스러웠다. 갑자기 미안하고 죄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왈칵 솟아나왔다. 남쪽에 고향을 둔 남편과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도 아직까지 남편의 아픈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자책이 아프게 가슴을 죄이고 들었다.

《여보! 안됐어요. 용서하세요!》

안해는 다른 말을 할수가 없었다. 그저 앉은자리에서 눈물만 흘렸다. 성규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있기만 하더니 이윽고 혼자 소리처럼 나직하게 말했다.

《올해 여든 일곱에 나시는데... 살아계시거나 하시는지...》

그리고는 별로 피우지 않던 담배를 피워물고 깊은 한숨과 함께 연기를 길게 내뿜는것이였다.

그러기를 몇번 거듭하더니 한참만에 《여보!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해야겠소. 더 많이!》

하고 힘주어 말하는것이였다.

안해는 그 말속에 담긴 남편의 심정을 새삼스럽게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늘 쓰는 《일》이라는 말의 뜻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깊이 되새겨보게

된 것이었다. 장창 일에 파묻혀 사는 남편의 심정이 이날따라 어느정도 짐작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제판에 아무리 남편의 깊은 마음속을 이해하려 하고 또 그를 위한다지만 역시 남편의 생각을 대신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보았다.

이듬해 봄, 청명을 하루 앞둔 청명날이었다.

마을의 집집마다 예서는 산에 갈 차비들을 하느라고 지지고 볶고 기름냄새를 피우며 흥성거렸다.

하나 성규의 안해는 올해부터 산에 가는 것을 그만 두기로 마음먹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남편에게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데도 같아서였다. 친정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세상을 떠난지도 이제 10년, 6년이 지났는데 눈치도 없이 해마다 빼놓지 않고 산에 갔다온 지난날이 그해따라 새삼스레 죄스럽게 돌이켜졌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밤 공장에서 돌아온 성규는 무엇인가 이상한 기미를 차렸던지 《여보! 산에 갈 준비가 어떻게 됐소, 래일이 한식인데...》

하고 집안을 두리번거리는 것이었다. 안해는 속이 뜨끔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오빠네나 가라 하고 난 그만두자고 해요!》

하고 태연히 말했다. 성규는 금시 낯색이 달라졌다.

《무슨 쓸데 없는 소릴 하는 거요!》

안해는 당황했다. 제판에는 깊이 생각하고 한 일인데 도리어 성을 내니 왈각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왜 역정을 내슈! 남의 속도 모르고...》

안해는 속이 토라져서 돌아앉고 말았다. 미묘한 침묵 끝에 성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그런다는 걸 내 모르지 않소! 허지만 내가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요!》

안해는 웃고름으로 눈물을 닦으며 어깨를 떨기만 하였다. 한결 부드러워진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여보!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조상의 뼈가 묻힌 선산을 찾아 그들의 명복을 빌며 세상 떠난 분들을 추억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선사람들의 좋은 풍습의 하나요. 청명이나 한가위날 돌아가신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묘를 찾아가 옛일을 추억하며 그분들의 이루지 못한 념원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맹세를 다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요?! ... 지금 미국놈들 때문에 분계선이 막혀 선산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만 해도 조상들 앞에 죄스럽고 가슴이 터질 노릇인데 하루면 갔다 올 수 있는데야 왜 가지 않겠소, 더우기 아이들에게 지난날을 잊지 않게 하고 남조선을 잊지 않도록 교양을 주는데도 좋은 기회가 아니요?! 공연히 딴 생각 말로 이제부터 간단히 차비해서 래일 아이들과 함께 산에 가도록 하오!》

나직하나 그 어떤 울분이 배여있는 듯한 그 소

리를 들으며 안해는 가슴이 옥죄여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날밤, 안해는 자정이 넘도록 음식을 마련하면서 등을 돌려대고 앉아 말없이 망질을 하는 남편의 거울진 뒤모습에 자주 눈길을 보내며 남편의 가보지 못한 고향에 대하여, 아직 뵈옵지 못한 시어머니에 대하여, 그리고 남편의 심중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보았으며 그 어떤 엄숙한 감정에 사로잡히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안해는 결혼 후 그와 27년을 함께 살아오는데 생활의 결음마다에서 남편의 사람됨됨을 더욱 깊이 이해해가면서 자기의 어깨우에 단 순히 안해나 어머니로서만이 아닌, 민족적이며 시대적인 보다 숭고하고도 무거운 책임이 실려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느낌이 그로 하여금 남편을 한층 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성규의 안해는 아파트의 현관까지 내려와 출근하는 남편을 배려주기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일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손에 가방을 들고 다른 한손을 힘있게 저으며 성큼성큼 걸어가는 남편의 걸음새는 언제 봐야 한모양 한본새다. 한사람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각에 보게 되는 그 모습이다. 젊음이 처럼 크게 걸음을 옮기며 급하게 걸어가는 그를 바라보노라면 《이 걸음으로 내쳐 고향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하고 언젠가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되살아나 군하여 정말 남편을 고향으로 떠나보내는 심정이 되어 멀어져가는 남편을 오래도록 지켜보군하는 것이었다.

박성규의 고향은 경기도 가평이다. 북한강 지류인 창평강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농촌읍이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겠지만 그에게도 역시 고향은 정답고 잊을 수 없는 곳이었다.

고향이란 참 별난 것이어서 거기서 살고 있을 때에는 모르다가도 막상 떠나서 오래 지나고보면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소중한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지어 추녀 밑에 매달려 반짝이던 거미줄까지도... 그리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뿐 아니라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마저도 그립게 추억되곤 한다.

박성규는 가평에 수많은 추억들과 함께 어머니와 일가친척들을 두고 떠나왔다. 그것이 40년 전이었다. 그 후 물론 아무 소식도 모르고 있다. 그가 열여덟살 때 고향을 떠났는데 그때 어머니는 마흔일곱이었다. 그러던 성규가 이태후면 60돌 생일을 맞게 되었으니 어머니가 그 험한 세상에서 아직 살아계시리라 그다지 믿으랴.

아들과 헤어진 그날부터 아들을 애타게 그리며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을 어머니의 한생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막 터지는 것만 같았다.

젊어서 홀로 된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의 배를 채워주려고 그리고 아들이 커서는 공부를 시켜보려고 손톱이 닳도록 땅을 두지머 버둥거렸다.

아들이 겨우겨우 중학을 마치고 제 입살이를 할 때가 되니 왜놈들이 징병으로 끌어가겠다고 아들을 노렸다.

징병을 피해 성규가 도망가있던 1 년나마 매일 같이 달려드는 왜놈경찰의 행패와 어디서 굶지나 않는지 놈들에게 잡히지나 않았는지 하는 가슴 조이는 불안과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마음 못놓으셨던 어머니였다.

8.15 해방후, 죽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불안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잘살아보자고 것처럼 기뻐하시던 어머니였다. 그후에도 가난에 쪼들려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가.

박성규는 집을 떠날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이러한 아픈 심정을 오늘처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그러던것이 집떠난후 한해, 두해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가고 또 슬하에 둔 자식들이 커가면서,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심정을 직접 자기가 체험하면서보니 진작 어머니를 위해 아들구실을 잘하지 못하고 고생만 끼쳤다는 뉘우침이 점점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이였다.

헤어져 40 년...

그간 어머니에게 묻고싶은 사연은 얼마나 많으며 또 하고싶은 이야기는 얼마나 많았던가.

이곳에서 어머니에게는 알리지도 못한채 결혼을 하여 어느새 세 아이들 슬하에 두었고 딸딸은 시집을 보내게 되었으며 막내이기도 대학생이 되였다.

어찌다가 돌아와야 할 시간에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두고도 속을 태우는 안해, 집을 떠나 외지에 가 공부하고있는 자식에게서 한동안 편지가 오지 않아도 이것저것 찾아드는 근심과 걱정, ... 아이들에 대한 자기들의 심정이 이렇진대 하물며 40 여년의 긴긴 세월을 생사의 소식조차 모르는 이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땀을 뜬 눈으로 새우셨겠는가. 이처럼 행복하게 잘사는 아들을 두고...

이제는 눈물도 짙그리 마르고 가슴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재만 무드기 쌓였으리라.

어머니에 대한 성규의 이러한 남다른 심정은 그의 가슴속 깊이 묻혀있다가 생활의 이러저러한 계기에서 불쑥불쑥 되살아나서는 그의 가슴을 가차없이 허벼놓곤하였다. 딸의 잔치날에도 바로 그러하였다.

사람들의 축복속에 잔치를 마치고 시집으로 떠나가기에 앞서 남희가 아버지에게 술잔을 드리고 깊숙히 머리숙여 큰절을 하였다. 성규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며 목이 메여올랐다.

술잔을 가까스로 비운 그는 앉은 자세를 바로 하며 딸에게 말했다.

《애! 남희야!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 어린 너

를 안고 너는 이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시집도 보내게 되리라고 생각했었다. 또 그렇게 될것을 바라마지 않았다. ...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례를 치르고 너를 떠나보내게 되니 애비의 마음이 편안치 않구나. 허나 어찌겠니. 통일이 될 때까지 시집을 안갈수는 없지 않느냐? ... 아무쪼록 행복하게 잘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면살수록 남쪽에 계시는 할머니와 그곳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애쓰느라하면 조국도 통일될것이고 고향에 있는 너희 할머니도 만나게 될것이다. 남희야! 너의한생에서 가장 뜻깊고 기쁜날에 아버지가 하고싶은 소리는 이것이다. 부디 명심하여라!》

밖에서는 승용차가 기다리고있었다. 신랑이 먼저 차에 올랐으나 남희는 정든집을 떠나기가 아쉬운듯 차결에서 머뭇거렸다. 딸의 심정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나무라듯 말했다.

《애! 었디면 코달데로 가면서 뭘 그러니. 시집에서 기다리겠다. 어서 가거라!...》

그제야 남희는 느릿느릿 차결로 다가갔다.

그러자 이번엔 안해가 갑자기 생각난듯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꺼내더니 몇발자국 뒤쫓아가서 《애, 남희야! 이것 가지고 가거라!》 하며 딸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집의 현관문 열쇠였다.

《그건 뭘하러요?》

딸은 의아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원 애두, 그럼 집엔 다시 안오겠니?》

안해는 나무라는 기색으로 딸의 손목을 잡고 열쇠를 쥐여주었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남희는 감심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고마와요! 내 자주 와요!》

순간 성규는 가슴속 깊은곳에서부터 불몽치같은 뜨거운것이 온몸을 안으로부터 불태울듯 치밀어 오르는것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옆에 서있는 버드나무를 손으로 짚었다.

《아, 어찌면 신통히...》

그의 눈앞에 아득히 흘러간 옛일이 어제일처럼 생생히 되살아올랐던것이다. ...

1950 년 여름... 그날은 몹시도 무더웠다. 아들의 배낭을 다 꾸려주고난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종이에 쓴 찹쌀음식을 배낭뒤주머니에 넣어주며 말했다.

《애! 이젠 가다가 동무들과 함께 먹어라!》

《됐어요 어머니! 량식도 모자라는데 뭘 그런것까지...》

성규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런 걱정을랑 말아라.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쓸겠니?》

어머니는 자애에 넘친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떠날 준비는 다 되었다. 잠시 시간이 있었다.

《어머니! 고생이 많으시겠군요!》

성규는 어머니의 거칠은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어머니는 손을 내맡긴채 아들을 오래도록 바

라보더니 《원 자식두… 별소릴 다하는구나. 떠나  
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 하기가 뭣하다만… 장가  
나 들었더라면 오죽 좋아?!》 하고 한숨쉬인 목소  
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도 여러번 들어오던  
소리였으나 성규에게는 오늘따라 그 소리가 전에  
없이 가슴에 마쳤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 돌아오면 곧 데려올게  
요.》

자기마저 떠나고나면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시랴 하는 생각에 성규는 가슴이 아릿했  
다.

그는 집을 떠나기 전날 하루를 고스란히 어머  
니를 위해 바쳤다.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 작별의  
큰절을 올리고나서 세행보나 지게로 나무를 해  
다가 도끼로 맞춤형에 패서는 마당가에 무드기  
가려놓았고 오후에는 기울어져가는 말짱들을 다  
시 박아 울타리를 반듯하게 바로세워놓기도 했다.

그리고 밤에는 안방으로 건너가 어머니와 가지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밤을 함께 보냈다.  
...

《그럼 천천히 떠나보겠어요!》

성규는 더 마주앉아있기가 피로와 배낭을 들고  
움쭉 일어났다.

《벌써 떠나려니 ? ...》

어머니도 따라 일어섰다. 어둑한 방에서 밖으  
로 나오자 한여름의 강렬한 해빛이 성규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성규는 마당에 내려서서 집을 다  
시한번 돌아보았다. 추녀가 낮고 조그마한 초가  
집이었으나 그가 태어났고 동요시절이 흘러갔으  
며 가난속에서나마 꿈을 키워온 정든 집이었다.  
마당 한구석에 서있는 그와 동갑짜리 대추나무는  
바람에 무성한 잎을 흔들며 정답게 속삭이는듯  
하였고 강아지는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꼬리를  
흔들며 발치에서 감겨돌았다. 울밑의 장독대, 나  
무가리, 울타리에 기대세운 삽자루, 마당에 굴러  
있는 찌리비와 삼태기... 성규는 한동안이나마 헤  
여져야 하는 이 모든것들에 다시금 눈길을 주고  
나서 집을 나서며 삼작문을 밀었다.

《배-걱!》

문이 열리며 귀에 익은 돌찌구소리가 울렸다.  
순간 그 소리는 아득히 먼 어린 시절의 갖가지  
추억들을 한꺼번에 불러일으키며 가슴을 가득 메  
웠다. 성규는 무춤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언제  
부터 기쁨을 처야겠다고 생각해보면서도 차일피  
일 미루어왔던 그였다. 막상 떠나는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 별로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 기쁨을 못치고 떠나는군요!》

그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원 애두! 별걱정을 다 하는구나!》

어머니는 정깊은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미소지

었다.

《내 돌아와서 칠테니 그냥 뒹두세요!》

성규는 용서를 빌듯 벌쭉 웃으며 말했다.

《오냐 그래라! 내 그냥 두고 기다리마!》

어머니는 말끝을 떨며 얼른 고개를 돌렸다. ...

어머니는 멀리 창평강 나루터까지 아들을 따라  
나왔다. 나루가에 이르자 성규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그만 들어가세요!》

《내 걱정은 말고 몸성히 돌아오너라!》

어머니는 군복입은 아들의 모습을 망막속에 영  
원히 새겨두려는듯 이윽도록 바라보며 조용히 미  
소짓고있었다. 성규는 가슴이 확 메여올랐다.

《어머니! 소란한 세월에 부디 안녕히 계십시  
요!》

성규는 군모를 벗고 머리를 깊숙이 숙여 절을  
올렸다.

《오냐, 꼭 이기고 돌아오너라... 내 풀뿌리를  
캐먹으면서라도 네가 올날을 기다리겠다, 부디  
잘가거라!》

수그린 성규의 머리우에서 어머니의 축축한 목  
소리가 근엄하게 울렸다. 성규는 갑자기 솟구치  
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머리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해빛을 받은 어머니의  
머리에 갑자기 흰오리가 많아진것을 보았다.

(아, 어머니가 벌써! ...)

고생 많던 어머니의 한생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는듯하여 성규는 굳어진채 어머니의 머리에서 눈  
길을 떼지 못하였다. 이때 어머니가 피춤에서 무  
엇인가 꺼냈다.

《애야! 이걸 받아라!》

어머니의 꺼칠한 손의 감촉과 함께 딱딱한 물  
체가 손에 닿는것을 느낀 성규는 손바닥을 펴보  
았다.

《아니?! 이젠 집의 열쇠가 아네요?》

그것은 살짜문에 매달리군하던 거부기모양의  
넙적한 자물쇠를 열린 열쇠였다. 어머니는 의아  
해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지고 가거라!》 하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거야 집에서나 필요한건데... 내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성규는 무점없이 말했다.

《집엔 또 맞쇠가 있지 않니 ?!》

《그래두... 싸우러 가는 사람이 뭘 이런걸 가지  
고 가겠어요?》

그의 말은 여전히 무점이 없었다.

《원 애두! 그럼 집엔 안돌아오려느냐?》

어머니가 나무라듯 말했다. 순간 짧은 그 말속  
에 응축된 어머니의 깊은 심정이 천근의 무게로  
전류처럼 그의 가슴에 흘러들었다. 성규는 정신

이 번쩍 들었다.

《허허… 참 그렇군요! 어머니가 문을 잠그고 어디 나가셨을 때 내가 울수도 있을테니까요…》

성규는 어머니의 깊이깊은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죄스러움을 너스레로 농치며 얼른 열쇠를 군복주머니에 넣었다.

《잘 건사하거라!》

속삭이듯 다정하게 당부하는 어머니의 음성이었다. 성규는 문득 이 순간이 자기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운명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무엇인가 이 순간에 어머니에게 가장 살뜰하고도 뜻깊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싶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나루배가 와닿았다. 성규는 종내 그것을 찾지 못한채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황황히 절을 올리고는 배에 올랐다. 배가 기우뚱거리며 기슭을 떠나 강심을 향해 차츰 멀어지자 어머니는 내젓던 손을 내리고 석상처럼 그자리에 서있었다. 강바람에 어머니의 흰 치마자락이 기폭처럼 나뭇갓다. 성규는배전에 서서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눈이 아프도록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

그때로부터 40 년… 성규는 고향의 나루가에서 어머니가 넘겨주신 그 열쇠를 지금까지 한순간도 몸에서 떼놓은 일이 없다.

고향에 갈수 없는 그에게 있어 그것은 자물쇠를 여는 단순한 기구, 하나의 조그만 쇠붙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과 사랑의 몽치고 굳어진 응결체였으며 고향의 상징이었으며 다른 아닌 고향 그것이었다.

성규는 그것을 통해 어머니와 고향사람들을 그려보았으며 그들과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고향의 산과 들, 마을길을 걸어보기도 하였고 출렁이며 흐르는 창평강의 푸른 물을 나루배로 건너보기도 하였다. 그것을 통해 그는 마을어구에 하늘을 찌를듯 치솟아있는 은행나무의 우람한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기도 하였고 그 가지에 앉아 꼬리를 출삭대며 울어대던 까치소리며 쓰르라미의 서늘한 노래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무우를 볼며 지나가는 고향의 잊지 못할 바람소리도 들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구수한 땅냄새를 맡기도 하였다.

《남희야! 아무때나 오고싶으면 오너라. 집이 비어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렴! 너에게 열쇠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성규의 눈앞에는 밝게 웃던 남희의 얼굴이 아니라 집엔 안돌아오려느냐고 나무라시며 열쇠를 쥐여주시던 어머니의 얼굴이며 치마자락

을 기폭처럼 날리며 강가에 서서 손저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고 삐걱하는 문소리에 행여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가 하고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시는 백발의 어머니의 모습이 번갈아 어른거리며 떠나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 모습들이 점점 뿌옇게 멀어져가는것이였다.

《여보! 개들이 간지 언젠데 아직 뭘 보구있어요?!》

안해가 어깨를 건드려서야 성규는 현실로 돌아왔다.

손님들도 다 돌아가고 딸까지 떠나간 집안은 빈집같이 헛하고 쓸쓸하기까지 하였다. 성규는 생각이 많았다. 집에 안해와 아들딸들을 그득히 거느리고있으면서도, 그중의 딸 하나를-그것도 행복한 새생활에로 떠나보내고나서도 애비의 심정이 이렇듯 허전하고 쓸쓸할진대 며느리조차 없는 외로운 어머니가 저 분계선너머 남쪽땅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이야 오죽하랴싶어 도무지 마음을 진정시킬수가 없었다. 성규는 부엌일을 마치고 들어온 안해를 앉혀놓고 말했다.

《여보! 난 어머니에게 알려지도 못한채 당신과 살림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어머니도 모르게 딸을 시집보냈소… 할머니품에 한번 안겨보지도 못한 손녀를 말ियो! …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하고 죄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소!》

말을 하고보니 더욱 가슴이 터져오르며 억이 막혔다.

《그러게말이에요요. 허지만 어찌겠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닌걸요! …》

안해도 눈물이 그렇게서 한숨을 쉬며 말하는것이였다. 안해의 말을 듣고보니 그의 가슴은 한층 더 비통해졌다.

《여보! 그것이 차라리 내 잘못때문이라면 가슴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겠소. 차라리 그것이 내 잘못때문이라면… 내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내대면서 용서라도 빌지 않겠소? … 하긴 종아리를 맞더라도 어머니를 만나뵈울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만…아, 원통하오! 원통해! 미국놈들이 왜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는거요, 그놈들은 우리 조선사람하고 무슨 원쑤였다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들씩우는가말ियो…》

성규는 뒤말을 잊지 못하고 뜨거운 숨을 내뿜으며 몸을 떨었다. 고향땅을 타고왔은 미제원쑤들에 대한 불같은 증오가 견잡을수 없이 치밀어올랐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용암보다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세차게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이튿날아침, 사람들은 언제나와 같이 한손에 큼직한 가방을 들고 다른 한손을 힘있게 저으며 젊은이처럼 성큼성큼 급한 걸음을 다그쳐가고있는 박성규지배인을 보았다. 언제나와같은 그 모



숨을...

그러나 그의 바지주머니안에 고향집의 열쇠가 들어있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가 열쇠를 가지고 고향에 가게 될 날은 앞에 있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직은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40 년을 저렇듯 하루같이 다그쳐

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다그치고있는 저 걸음에 의해, 갈라진 혈육들과 겨레들을 애타게 그리는 북과 남의 수천만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들에 의해 박성규가 삐걱소리 나는 고향집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품에 안겨 사나이울음을 터뜨릴 그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것이 아닌가.

## 침략의 그 불길은

김휘조

광기로 지핀  
침략의 불을 들고  
또다시  
《팀 스피리트》의 연기를 피우는놈들  
아느냐, 우리의 저 푸른 하늘을  
불로 못태운다는것을

침략의 불에  
불면증에 걸린 무리  
우리를 넘보며 우리 창가에  
살륙의 핵머지를 들썩우려는놈들  
아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피어나는 꽃처럼  
저 창가에 비끼는 아이들의 웃음과  
거리에 흐르는  
맑은 노래소리를 사랑하는 우리  
공장의 기계소리를 사랑하는 우리

우리 공장에선 오늘 또 하나  
손에 손잡고 펼쳐나  
새로 세운 로에 불을 지폈다  
창조의 불  
저 거리 저 마을에  
철을 당겨 봄빛으로 피어나는 불  
밝은 웃음으로 피어나는 불

로를 세우고  
새 기계를 만들고...  
늘어나는 새 집들과  
사람들의 새 웃감을 헤아리는것이  
우리에게겐 습관된 일

일터마다 혁신의 불길 높이며  
허리잘린 이 땅의 통일을 위해  
자유래왕, 전면개방을 말하는 우리에게  
네놈들은 또다시  
총포소리로 대답하누나

아, 분노를 안은 시간이

이 땅에 소리없이 흐르고있다  
네놈들을 저주하며  
말없는 돌바위도  
뜨겁게 달았다

더러운 벌레가 오물속에서 서식하듯  
살륙의 피우에서만 숨쉴수 있는놈들  
운명의 낭끝에서  
꺼져가는 락조를 붙잡듯  
남녘땅을 붙잡고 우리를 넘보며  
불장난에 미쳐날뛰는놈들

아느냐, 창조의 불을 높이 추켜들고  
제 행복을 제 손에 틀어쥔  
인민은 필승불패란것을

정의의 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당이 우리와 함께 있다

네놈들이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모두 영웅으로 일떠서리라  
이 땅의 이름없는 산봉우리들도  
엄엄한 요새로 솟구치리라

건어치우라 무모한 불장난을  
건어치우라 무모한 불장난을

우리 추켜든 정의의 불길앞에서  
바위에 부딪친 멸기처럼  
흘날리는 락엽처럼  
꺼져가는 네놈들의  
운명을 보며  
네놈들은 똑똑히 알게 되리라

너희들이 휘두르는 침략의 불  
그것은 오직 하나  
네놈들의 화장터로 될  
그 불이라는것을

## 영원한 삶

김종원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어 가족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조국앞에 남다른 위훈을 세워놓고서도 이름석자 남기지 못한채 우리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삶의 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간 사람들인가.

내가 어느한 구분대에 대한 취재를 끝내고 나지막한 령길을 넘어올 때였다.

열살도 되나마나한 애들 여러명이 길가에 몰려서서 법석 고아대고있었다.

책가방을 멘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돌아오는 애들 같았다.

싸움을 하는걸가?

나는 아이들에게로 급히 다가갔다. 나를 보자 애들은 모두 각듯이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묻는 것이였다.

《아저씨, 다른 묘에는 다 이름이 있는데 저 묘에만 왜 이름이 없나요?》

아마 묘의 이름을 두고 서로 싱갱이질을 하던 끝에 나의 대답을 들어보자는 심산들이였다.

나는 묘비에 눈길을 가져갔다. 평퍼짐한 둔덕 위에 하나의 큰 봉분이 류달리 두드러지게 안겨왔다,

묘비에는 《무명전사묘》라고 써여있었다 .

어쩐지 가슴이 뜨거워오르며 애들의 물음에 쉬이 대답할수 없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전사들의 위훈이 너무도 숭고했기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에는 이런 무명의 렬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고이 잠든이들도 그 수많은 무명영웅전사들속에 속해있는 사람들일것이다.

그들이 피흘려 지켜준 땅에서 행복만을 알고 고스란히 자라난 나도 이애들과 다름없이 무명전사들을 만나본적이 없다.

하지만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것만 같다. 당과 혁명위해 목숨을 서슴없이 바쳤을 숭고한 희생정신, 그 어떤 명예와 사심을 모르는 혁명전사의 깨끗한 량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수천수만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조국의 촛토를 수호하는 성전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으며 우리 인민들은 온갖 간난신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전에서 우리 조국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흘린 피와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무명전사들은 진군하는 남진의 대오가 한시라도 지체할세라 저 사품치는 물속에서 나무다리를 남모르게 떠받든 공병전사들일수도 있다. 아니면 이름없는 저 산봉우리의 돌출부를 지켜 피끓는 청춘을 바친 애젊은 병사일수도 있고 달려드는 적땅크를 향해 반땅크수류탄과 함께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된 《아바이전사》일수도 있다.

그들이 어느때 무슨 전투에서 어떻게 싸우다가 희생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당과 수령을 위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삶을 땀땀이 바친 전사들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그들에게도 승리한 그날에 금빛혼장 가슴에 번쩍이며 고향으로 돌아가 배움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장군님 주신 땅에 소몰아 밭갈며 풍년가를 건드리지게 불러볼 소중한 꿈이 있었으리라.

하지만 청춘도 생명도 아름다운 래일의 희망도 조국을 위해 다 바치고 이름석자도 남기지 못한 저 무명전사들!

저 무명전사들이 이름만 남겼다면 그 위훈은 금별로 찬란히 빛을 뿌렸을것이며 만사람의 기억속에 영원히 새겨졌을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변화한 도지도 아닌 분계선 가까운 농촌벽지 아늑한 산기슭에 조용히 잠들어있다.

력사에는 생의 자취를 남기려고 모대긴 흔적들이 수없이 많다. 황금과 보석으로 단장시킨 묘비에 제 이름을 새긴 사람도 있고 먼 후세에까지 향락에 파묻혀있었던 그때를 길이 전하려고 천연바위벽에 돈을 들여가며 가문의 《명망》을 쏘아박은 사람들도 있다.

허나 세월의 이끼에 덮여버린 그들의 이름을 이땅의 그 누가 기억이나 하는가.

개인을 위해 산 삶은 육체적생명의 한 계선에서 끝나지만 혁명과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해 산 사람들은 육체적생명의 한도를 벗어나 우리당의 품속에서, 인민의 기억속에서 영생하는것이다.

정녕 인간은 이름으로써가 아니라 투쟁업적으로하여 길이 산다.

이런 생각에 잠겨 섰노라니 어느 한 예술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떠오르는것이였다.

《훈장과 메달이 가닿지 못한곳에 가장 큰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삶의 보람이 있다!》

참말로 이들이야말로 그렇게 산 값높은 삶의 향유자들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무명전사들의 숭고한 녀앞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 누가 퍼놓았는지 묘지돌레에 새하얀 조약돌이 깔려있다. 나는 흠어진 조약돌을 하나하나 정히 바로 집어놓으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이분들에겐 이름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대회를 비롯하여 나라의 큰 대회때에 선참으로 불러주시고 추억해주시는 혁명전사라는 이름, 영웅전사라는 그 이름 말이다.

비록 이들은 교향도 나이도 성미도 서로 달랐

지만 아버지원수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위해서는 모두 하나의 심장으로 고동쳤단다. 그래서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간대도 력사의 갈피에 묻히지 않고 보석처럼 빛을 뿌리는것이다.》

천진한 애들인데도 모두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생각깊은 얼굴들이었다.

나를 따라 작은 손길들이 조약돌을 집어들었고 누군가는 한창 만발하기 시작한 봄꽃들을 한아름 꺾어다 정히 놓는다.

가슴이 후터워오른다.

그렇다, 이들은 살아있다. 전진하는 우리들과 함께 앞으로 나간다.

나의 심장은 이렇게 뛰치고있었다.

## 《자력갱생직장》 나의 일터여

김영철

높뛰는 내 심장의 박동인가

쿵! 쿵! 함마소리 울리며

90년대 첫째 진군길을 다그치는 이밤

나는 다시한번 나의 일터 그 이름 새겨본다

《자력갱생직장》

하나의 나사못이 귀하던

간고하던 그 시절

락원땅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

열명당원들이 다진 그날의 맹세 지켜

제힘으로 일떠세운 우리 직장 돌아보시며

친히 지어주신 그 이름

아, 그 이름 새기면

심장의 박동 더더욱 높뛰고

가슴속엔 더운 피가 끓는다

나의 일터 내 여기서

단야공으로 여직껏

성실한 로동의 구슬땀을 흘리며

강철만을 버리었던가

빈터우에서

《락원 1호》양수기를 만들던 그 나날

없는것을 만들어내며

열번 다시 백번 다시

메질소리 물러갈 때

나라에 손을 내밀줄 모르는

로동계급의 량심을 여기서 나는 지녔다

기대결에서 쪽잠을 들어도

어이하여 힘든줄을 몰랐던가

첫 대형굴착기를 무어내던 그 낮과 밤에

쿵! 쿵! 내가 울리는 그 함마소리를

제발로 걸어가는 발걸음소리로 들으며

나는 여기서 우리의 걸음새를 익혔다

둘러보면 직장은 크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자력갱생 그 힘을 떨치는

나의 일터 나의 직장

진정 여기서

난관앞에 물러설줄 모르는

역센 의지를 안았고

오직 제힘으로 .

우리 수령님과 당을 받드는

산악같은 담력을 나는 키웠다

그때문에 그 이름 새기면

그 이름 빛내여갈 맹세로

내 가슴속엔 더운 피가 끓거니

쿵! 쿵! 지심을 울리는 함마소리

90년대 진군길을 다그치는 발걸음소리

내가 가고 조국이 가는 길우에

언제나 드림없이 나를 세워주는

오, 《자력갱생직장》 나의 일터여

## 어머니의 마음

방정강

도시의 층높은 세칸짜리 살림집 방안 한구석에 석기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거무스레한 매돌이 놓여있다면 아마 머리를 기웃거리며 웃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햇빛밝은 우리 집, 천연색텔레비존에 랭장고며 세탁기가 있고 어항속에서 금붕어가 선녀의 치마자락같은 꼬리를 너울거리는 현대적살림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충고하는이들도 간혹 있다.

그러나 한가정의 세대주인 나는 그 매돌을 굳이 가보처럼 여기며 먼지가 오를세라 닦아도 준다.

과연 어떻게 되어 그 《육중한 돌》이 단층집도 아닌 고층살림집의 12층꼭대기에까지 올라와 울방자를 틀고 자리잡게 되였는가.

몇해전 우리는 세칸짜리 새 집을 받고 향촌에서 살던 어머니를 모셔왔다.

《너희들이나 나라일을 잘하면서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난 그저 이 촌에서 염소두 기르구 닭두 치구, 터밭을 가꾸며 있겠다. 날 데려갈 생각을랑 아예 말어라.》

노상 이렇게 말하면서 도시로 올 생각을 하지 않던 어머니가 새집들이를 한 기쁨에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여섯살잡이 막내딸 홍이의 연필글편지를 받고는 그만 마음의 움직임을 보이였다.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보다 더 따르는 나의 안해는 반송낙을 했다는 소식이 인편을 통해 날 아오자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변할세라 어서 이사를 다긔자고 하면서 나를 든장질했다.

이른 봄날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려 고향마들로 갔다.

이사집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현대식가구는 물론 기쁨이 돌돌 구르는것 같은 까만 쇠가마며 늑가마, 크고작은 꽃단지, 김치독, 장독, 쌀항아리...평생을 두고 손때를 묻힌 물건들이라 어머니는 어느것 하나 남기려 하지 않았다.

《다 가져가자. 거기에 가도 그리울 때가 있을게다.》

그러나 도시에서 외동딸로 나서 세상 귀한것, 그리운것을 모르고 자란 안해는 어머니의 세간살이물건들을 그리 마음들어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옷가지들을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기차나 승용차에 앉아 어서 횡 떠났으면 하는 눈치였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다 가지고 간다고 그러

세요. 우리 집 세간살이도 있을건 다 있어요. 이 가마랑 독이랑 그리구 저 장농서꺼 다 이웃집들에 나누어주자요. 그러면 아마 늘 어머니를 생각하며 잊지 않을거예요.》

안해의 그 말에는 어머니도 옳다고 생각하였던지 《그건 그러자꾸나》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먹이를 주어 치마폭에 따라서던 염소나 닭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땐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해서 그놈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식성까지 일일이 다 말해주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이 뜨거워서인지 안해는 잠고양이만은 가지고 가자 하였다.

어머니의 낮빛이 저으기 밝아졌다.

그럭저럭 이사집은 반은나마 줄어들었다. 나는 집안을 한바퀴 빙 둘러보았다. 부엌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한구석에 놓여있는 거무스레한 둥근 물건이 눈에 띄였다.

《아아, 매돌!》 하고 나는 소리쳤다.

《어머니, 매돌은 어떻게 할가요?》

어머니의 얼굴이 대뜸 환해졌다.

《거야 물론 갖구 가야지.》

하지만 나는 매돌앞에서 잠시 머뭇거리였다. 가지고 가야 도시살림에 별로 소용없을듯싶었다.

갑자르고 췌는 내 마음을 어느새 엿보고 안해가 어머니곁에 다가서며 말하였다.

《어머니, 우리 호동에서 열결음안팎에 체분소가 있어요. 국수 올려주는데도 있구 두부앗는 집도 있어요. 매돌을 가져다 쓴다구 해도 1년에 몇번 쓰겠어요. 여기 농촌집들에 더 쓸일이 많겠는데 두고가자요.》

안해는 값진 물건들도 집집에 나눠주자고 할땐 선뜻 응수해나서던 어머니가 하찮은 매돌을 굳이 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사뭇 의아해하였다.

귀에 쭈뼛 들어박히도록 상냥하게 노래를 부르는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어머니는 그저 심드렁히 보고만 있었다. .

그때 어머니의 두 미간이 알릴듯말듯 좁혀지는것을 나는 얼핏 띠어보았다.

나는 안해의 옆구리를 슬그머니 찔렀다.

어머니의 마음을 더는 건드려서는 안되였다.

《두고 가구싶질 않구나. 쓰던 안쓰던 그것만은 가지고 가자꾸나.》

어머니는 옛일들이 떠올라서인지 허리를 펴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제서야 가슴 찌릿이 안겨들었다.

《매 돌을 가지고 감시다. 어머니의 손으로 매 돌을 돌려 만든 떡맛, 두부맛을 당신은 아직 다 모를거요.》

나는 매 돌을 움쭉 들어 마당가에 내놓았다.

도시에 가면 하등 소용없는 《돌》을 육십사납게 들고가려 한다고 안해는 못마땅한 눈길을 할 곳거렸으나 나는 한사코 차에 실었다.

산골길 굽이굽이를 돌며 꽤나 들추어대는 자동차적재함에 올라앉아 나는 줄곧 매 돌을 굽어보았다. 거기서는 할아버지의 구레나룻얼굴이 빙글거리며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는듯싶었다.

우리 집에서 해방을 맞아 땅을 분여받은 그해 가을부터라고 짐작된다.

그무렵 할아버지는 땅을 다루는 농사일과 함께 들에서 돌아오면 손에 정과 마치를 들고 돌을 쫓기 시작했다.

마당가의 살구나무밑에서 유리보안경을 쓰고 《딱, 딱…똑똑…》가락맞게 돌쫓는 소리는 땅거미 질 때까지 우리 집 싸리울바자안에서 그칠줄을 몰랐다.

《할아버지, 무얼 만드나요?》

《응 용담이나. 저리 물러섰거라. 눈에 티가 들어간다. 용담이 좋아하는 떡이랑, 과줄이랑 버라 별게 다 나오는 우리 집 돌보물을 만들지. 허허…》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놓고 담배쌈지에서 잎초를 말아 부시를 탁 쳐서 불을 붙이며 말하였다.

《돌보물이 뭐냐? 돌에서 어떻게 보물이 다 나온담? 할아버지, 광포쟁이야.》

《허, 너석두 이제 두고보렴, 생일날에 어디 무엇 이 생겨나는가를…》

나는 저도 모르게 입이 헤벌죽해서 가까이 다가섰다.

그찰나 할아버지의 정과 마치에서 뒹겨나온 돌티가 끝내 나의 눈에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급히 마치를 놓고 손으로 눈을 부비는 나의 얼굴을 해가 비쳐드는쪽으로 돌리게 했다.

《그것보렴, 물러서라는데 쫓쫓…어이쿠 용타, 용담이가 울지도 않는걸 보니 이제 어른이 다 됐는걸.》

할아버지는 손을 말끔히 털고 눈까풀을 뒤집으려 했으나 허사였다.

《거 집안에 누가 없느냐?》

할아버지의 부름소리에 이어 어머니가 행주치마에 손을 씻으며 달려나왔다. 어머니는 나의 눈까풀을 겨우 뒤집고 힘껏 불었다. 한참만에야 티가

없어졌으나 눈알이 알알했다.

그렇지만 나는 떡이랑 과줄이랑 나온다는 그 돌보물을 더욱더 호기심을 안고 바라보았다.

처음엔 불품이 전혀 없던 강변의 돌이 보기 좋게 모양을 내더니 점점 돌이 잡히는것이 험등하였다.

손잡이를 꽃을 동그란 흙이며 난알을 먹일 네 모구멍까지 관 정자리가 송송 난 엷음벙이 그 돌보물의 이름이 《매돌》이라고 불리우는줄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할아버지는 수매돌과 암매돌을 온 힘을 넣어 세부가공하였고 중쇠도 단단히 박아넣었다.

그러고보면 할아버지의 손은 참으로 보물을 만들어내는 보배손 같았다. 어찌보면 그 손은 큰 느티나무뿌리 같았다. 눈물에 들어서면 벼포기 사이를 와락와락 박속 우비듯했다. 아침전에 두어마지기의 논김은 문제도 없었다.

그뿐이라. 할아버지의 손이 한번 움직이면 팽이며 나무권총같은 놀이감들이 눈깜짝할새 만들어지곤했었다.

매돌은 우리 집의 난알 바수는 첫 《기계》였다.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였다.

온 얼굴에 웃음을 그득 담고 매돌앞에 앉아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하는 머느리를 보며 할아버지는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과연 옳았다.

나의 생일날에 우리 집에서 손잡이도 잘 대우낸 매돌이 돌기 시작하였다. 해방되어 제 땅에다 심은 논두렁 청풍이 곰방술에 움푹움푹 담겨들어가서는 빙글빙글 갈려 하얀 거품까지 내며 큰 함지에 콩물을 꾸역꾸역 내뿔었다.

빙글빙글 돌아라 돌보물망아

이 보물 참말로 그 뉘 덕이나

땅을 주신 장군님 우리 장군님

큰 덕이지 큰 덕이야 상사디여라

나를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자작 지어 부르는 그 민요풍의 노래는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웃음이 빙글빙글 피는 주름깊은 얼굴에는 땅을 받은 농민의 기쁨이 한가득 담겨있었다.

할아버지가 만든 매돌로 흰쌀도 갈아 송편이며 전편을 빚고 수수지짐까지 지지여 나의 생일상은 큰 잔치상 같았다.

지금도 나는 우리 집 매돌로 갈아서 지은 감미로운 음식맛들을 잊을수가 없다.

할아버지는 첫 가을 농사도 잘 짓고 누런 둥글황소도 사다 매었다.

매돌은 빙글빙글 돌고돌며 우리 집에 보물난가리를 그냥그냥 높이 쌓아올리었다.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물결치던 그 세월의 우리집은 그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사집차는 몇시간을 잘 달려 우리가 사는 고

층살림집앞에 와서 벗어섰다.

이사집 마감으로 매돌을 내리웠는데 안해는 무척 민망스러운 눈길을 나에게 보내었다.

그리 큰 기업소는 아니지만 한 기관의 책임까지 진 꽤 풍채도 있는 사람인 내가 숨가쁘게 매돌을 차에서 들어내릴 때는 미끄럽대며 그네를 타던 홍이포래 아이들까지 달려와서 그 무슨 큰 구경거리가 나졌다고 보는지 오구구 모여들었다.

《야, 돌, 둥근돌이야.》

《홍이 아버지. 거 무슨 돌이냐요. 어디다 쓰자구 해요.》

아이들은 환성을 지르기도 하며 묻기도 하였다.

《응. 매돌이라는거란다. 난알을 떠놓고 돌려서 가루도 내고 두부도 맛아먹는데 쓴단다.》

《야, 돌을 가지고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찾아보기 힘든 도시에 돌을 가지고 오는것이 이상하다는듯 아이들은 납득이 되지 않아 두눈을 말뚝거리었다.

안해의 얼굴은 빨간 앵두빛으로 달아올랐다.

그 얼굴은 《그것보라요. 애들까지 웃지 않아요.》 하고 말하려는듯싶었다.

매돌을 맛들어 승강기에 실을 때였다.

승강기운전실에 앉아 소설책을 읽고있던 운전공처녀가 난딱 일어서며 문을 막아나섰다.

《아이, 어찌면 이런걸 다.》

처녀는 한참이나 매돌을 두루 살펴보다가 문가에서 비켜섰다.

《꽃무늬레자가 굵히겠어요. 정히 놓으세요.》

운전공처녀는 달가와하지 않으며 얼굴을 돌렸다.

나는 안해와 함께 매돌을 살머시 놓고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오르내리던 승강기운전실의 그 꽃을 새긴 비닐레자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굽어보았다.

《매돌이야 농촌집들에서나 쓰지 도시살림에 쓸데가 없지요.》

이렇게 다소 빈정거려린 말투도 들려왔으나 《손때묻은거니 가져왔겠지요. 도시살림에도 쓰면 좁아빠요. 농촌에서보담 덜 쓸뿐이지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승강기는 잠간새 《잉-》하며 12 층으로 매돌을 끌어올렸다.

마침내 참아내지 못한 안해의 얇은 입술에서 못마땅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어디 금덩어리예요? 도대체 이런 돌덩어릴 끌고와서 뭘 하나요. 이 돌에서 밥이 나오요 꿀이 흘러나와요?!》

어머니와 나의 마음을 리해 못하는 안해가 저으기 야속스러웠다. 나는 지그시 마음을 누르며 이마의 땀을 씻었다.

《그렇소, 밥이 나오오. 어디 그뿐이겠소. <떡 나오너라> 하면 떡이 나오구 <두부 나오너라> 하면 네모반듯한 두부가 나오지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게 이 매돌에서 나오지요.》

《참 애들에게 들려주는 옛말 같군요.》

안해는 너무 어이 없는지 피씩 웃어버렸다.

알뜰한 살림꾼으로 가정용품상점에서 한가지씩은 다 가져다 차려놓은듯싶은 부엌세간, 알른 거리는 늪그릇, 범랑그릇들, 갖가지 울긋불긋한 수지가공품들과 구석기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돌덩어리가 함께 놓일수 없다는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나는 안해와 생각이 조금 달랐다.

매돌을 집안에 들여다놓으니 마음이 다 개운해졌다. 마치도 청봉산 기슭의 그 고향집에 그냥 앉아있는듯싶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때가 묻고 어머니의 지성어린 손이 몇천번을 가닿았을 매돌에서는 구수한 흙냄새며 파아란 하늘을 비껴안고 주절거리며 흐르는 정다운 시내물소리도 들려오는듯하였다.

우리는 해빛이 잘 드는 방 한칸을 어머니의 방으로 정하고 이불과 의류를 나란히 놓았다.

어머니는 새 집에 대뜸 정이 가는 모양이었다.

알른알른 윤기 흐르는 온수난방 장관구들도 짚어보고 꽃천으로 새로 누빈 이불도 만져보며 여간만 좋아하지 않았다.

안해는 어머니가 입맛을 잃어할세라 아침에는 가재미생선국도 끓여드리고 점심에는 시원한 탕면도 말아드리곤하였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안해의 지성에 나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생활은 자로 굵듯 정바로 한뼘으로만 흐르지 않았다.

그날은 어머니가 온 뒤의 첫 일요일저녁이었다.

일요일의 흥취를 둔구려고 저녁식사안까지 미리 짜가지고 부엌에 나섰던 안해의 입에서 볼부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이게 웬일이야. 펌프운전공은 일 나와서 뭘 하고있나 ? 아이 속상해.》

안해는 연송 토달거리며 물바게쓰를 들고 나섰다.

우리 호동은 고층이어서 제일 아래층에서 물을 싸울리게 되어있다. 후에 알고보니 뽕프수리로 그 시간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였던것이다.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해서 의아해있던 어머니가 끔 하고 몸을 일으켰다. 어지간히 노여움이 실린 얼굴로 안해를 멈춰세웠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찌다 물 한번 안나오는걸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부리면 되겠느냐. 무슨 사연이 있겠지.》

《아이 어머니두 난 또...》

《내 말을 듣거라, 난 홍이 아버지가 어렸을적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랑 열두식구 때식을 오리밖에 있는 우물집에 가서 동이로 물을 이어다 짓군했단다. 이 좋은 집에서 갖은 혜택을 받고 살면서 그러면 못쓴다.》

안해의 눈이 별안간 둥그래지었다. 그는 의혹이 실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때와 지금이 어디...》

《아니란다. 사람은 근심걱정을 모르고 잘살수록 제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 바깥 하나를 나를 다오. 함께 긴자꾸나.》

팔을 거두고 나서는 어머니를 안해는 겨우 말리었다. 그리고는 문닫는 소리가 여느때없이 크게 들리는것 같았다.

옷방에서 그 일을 목격한 나는 그 무엇인가 미타한 그림자가 마음속 한귀퉁이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어떤 가정에서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사이의 그 미묘한 관계의 조절자로 나 자신이 되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안해를 믿었다.

결혼후 언제한번 의가 상한 일 없고 말다툼 한번 하지 않아온 우리의 부부생활이었다. 월계획, 분기계획을 넘쳐한 뒤에라든가 명절날에 찾아오는 직장장들과 반장들, 로동청년들, 그 어느 한 사람도 가림이 없이 상냥하게 맞아들이며 때로는 거품이 오르는 맥주잔과 갖가지 지성어린 요리들을 상우에 올려놓아 주인과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안해였다.

《거 뭐 지배인동무네 집에 오면 지배인동무들 보고 오나, 아주머니 얼굴 보고 오지.》

이렇게 반은 룡을 담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 말에는 안해에 대한 속깊은 평가가 깃들어있었다. 안사람이 좋아야 손님이 많다더니 직장사람들이 우리 집에 스스로없이 찾아오는것도 결국 안해의 이런 진심때문이 아니었던가.

그후 나는 드바쁜 나날들을 보내었다.

한 기업소를 책임지다보니 해야 할 일들이 즐창 꼬리를 물고 나를 기다렸다.

아래일군들로부터 올라오는 문건결재며 작업반장, 직장장들과의 사업총화와 포치, 기술일군들의 협의회지도며 겹친 일처리들로 하여 나는 집안일을 안해에게 도맡기었다.

구역편의관리소의 회계과에서 전자수산기를 다루는 안해의 일은 하루 회계계산을 내놓고는 집에 바칠수 있었다. 이젠 어머니까지 모셔와 **한 집에서** 살다보니 집일에 나는 통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

어느날 저녁이었다.

막내딸 홍이의 생일날을 앞두고 나는 출장지에서 돌아왔다. 딸애에게 입힐 새옷이며 학습장, 연필들을 한가방 사들고 줄땀이 번지르르한 얼굴로 출입문을 열었다.

《어머니!》

대답이 없다.

딸애가 《아버지!》하고 달려와 품에 안겨든다.

《할머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가방을 받아들고 토끼처럼 강충강충 뛰는 딸애의 발구름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그새 편안하셨어요?》

《좋은 집에서 무에 나빠 편안질 않겠냐?》

어머니는 나의 얼굴기색을 살피며 짐짓 우선우선하게 웃는다. 나는 그 웃음이 그 어떤 불만을 감추며 짓는것이라는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었다.

딸애는 불룩한 가방을 절로 열고 새 옷이며 학습장을 안고 좋아라 쿵쿵 뛰다가 옷걸이에 옷을 거는 내 손을 가만히 끌어당기었다.

머루알같은 까만 눈이 껌벅했다.

《응?!》

《아버지, 할머니가 엄마때문에 이렇게 됐다.》

홍이는 자기 이마에다가 두손을 곧두세웠다.

몹시 성났다는것이다.

나는 불에 덴것처럼 딸애의 손을 잡았다.

생활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사이에 티각태각하는 일이 간혹 있기는 한데 내 집에서 그런 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였다.

《무슨 일로 그렇게 됐니?》

《난 몰라...》

딸애는 할머니가 들을가봐 입가에 손가락을 가져다댔다.

(어머니를 괴롭히다니. 이게 어디 뉘번한 일인가!)

가슴이 서늘해지고 쿵쿵 방망이질을 하였다.

나는 방안을 서성거리다가 옷도 채 못갈아입고 어머니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안경을 끼고 뜨개질을 하고있었다. 도시에 와도 일손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늘 외우며 한시도 쉬지 않고 장갑을 떠서 건설장에 보내주군하는 어머니였다.

《어머니, 그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어머니는 뜨개손을 멈추며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눈길에는 가슴속에 묵새기는 수심같은것이 그들먹이 비껴있었다.

《일은 무슨 일, 아애비가 마음 쓸 일은 아니니 걱정할건 없네.》

되려 나를 위안하려드는 어머니여서 나는 더

더구나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무엇때문일까? 무슨 일로 노여웠을까?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발길도록 이불도 여미고 농마국수를 받아온다 하며 식성을 맞추느라 원심을 쓰던 안해가 아니었던가?!

나는 착잡한 생각에 잠겨 담배를 피워물고 내방으로 왔다. 책상을 마주앉아 넋잃은 사람처럼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고있었다. 순식간에 방안은 전에 없던 담배연기로 자욱하였다.

그때였다.

스르륵...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흥이가 《엄마!》 하고 달려가 문을 마주 열었다.

봄빛이 무르녹는 도시에서 요즘 유행되는 단긴 깃의 연회색 코트차림에 굵높은 하얀 구두를 신은 안해가 흰 이를 가지런히 드러내며 웃어반긴다.

《아이 언제 오셨어요?》

나는 책상앞에 턱을 고이고 앉아 얼굴도 돌리지 않았다. 이 시각엔 어머니에게보다 먼저 나에게 인사하는것도 마땅치 않게 여겨졌다.

《흥이 생일을 잊지 않으셨...》

내쳐 앉아있는 나의 얼굴을 여겨본 모양인지 안해는 약간 주눅이 들어 말끝을 채 잊지 못한다.

나는 마음을 애써 녹잡히었다.

연회색 코트며 둥근 뜨개모자를 벗고 실내복차림의 치마를 갈아입고 부자연스럽게 서성거리는 안해를 불렀다.

《여보, 거기 좀 앉소.》

나는 의자에서 내려 울방자를 틀고앉으며 전에 없이 심각해진 나의 얼굴을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는 안해와 마주 앉았다.

나는 결방을 얼핏 결눈질하며 어머니가 들을 세라 나직이 물었다.

《그새 무슨 일이 있었소?》

아직 그 무슨 가늠도 가지 않는지 안해는 눈만 굴리었다.

《왜 어머니가 저렇게 기분이 상했소?》

내가 재차 물어서야 안해는 알겠다는듯 속눈썹을 내리깔았다.

《큰일은 아니예요. 오늘 아침 흥이 생일을 차려줄 의논을 하었는데... 난 어머니가 팬스럽게 그릇가지들을 벌려놓고 수고하실걸 생각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려구. 그래서 제분소에 가서 떡가루도 빵아오고 콩도 들고가서 두부도 받아오자고 하니 글썸 어머니 그럴것 없이 매돌을 돌려 집에서 하자고 한사코 우기질 않겠어요.》

《그래서 난 힘들게 망을 돌릴 필요가 뭐가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만 화를 내시더구만요. <손녀 생일음식을 내 손으로 해먹이고싶어 그러는데 망

을 돌린들 힘들게 뭐냐.> 하면서 싫거들랑 마음대로 하라는겁니다. 아이참...그러시고는 아직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시는가분데...에이, 그놈의 매돌을 내 그때 가져오지 말았어야 하는걸...》

《무슨 소리를 하는거요. 당신은 그래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겠단말이요?》

《?!》

《당신은 정을 붙이며 애지중지 갖고있던 매돌을 돌리며 온 집안에 즐거움을 주려는 어머니의 뜨거운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소. 당신은 꿈속에서도 고향의 발머리를 떠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을 왜 그리도 모르오. 엉!》

안해는 갑자기 엄해진 나의 목소리에 긴 속눈썹을 불안스레 떨었다.

가정을 이룬후 처음 큰소리가 나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눈굽에 물기까지 핑그르르 돌았다.

화김에 담배를 피워물자니 어디에 건사해두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한참만에야 담배를 붙여물고 연기를 비자루처럼 내뿜었다.

감정을 목새기느라 오르내리는 가슴속 한귀퉁이로는 자신에 대한 까닭모를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이게 안해의 잘못만일까? 나에겐 잘못이 없었는가?)

문득 명치끝을 따끔하게 허비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지난해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날 아침이었다.

신발장에서 의혁싼다루를 찾으니 보이지 않았다.

《여보 내 싹다루를 모르겠소?》

《아이 그 싹다루를 울여름에 또 신어요, 뒤창도 닳고 한군데 꿰맨것도 터져...》

언제나 남편의 차림새에 빈틈이 없는 안해는 새로 사둔 밤빛 새 가죽싹다루를 내여민다.

《그래 그 의혁싼다루 어쨌소?》

《내버렸어요.》

《아니 그건 아직 새거나 다름없는데 내버리다니?》

《참 당신은 지배인이라는걸 모르세요? 도에 회의두 자주 가시는데 그래 낡은 싹다루 신고 가시겠어요.》

안해는 해사하게 웃어넘긴다.

나는 《어험》 하고 헛기침을 깃었다.

출근시간에 더 어물거릴 사이가 없어 그 일을 책장넘기듯 넘겨버리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저 스쳐지나갈 문제가 아니였다.

확실히 안해에게는 저도 모르게 옳지 못한 생활관이 자라고있었다.

어느 일요일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식구가 도시구경을 떠나던 날에도 그러하였다.



할머니를 모셔온 기쁨을 안고 들까불며 쿵쿵 뛰는 아이들의 손목을 랑손에 잡아쥐고 미소를 띠우며 걷는 어머니를 뒤따라서 걷던 안해가 어느새 전차를 띠어보고 《전차가 와요. 정류소로 빨리 가자요.》 하였다.

《이 좋은 날에 전차를 타겠느냐. 걸어서 가자꾸나. 맑은 바람두 썩이구 좀 좋으냐. 어서 훨훨 전자꾸나.》

《어머니두 타시자요.》

한정류소사이길도 걸어서 가지 않고 전차를 타고가는데 습관된 안해는 전차를 타자고 우겼다.

걸음을 다우쳤으나 늦어져 전차가 떠나가버렸다.

안해는 다음번전차를 또 기다리자고 하였다.

《걷기두 해야지. 너희들처럼 살다간 발바닥에 털이 다 나겠구나.》

어머니는 우정 웃으며 말했지만 나의 귀에 따끔하게 들리었다. 아이들이 되려 할머니의 편에서서 손잡고 걷자고 나서서 우리는 그날 걸어서 가고 돌아올 때 전차를 탔다.

복받은 세상에서 나라의 혜택을 공기처럼 느끼며 살다나니 오늘의 이 행복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좋은 집을 쓰고 혈한 일을 하며 부럼없이 잘 지내니 우리의 살림살이가 빈터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 손으로 일떠세운 귀중한 재부라는것을 잊은듯싶었다.

그러다나니 아직 새것이나 다름없는 신발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오리길도 걷기 싫어하며 조금만 불편을 느끼면 짜증을 내고 매돌까지 돌리기 싫어하고...

이제 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하기 싫어하겠는가?

가슴이 섬찍하였다.

(나도 눈이 멀어졌군. 손톱눈 굼는줄은 알아도 염통이 굼는줄은 모른다더니...)

나는 조금 가책이 드는듯 낮빛이 온화해진 안해에게 말하였다.

《내 그러지 않아도 한번 말하려던 참이요. 당신은 무언가 좀 달라져가고있소. 자신이 어떤 생활의 터전우에서 사는지 모르고있는것 같단말이오.

한생을 손이 닳도록 근면하게 땅과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 세상의 모든것을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다니...무서운 일이오!》

안해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부엌에 나가보니 어머니가 미리 불귀놓은 떡쌀이며 두부콩이 비닐소랭이들에 가득히 담겨있었다. 불시에 죄스러운 마음이 눈굽을 짜릿하게 적신다.

커가는 행복에 도취되어 저도 모르는새 나도 할아버지며 어머니의 마음을 잊었던것이 아닌가...

나는 버치를 가져다놓고 매돌을 돌릴 차비를 하였다. 그때 눈썰미 빠른 홍이가 쪼르르 다가와 일손을 거들었다. 그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머니를 기쁘게 하려는 팔애의 마음이 기록하였다.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칭찬하였다.

《그저 우리 홍이가 제일이구나!》

아이들때문에 집안에 웃음이 핀다더니 다소 팽팽해졌던 우리 집안의 공기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부엌 한가운데 매돌을 옮겨놓았다.

어머니는 푸터분한 치마를 추스르며 일어서더니 벌로 일하러 나가던 그때처럼 허리춤을 꼭 조이었다. 어머니와 내가 마주앉아 손잡이를 잡고 돌리었다. 어머니의 주름깊은 얼굴을 마주 보기가 부끄러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이 불초한 자식을, 아이들이 다 크며 살아오면서도 제 녀편네 하나 홀바로 이끌어오지 못해 늙으신 마음에 괴로움을 끼친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정말 이럴땐 어떡하면 좋습니까?)

인젠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도 어머니앞에서만은 굳이 아이적 마음인 아들을 사려깊은 눈길로 여겨보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너는 후더운 마음을 글을 읽을수 있었다.

(오냐, 네 마음이야 내 모를라구. 아예미야 모르는걸 일깨워주면 되는거구.)

역시 어머니는 어머니였다.

열자식을 키워도 그 한자식한자식의 제나름의 성미를 다 맞추어 고스란히 의가 상하지 않게 자래우는것이 어머니가 아닌가!

어머니의 얼굴을 더는 마주 보기 피로와 안해를 불렀다.

《여보 이리 오오.》

안해는 주춤거리며 다가왔다. 어머니가 머느리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안해와 함께 망손을 잡고 돌리었다. 쌀알들을 줄금줄금 떠넣으니까 은가루처럼 보드라운 떡가루가 하얗게 갈려내린다.

나는 다소곳이 매돌을 돌리는 안해를 생각깊이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매돌은 내가 다섯살 나던 해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매돌이오. 땅을 분여반구 난알이 풍성해지니까 매돌 만들 생각을 했지...》

나는 가느스름히 두눈을 조프리며 어린시절의 추억의 쪽문을 열었다.

매돌을 만드는 할아버지곁에 다가서다가 정마치에서 튕겨나온 돌리가 눈에 들어가던 그 어릴

적이야기부터...

땅을 분여받고 누리던 우리의 생활은 행복의 한길로만 이어지지 않았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총을 메고 전선으로 나갔었고 할아버지는 군량미를 보내려고 어뜩새벽부터 벌에 나가군하였다.

준엄한 세월이었다., 마을에는 무시로 적비행기가 지나다가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쌀을 찢던 정미소와 발방아간마저 폭탄세례를 받아 날아나고 그자리는 큰 웅덩이로 움푹 패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 매돌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선에 쌀을 빨리 보내야 하였는데 큰 야단났다.

할아버지는 매돌을 또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화강석을 골라 지게에 지고 우리 집 살구나무 밑으로 날라들었다. 할아버지는 날이 원해지기 시작할무렵부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어떤 밤엔 해불마져 걸어놓고 돌을 쪼았다. 매돌은 만드느라 죽죽 마을의 집집에 나누어주었다.

온 마을 집집에서 매돌을 돌렸다.

벼를 베어 구들에서 말리워 매돌에서 한번 타개였다. 그런다음 절구에 찢으면 껍질이 쉽게 벗겨졌다.

어머니들은 가마가 넘쳐나게 밥을 해서는 주먹밥을 빚어 총탄이 튀는 고지들로 날라갔다.

전쟁이 일어난지 두해째 되는 어느 가을날이었다.

할아버지는 나까지 온 식구를 데리고 벼가울을 떠났다. 시퍼렇게 낫날을 세워가지고 네식구가 가는 들국화 핀 동쪽길에 얼룩이도 따라섰다.

할아버지네들은 뒤에 두고 내가 어깨를 들썩이며 앞서 뛰면 얼룩이가 발꿈치를 밟을듯 네 발을 쫓충거리며 따라오느라고 허를 빼물었다,

나와 얼룩이가 죽기나기로 뛰는것이 그리도 우스운지 《하하하, 허허허...》 웃는 웃음소리가 들가에 높이 울리었다.

전시의 그 어려운 나날에도 거름을 듬뿍 내고 김이 날세라 말끔히 매여 우리 집 벼는 유별나게 잘되였다.

허리를 굽히고 할아버지가 썩썩 낫날을 번뜩이며 앞장서 벼를 베어나갔다. 잠간사이에 한 배미를 베여넘겼다.

점심참을 가까이하고있는 그때 돌연히 청봉산 너머로부터 비행기의 요란한 폭음이 울려왔다.

《엎더라!》 하는 할아버지의 고함소리를 듣고 우리는 논두렁밑 벼물결속에 몸을 숨기었다. 여기저기서 광광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며 고막을 찢을듯하였다. 한참만에 가만히 눈을 떠보니 불길이 마을을 덮고있었다.

우리 집이 있는 어방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화일었다. 집에는 어른들이 매돌을 돌려 바수어

모은 쌀가마니들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수복한 두 눈썹이 푸뜩 곤두섰다.

《저 쌀가마니를...아무래도 내 가 봐야겠군.》

《아버님, 저 사지판에 어떻게 ? ...》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일없다. 전선에 보낼 쌀들이 불타는데 명칭해보고만 있겠느냐?》

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몇번이고 정답게 쓸어주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집쪽으로 내달았다.

하늘을 찢는 앙칼진 비행기의 폭음과 함께 떨어진 소이탄이 연거퍼 마을 곳곳에 불기둥을 치솟겨올렸다.

무서운 불바다였다. 금방 숨이 끊기는듯한 매캐한 연기며 끄을음내들이 먼 벌판까지 몰려와 코를 찔렀다.

이윽고 미국놈들의 비행기가 남쪽하늘로 꼬리를 사리었다.

마을로 들어간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가슴을 쥐어뜯던 나는 어머니의 손목에 매달려 마을로 뛰었다.

아직도 불길이 타래쳐오르는 집앞에 다달으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라문명 잘되는 마을사람들이 몰켜서있었다.

할아버지가 반나마 타버린 살구나무밑에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할아버지옆에는 폭격속에서 안아낸 난알무지들이 있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요. 어서...흑흑...》

나는 할아버지의 넓은 배적삼우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었다. 파편이 뚫고나간 가슴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엉겨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혼수상태에서도 내 목소리를 가려 들었는지 몸을 두어번 뒤재이다가 눈을 힘없이 떴다. 가까스로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용남아, 내가...없으니 이젠 네가...어머니의 일손을 돕거라. 벼를... 마저 베구 매돌을 돌려... 어서 전선에 ...》

할아버지는 몇번이고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머리를 외로 떨구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우리 집 논밭이 잘 보이는 뒤산기슭에 안장하였다.

집은 재더미로 되여버렸다. 나의 인민학교 2학년 국어, 산수 교과서며 학습장은 물론 불타버렸다. 마을사람들이 떨쳐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인민정권에서는 우리 집 일을 더 각근히 보살펴주었다. 모든것이 재가 된 집에서 우리는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집을 다시 지을 기초를 파다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찾아내었다. 벽체가 무너지며 깔리워 묻힌 매돌을 발견한것이다.

《야-매돌! 어머니 매돌이 있어요. 매돌이예요.》

나는 흙더미를 마구 손으로 헤치고 매돌을 끄집어내었다. 불에 그을려 새까매지긴 했지만 상한데가 없었다.

어머니는 무거운 매돌을 단꺼번에 움썰 들어올리었다. 매돌을 안고 오래동안 놓을줄 몰랐다.

매돌은 어찌보면 재무지를 들추고 억척같이 일떠선 우리 할아버지며 고향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곳곳이 일어섰다.

꼭꼭에 집이 불타서 의지할데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다. 싸우는 전선에 식량을 시간을 다투어 빨리 보내야 하였다. 그래서

집을 짓기전에 마당에다 멍석을 펴놓고 매돌부터 돌렸다. 한지에서 떨어진서도 전선에 쌀을 어김없이 보내려는 온 마을사람들의 불타는 마음을 안고 매돌은 웅글게 돌아갔다.

정전직후의 어느 봄날 낮선 군관 두명이 우리 집 마당가에 들어서서 내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가 달려나가다가 주춤 멈춰섰다.

반가운 그 군관손님들은 슬픈 소식을 안고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선것이다.

가방에서 내여든것은 아버지가 받은 번쩍거리는 훈장들과 하나의 봉투였다. 봉투안에는 아버지의 전사통지서가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눈물도 죄다 말라버렸는지 아무 말도 없었다. 다만 손님들에게 별식을 대접하려고 매돌을 돌렸다.

어머니가 돌리는 매돌을 보고 그분들은 눈물이 글썽해서 말하였다.

《참 신통히도 꼭같은 망입니다. 용남이 아버지는 놈들의 포탄이 우박치는 1211 고지 갯도안에서 저런 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갯도에는 그 매돌이 있습니다. 용남이 아버지 덕에 우리는 그 매돌로 두부도 해먹었지요. 참 재간이 있었습니다.》

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는 묵묵히 매돌을 돌렸다. 가슴속에서 불붙는 수만마디 말을 매돌을 돌리며 죄다 하는것 같았다.

매돌은 협동의 새 살림을 펴던 나날에도 마을에 기계방아, 떡방아가 우뚝우뚝 돌아가던 그때에도 오בות한 우리 집에서 돌고돌았다.

내가 고급중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떠나던 날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기사가 되어 고향마을로 찾아온 날에도 어머니는 이 매돌로 내가 좋아하는 떡도 해주고 수수지짐도 부쳐주었다. ...

문득 안해의 흐느낌소리가 방안의 단조로움을

깨뜨리었다.

나의 어린 시절이 흘러간 고향땅과 더불어 잊당아지는 매돌에 대한 이야기는 안해의 마음을 세차게 뒤번저놓았다. 고개를 숙인채 잠시 어깨를 들먹이고난 안해가 자책어린 음성으로 떠듬떠듬 말하였다.

《난...난...이 매돌에 그런 사연이 깃들어있는줄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도 몰랐어요. 오늘의 이 생활이 어찌 저절로 마련되었겠어요. 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걸 잊어버렸어요. 전 그저 제게 응당 차례지는 생활이구 행복인줄로만 생각하구...흑...》

나는 안해의 자책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깨우치는 심정으로 말했다.

《당신 말이 옳소. 행복한 우리의 오늘은 저절로 이루어졌거나 하늘에서 툭 떨어져내린건 더욱 아니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 우리의 전 세대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억척같이 마련한 것이요. 이것을 잊는다는건 제 생활의 근본을, 밑천을 놓는거나 같소. 그러구 그걸 잊지 말아야 우리는 더욱 운럭하구 행복하게 살수 있소. 그러니 나나 당신이나 이걸 늘 명심하며 삽시다.》

안해를 들으라고 하는 말이였지만 실상 그것은 나자신에게, 자신의 풀어진 마음의 탕개를 조이는 말이였다.

창문밑에 둘러앉아 뜨개실을 감고있던 어머니가 현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됐다. 이 늙은게 괜한 고집을 부려서 그러지 아예미가 그걸 몰라서 그러겠냐?》

《아니예요. 전 정말.》

《글쎄 이젠 됐다니까.》

안해는 떡가루를 다 돌려낸다음 매돌을 몇번이고 씻고 또 씻어 부엌의 제자리에 정히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며칠후에는 이름모를 꽃송이가 다문다문 박힌 새천으로 매돌모양의 보를 만들어 띄워놓았다. 그리하여 매돌은 우리 집안에서 당당하게 자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 집에서 매돌은 꼭 있어야만 하는 물건은 아니다. 방안가구는 물론 부엌세간도 그쥔하여 더 부러울것이 없는 온수난방집에 매돌이 없단들 무슨 대수랴.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바 우리 집에서는 그 매돌을 가보처럼 귀히 여긴다. 어머니만이 아닌 우리모두의 마음속에서 늘 돌고있어야 할 매돌이기에.

하여 보통날에는 돌지 않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에 매돌은 돌아간다. 흘러간 날의 잊을수 없는 추억들을 퍼내고 퍼내며 돌고 또 돈다.

시조

## 전변의 흐름

리일섭

### 물은 벌로 흘러도

수천년 세월 덧없이  
바다로만 흘러흐르던 레성강이  
새로 낸 물길 따라 물머리를 돌려  
연백이라 드넓은 벌을 찾아간다

강없는 벌방에 강이 되어  
꽃피날 새 생활을 떠시고 흐른다  
로동당시대 또 하나의 전변을 노래하며  
이 땅의 감격을 비껴담고 흐른다

세월을 더듬어 보면  
너 가닿는 그 어느곳에 어려있느냐  
터갈린 논판을 치며  
간절한 소원 한장 진정서에 답아  
장군님께 올리던 남연백 농민들 그 모습은

출렁출렁 3.8 선을 넘어온 그 생명수에  
벌보다 먼저 미역감으며  
고마움에 울고 웃던 력사의 그날은  
벌써 지나온 옛 이야기

오늘은 그 물길  
강으로 넓혀주신 수령님 사랑에  
다시다시 대지가 흐느끼는듯  
다시다시 산천이 흐느끼는듯

바라보면 벌써 물결우에 비졌구나

홍치며 설레일 이삭의 들판이  
벌마다 더 높아가는 만풍년로적가리  
가없는 대지의 그 모든 풍요함이  
노래 실고 웃음 실고 오가는  
유람선의 긴긴 배고동소리  
물길쪽에 척 올라앉은 로인들  
남시대끝에 푸들적 물려나오는 살진 잉어  
꽃피는 생활의 그 모든 부유함이

정녕 어버이수령님 열어주신  
만풍의 넓은 길을 따라  
우리의 농촌이 걸어온 영광의 자욱자욱  
세세년전 전해갈 대지의 영원한 노래여

이제 너의 물길, 너의 흐름 따라  
나날이 흥하는 생활의 전변을 떠실고  
우리는 식의주에 근심걱정 모르는  
자주적삶이 한껏 만발한  
휘황한 새 아침을 남먼저 맞으려니

오, 물이여 물이여 전변의 흐름이여  
너는 드넓은 벌로 흘러들어도  
우리는 가슴마다 행복의 젖줄기로 안고  
꽃피는 생활과 손을 잡았다  
빛나는 앞날과 마주 못는다

-지휘부 전망도앞에서-

## 불이 물을 이끌어

연연 2백리  
산을 허물며 계곡을 메우며  
뻗어가는 레성강 새 물길우에  
물보다 먼저 불이 흐른다

언땅을 녹이며 타오르는  
저 우등불만 불이라더냐  
아슬한 철골우에 훔날리는

그 용접의 불만 불이라더나

물길굴 열어가는 땅속

착암기 정날에도 번개치는 불

언땅을 파제끼며 휘둘러가는

삽과 곡괭이날에도 번뜩이는 불

불, 불이 타오른다

발파를 지휘하는

젊은 지휘관의 붉은 신호기에도

특식 준비로 드바쁜 중대식당

취사원 어머니의 칼도마에도

불, 불이 타오른다

구슬땀 뿌리며 뛰고달리는

처녀총각들 줄기찬 발걸음에도

산더미같은 흙을 밀어제끼는

불도젤운전수의 이글거리는 눈빛에도

그 어디서 먼저 타올랐느냐

천만의 가슴가슴에 일어 번저도

오로지 불붙인 발화점은 하나

농촌테제 완성의 그날을 밝혀

우리 당이 높이 추켜든 봉화이거니

이제 머지 않아 사람들은 보게 되리

이 불이 흐른 굽이굽이에서

푸른 물의 드넓은 흐름을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얻게 되리

빛나는 생활을, 크나큰 행복을

오, 당의 결심과 의지로 가슴 달구며

조국의 번영 위해 아낌없는

그 심장들의 열렬한 충성의 불이

물보다 먼저 물길을 열며 흐른다

영원한 풍년세월을 연백별로 이끌어간다

-해주런대 발파현장에서-

## 처녀는...

나의 눈길은 얼굴보다 먼저

처녀의 잔등에 쏠렸네

질통에 짙어진 흙짐이

그 작은 잔등에 무거워만 보였네

아니 글썄, 불도젤이 굴착기들이

산을 허물어 물길을 내는데

그 아슬한 수로의 비탈길로

처녀는 날듯이 장달음쳐 오르네

놀라워 다시금 쳐다보네

그 흙이 무슨 보탬이 되련만

저 혼자 물길의 흙을 다 안아낼듯

제 발걸음에 공사기일이 앞당겨지는듯

너무도 기특해 너무도 귀여워

마주 달려가 함께 받드니

복스런 두볼에 보조개 피우며

슛스러이 하는 말 더 가슴에 뜨겁네

-이 흙 한짐이 쌀 한짐이랍니다

아, 그제서야 나는 알았네

그의 발걸음이 왜 그리 가벼운지

그의 얼굴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

처녀는 물길에서 흙을 처내는것 아니라

풍년벌에 황금의 난가리를 쌓아가고있었네

-봉천런대 취수문 건설장에서-

## 땅우의 은하수

물이 흐르네

강물이 흐르네

수천년을 수억만년을

땅으로만 흐르던 레성강이

하늘로 치솟네 하늘로 날아흐르네

보아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아슬한 높이에 아득히 뻗어간  
물다리 은빛 물다리  
거기서 굽이치는 맑은 흐름이어

무엇이  
정녕 무엇이  
땅우의 레성강을  
그렇듯 그 거창한 흐름을  
저 하늘가에 이끌어올렸는가

정이월-  
불도가니마냥 끓는 가슴으로  
언땅을 녹이며 바위를 안아내며  
끝없이 뿜어올리던  
그 후더운 숨결의 흐름은 아니냐

물이 오면 고향벌에 물이 오면  
아버지 소식인줄 알겠노라고  
또박또박 써보낸 딸의 편지를 품고  
한밤 새워 웅벽을 쌓아가던  
그밤의 구슬같은 땀방울은 아니냐

떠받들었구나  
몰아치는 눈보라속  
갓 타입한 교각의 콩크리트를  
가슴과 가슴으로 감싸안았던  
그 청춘들의 불같은 심장이

떠받들었구나  
무너져내리는 봉락밀에  
동발인양  
제한몸 선뜻 내던  
그 병사들의 어깨가 강물을 떠받들었구나

정녕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그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땀과 지혜와 량심을 깡그리 쏟아바치며  
불타는 삶들이 새긴 무수한 위훈이  
그대로 하늘에 강을 열었구나

오,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  
만풍년의 새 전설 꽃피우며  
대지위에 영원한 은하수를 엮어놓았구나  
-청단련대 물다리 건설장에서-

## 어디서 그 어디서

김일규

씨불임 서두르며 차비새 바쁜 철  
아직은 버들개지 독아래 부푸는데

가만히 땅에 귀 기울여도  
하많은 속삭임이 마음을 휘젓고

조용히 눈을 감아도  
꿈같은 화폭이 아롱지니

어디서 속삭이는 소릴가  
그 어디서 보게 되는 화폭일가

씨앗은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싹이 트고 아지치는 그 소리...

갈아엮은 흙발아래 살얼음이 녹는데

눈을 감아도 펼쳐지는 만풍년든 누런 들판...

지난해, 그전해도 그랬지마는  
올해따라 마음속에 류다르게 찾아드는

아, 그 꿈은 어디서 이어질가  
그 속삭임은 어디서 들려올가

즐거워, 나날이 흥겨운 코노래를 못이겨  
내 눈길들어 바라보는 저기 들끝을 감돌며

출렁출렁 새로 켜 물길따라 흐르는 물이  
우리 당의 끝없는 사랑을 안고 흐르는 물이

내 마음에 손짓하며 더 좋은 꿈 꾸라누나  
래일은 더 큰 행복의 속삭임을 들으리라누나

## 고향과 위훈과 병사

김형준

### 고향에 경례를!

오, 잘 있었느냐  
내 고향 신계미루벌아  
꿈엔들 잊었으랴  
내 초소로 떠나던 날  
비료치던 벼들이 달려나와  
나를 바래주던 그 아침을

어깨에 불타던 붉은 령장이  
량불을 더욱 붉게 물들여줄 때도  
령장우에 군사칭호 늘어날 때도  
생각했다 나는 생각했다  
풍년든 내 고향 미루벌의 황금빛이  
어깨의 령장에 잇닿아있는 고향의 마음인줄

뜸부기도 머리로 낮추 날며  
곱지 못한 제 목소리도  
추억의 갈피에 새겨달라던 고향땅에  
내 오늘 물길을 열며 달려왔다  
바위를 뚫고 산협을 에돌아  
남강의 물줄기 이끌고 이끌고...

내 군사복무의 나날 깊이 깨달았노라  
병사의 모표와 령장에 물결치는 황금이삭  
그 이삭의 뿌리 고향땅 생명수에만 아닌  
내 가슴에도 닳처럼 깊이 내려  
이삭은 그리도 무겁고  
고개는 그리도 깊이 숙여졌거니

내 어찌 잊었으랴  
샘뜰논집 막내가 초소로 떠난다고  
온 마을이 경사인듯 바래주던 아침  
논둑따라 걷던 발걸음 멈추고  
물새던 돌돌이 물구멍 막을 때  
논물관리원 할아버지의 그 말을

물길을 열며 바쳐온 병사의 작은 땀방울을  
고향은 황금벌로 빛내주고  
조국은 또 하나의 푸른 강줄기로  
병사의 이름인양 지도에 새겨  
흐르는 물과 흐르는 세월에 실어  
영원히, 영원히 전해주리니

-돌돌이 물구멍을 막는 그 마음 있어야  
적의 화구도 선뜻 막을수 있지! ...  
오늘도 삼밭을 세워든 할아버지  
대견스레 나를 바라보는 그 눈가엔  
온 미루벌등판의 푸른 물을 보는듯  
기쁨에 한껏 웃고있구나

사랑하는 내 고향 미루벌이어  
이 아들의 인사를 받으시라  
고향 떠난 이 나라 병사들이  
위훈없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던 언약  
내 오늘 남강물줄기를 거머쥔 손을 들어  
오! 고향에 경례를 보낸다

### 추억의 작은 배

이른아침 수로에 나서니  
학교가던 아이들 띄웠는가  
대양을 건느느 돛배와 같이  
나를 향해 마주오는

종이배 종이배...  
  
내 나이를 잊은듯  
가던 길 잊은듯  
나의 심혼마저 실은 종이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신고와  
내 마음에 닳을 내리누나

애들아 나도 너희포래때  
수로에 넘치는 내 고향 물자랑  
종이배에 실어  
머나먼 남강으로 떠나보내며  
수업종이 올린것도 잊기를 몇번...

얼마나 실어보냈던가  
아버지가 영웅된 소식도  
내 동생 순정이 태어난 행복도  
내가 쓴 서투른 동시가  
학교벽보에 난 기쁨도

그날의 기쁨 종이배에 실러

남강으로 남강으로 흘러갔지  
다시 올줄 모르는 세월처럼...  
되돌아올줄 모르는 물처럼...

허나 흘러간 세월은 영영 갔어도  
그날의 물만은 가지 않았구나  
우리 수령님 남강언제를 막아

종이배 신고 흘러간 물  
되돌려 내 고향에 보내주셨거니  
종이배에 실어  
그날의 추억도 되돌려주셨구나  
강을 기울여  
또다시 영원한 사랑의 생명수를  
내 고향에 보내주셨구나

## 땅의 피줄기

-대형잠관 건설장에서-

립춘의 마지막 추위를 이겨내며  
300 메터 잠관공사 끝낸 저녁  
병사들은 천막안에서  
혼곤히 깊은 잠 들었구나

이때라 병사들의 잠을 지켜  
언진산은 찬바람막아 키를 솟구고  
별을 감돌던 푸른 안개  
포근한 이불인양 천막을 감싸는데

립춘전에 끝내려던 잠관공사  
오늘로 말끔히 끝냈으니  
병사들아 네활개 쪽 펴고  
물소리 베고 풍년꿈꾸며 잠자거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더나  
한메터 한메터 이어가던 잠관에  
남강의 물소리 울리기 위해  
풍년별의 노래를 주기 위해

때로 허리치는 찬물속에 빠져도  
웃으며 추위의 고비넘긴 병사들

남을 위해 피워놓은 우등불은  
저절로 사위기를 그 몇번...

정녕, 그대들은 그대들은  
땅에 생명수만 주지 않았다  
그대들의 심장에 뛰는 후더운 피가  
땅속에 묻힌 잠관에 활력을 주었거니

무정한것 땅이라고 말 말자  
젖먹으며 자란 자식 어머니를 못잇듯이  
주는 사랑 크면 클수록  
몇갑절로 갚는것이 땅이 아닌가

이제 미루벌이 잠을 털고 일어나리  
그러면 병사들 이어준 땅의 피줄기로  
만풍년 푸른 숨결 한껏 호흡하며  
이 벌에 만풍년의 웃음 안아오려니

대지는 뜨거운 피줄안아 큰숨 쉬고  
병사들은 전우에게 피를 나눠준 행복인양  
땅을 그러안고 깊은 잠 들었구나  
마치 어머니품에 안긴 아이들처럼...

## 물따라 오는 정

경사로다!

미루벌 굽이굽이들아



백리물길따라 남강이 오더니  
그 물길 타고왔나  
남강마을 양수공처너  
오네, 미루벌 총각따라 시집오네

어제날 이고장 사람들  
빼기발 미루어버리고  
물을 찾아 떠났다는 미루벌  
석새베옷 한벌 레장감 없어도  
물동이 드레박 가지고 왔다던 고장에  
오네, 양수공 평양처너 시집오네

눈물만 푸던 드레박고장에

행복과 기쁨을 퍼낼 양수공처너  
한숨만 고이던 물동이 대신  
바다같은 남강 언제의 푸른물을  
후한 레장감으로 앞세워 보내고  
오네, 선녀같은 평양처너 시집오네

얼마나 좋으나 이날 이 풍경  
어제날 서호호, 은파호 물결타고  
재령처너 봉산애기들이 오더니  
오늘은 한가정 주부만이 아닌  
미루벌을 안아키울 생명수안고  
오네, 평양처너 시집오네

## 우등불, 네 홀로 탈때

리용

우등불  
우등불이 타네  
북풍은 태질하고  
진눈까비 차거운데

험준한 산밭넘어 송전선 늘어가며  
철탑우로 나래쳐오른 젊은 수리개들  
흘날리는 솜옷자락에 고드름이 엉킬때  
끝짜기 저-기 타오른 우등불

말하라 우등불 우등불아  
언제까지 홀로 네 홀로 타러는가

그만 내려오라고  
내려와 어서 몸을 녹이라고  
너울너울 우등불은  
제결으로 부르건만

간절한 그 기다림 아는가 모르는가  
먼공간에 부딪치는 바람결소리뿐  
수리개들 더 멀리 하늘로만 날으네  
그러니 어이하라 버림받은 우등불

활활 타는 우등불 야속한 우등불아  
외로이 홀로 탄다고 나무람 말아다오

이글거리는 장작불이 그리울바에야  
고향집 아래목이나 지키고있지  
무엇때문에 값높은 청춘의 이를 걸고  
바람거친 이 산중에 배낭을 풀었으랴

귀기울이면 전류의 세찬 흐름소리  
이 송전선이 가닿는 한끝  
새 탄전의 개발지에 새 화학공업지구에  
눈부시게 피여날 불야성 불노을  
은빛 송전선넘어 밝아올 그 아침이  
젊은 가슴의 피를 끓여준다.

청춘이란 인생의 불  
그 시절이 목적과 지향으로 타오를 때  
그보다 뜨거운 불 세상에 없으리  
추위가 무엇이랴  
터지는 북풍도 한낱 자연의 휘파람인걸 !

아, 우리 당이 키운 청춘들  
꿈을 안고 벅찬 래일을 안고  
화창한 봄날을 즐기는듯  
고드름을 툭툭 털며 웃음꽃 날리거니

기다리는 우등불아 섭섭해 말아다오  
이 심장의 불길이 온 하늘을 태우거니

## 인간본보기로서의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적성격과 그의 형상

윤종성

70~80 년대에 우리의 소설문학은 새로운 인간 전형을 형상화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대전성기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였을뿐아니라 인류의 현대문학발전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심각한 시대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최근에 높이 평가하신 장편소설들인 《빈터우에서》(김보행작), 《철의 신념》(김리돈작), 《뜨거운 심장》(변희근작), 《빛나는 아침》(권정웅작) 등은 그러한 문제작의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이 소설들이 공산주의 인간학의 훌륭한 모범으로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시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공산주의미래의 유일한 인간본보기로 되고있는 로동계급을 기본으로 내세우며 혁명가로 자라나는 보통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하여 시종일관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의 기본과업을 문학예술에서 옹호하게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다.》**

이 소설들에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리상을 체현하고 있는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이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창조되어있으며 그러한 인간전형이 어떠한 토양에서 어떠한 자양분을 받아 자라날수 있는가를 독자들로 하여금 심장으로 감득할수 있게 묘사되어있다.

이 소설들에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에서 기본이며 본보기로 되는 로동계급의 전형,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지식인의 전형,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중추로 되고있는 당의 의지를 체현한 당일군의 전형이 묘사되어있다.

이러한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이 독자들속에서 일으키는 커다란 공감과 애착의 매력은 어디에서 오는것이며 이 소설들의 바로 무엇이 현대문학발전을 위하여 던지는 심각한 문제성으로 되며 우리 문학예술을 우리 식이라고 부를수 있게 하는 근거를 주는것인가?

### 1. 주인공들이 찾은 생활의 진리

이 소설들이 독자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공감과 애착심을 일으키는 사상에술적매력은 주인공들이 찾은 생활의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낀다. 이것은 하나의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또한 자기가 아는것만큼 생활에서 보람을 찾으며 요구하는것이다.

그러나 생활의 참다운 보람은 단순한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적실천속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탐구를 통해서 발견되는것이다.

주용녀, 로장섭, 신철민, 강병철- 이 주인공들은 계급적출신과 사회적직위, 지식정도에서 각이 할뿐아니라 각기 자기에게 고유한 개성적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혁명적실천속에서 사회정치적생명을 얻었으며 하나의 공통한 생활진리를 찾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찾은것은 무엇보다도 삶의 참다운 의의인것이다.

겨우 문맹을 퇴치한 《몸매작은》 로동녀성 주용녀나 지성세계에 속하는 강병철이나 할것없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다 개인의 공명출세, 물질적만족에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행복한 생활, 우리 민족의 룡성변영, 인간의 존엄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 삶의 보람은 하나의 유일한 구심점을 찾았을 때 완전한 발견으로 되여 신념으로 된다.

《장군님, 너무 넘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 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습니다. 해방후에 일제놈들이 그렇게 마사놓고간것도 우리는 장군님 말씀대로 복구해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도 미국놈들이 파괴한 용선로랑 복구해보니 그리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 살수 있습니다. 복구건설은 우리가 할테니 너무 근심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힘있는 말을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위대한 수령님

게 아무런 주저없이 말씀드린다. 그러한 신념, 그러한 대담성, 그러한 친근성, 그러한 힘이 어디에 깃들어있었으며 어디에서 생겨났던 것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살아온 생활이 그에게 준 것이다. 위대한 태양의 은혜로운 빛과 열은 불모지에 생명이 움트게 하며 위대한 사랑의 품은 사람의 가슴속에서 인간성과 지혜를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용너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만 하면 모든것이 이루어지며 수령님께서 제시면 만사가 다 바로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이며 수령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 그 언덕에 보답하는것을 최고의 인간적도리로, 평생의 소원으로 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참다운 삶을 찾고 새로운 생활과 역사를 창조해가는 이 나라의 수백만 주용너들은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이 체질로 되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데서 삶의 참다운 의의를 찾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가 있고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있다는것을 그들은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로장섭, 황순동, 최갑동, 장범도, 김석철이 바로 그러한 참다운 삶의 의의를 찾은 노동계급의 대표자들이며 신철민, 리영삼, 김형운 등이 그러한 생활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자신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바쳐나가는 당일군들인 것이다.

강병철은 고등교육을 받고 현대기술의 첨단에서 활동해온 지성인이다. 그는 넉넉한 가정환경과 소유한 기술지식의 덕으로 문화적이고 유족한 생활을 맛본 사람이다. 그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유족한 생활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새로운 생활에 대한 탐구도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인간다운 참다운 생활을 찾지 못하였을 것이고 인민의 역사에 아무런 기여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물질적요구가 아니라 량심에 가책이 없는 정신적안정, 식민지민족의 지성인 된 의무감에 만족을 줄수 있는 참다운 삶, 인생의 의의를 탐구하여 일본땅을 해매였고 해방직후에는 미제강점하의 남조선땅에서 방황하였으며 마침내 북조선에서 그가 필생의 목표로 삼았던것을 찾았던 것이다.

그의 이 탐구과정은 결코 험치 않은 것이다. 강병철이 이 험치 않은 탐구의 길에서 승리자로 될수 있는 성격적특질과 근본요인을 작가는 원시법의 성격과의 대조속에서 실감있게 묘사하였다.

원시법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강병철은 자기를 강그리 바칠수 있는 보람있는 사업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도 만나뵙게 되었을 때 위대한 인물,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만이 위대하고 보람있는 사업을 줄수 있다는것을 깨달은 동시에 의의있는 생활을 찾기 위하여서는 참다운 위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강병철은 생활의 진지한 탐구자라는 개성적특성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해방직후의 복잡했던 정황들은 낯은 지식인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가 생활에서 부닥치게 된 그 모든 난관들을 이겨낼수 있었던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나갔으며 그에 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고있었기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강병철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과 믿음을 가슴뜨겁게 받아안게 되기때문에 수령님을 위하여 한생을 바칠 충성의 결의가 굳어지는 것이다.

강병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철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바꿀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접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장군님께서 지니신 품성과 인자함을 다만 자기의 과거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합금로에서 저지른 과오를 아량있게 용서해주시는것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면 만민에게 베풀어지는 그이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찬란한 해빛의 한줄기가 그에게 와닿았던것이라는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일제와 자기자신이 만든 캄캄한 지옥으로부터 단연 광명의 줄기를 붙잡고 밝은 세상으로 뛰쳐나가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웨치는 것이다.

강병철은 마침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고 인간을 그토록 믿으시는 그분! 사랑이 있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 사랑이 값높은 그 숭고한 사상, 그것은 온 겨레를 하나의 조침에로 단합시키는 구심점이며 견인력이다. 그 기둥을 나는 붙잡았다. 그 정신적지령점에 의지해서 나는 동요와 불안을 모르고 한생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인생목적탐구의 명마루, 행복의 절정에 오른 것이다.

주용너나 로장섭 등이 그렇게도 빠르고 직선적인 길을 통해서 찾은 그렇게도 단순하고 명백한 삶의 참다운 의의를 강병철은 것처럼 간고하게 애돌아 찾았던 것이다.

독자들은 소설의 주인공들이 찾은 삶의 참다운 의의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모범을 그들의 모습에서 찾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 사업과 투쟁, 극복해낸 난관들, 극절많은 생활로정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부정

의, 허위는 반드시 멸망한다는것, 인민대중, 민족을 위한 혁명적량심은 응당한 보수를 받게 된다는것,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은 온갖 리기주의, 개인주의 등 비인간성과의 투쟁에서 비록 일시적인 시련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에 가서는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된다는것 등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는것이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주인공들의 투쟁과 랑만과 보람으로 충만된 생활을 통해서 인류의 최고리상인 인간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향하여 드팀없이 전진하고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는것이며 그들처럼 순결하고 충실하게 수령과 당을 위하여 살아가리라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것이다.

## 2. 인간성격형성과 주체의 혈통

창작가의 의도,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성은 결국 인물의 성격형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인물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그의 세계관이다. 이로부터 인물의 성격을 그리는 창작가의 주의는 그의 세계관형성과정에 돌리지 않을수 없다. 수천년동안 창작가들은 인간성격을 창조하였으며 거기에서 독창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심하였다. 그리하여 걸출한 진보적인 작가들은 자기 시대의 주인공들이 가진 성격적특질을 훌륭히 형상화하였던것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는 새로운 형의 인간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이 새형의 인간성격을 형상화하는것은 현대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우리 문학은 이 시대적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우에서 레로 든 《빈터우에서》, 《철의 신념》, 《뜨거운 심장》, 《빛나는 아침》 등 장편소설들은 새로운 인간들, 즉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성격적특질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하는것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수있다.

사람들에게 혁명의식이 박히는것은 오랜 시일이 걸려서만 되는것이 아니며 반드시 큰 투쟁에 참가하여야만 되는것도 아니다. 외래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이나 전쟁에 참가해야만 혁명의식이 생겨나는것도 아니며 혁명가로 될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다. 보통사람의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를 위한 창조적인 로동과정에서도 혁명적세계관이 설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식이 생기는 과정도 달라질수 있는것이다.

우에서 레로 든 소설의 주인공들은 위대한 수

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신 조국땅우에서 새조국건설을 위한 투쟁과정에 그리고 전후 인민경제의 복구건설투쟁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면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체득하고 혁명적수령관을 세운 주체형의 인간들이었다.

이들은 사회발전, 계급투쟁에 관한 법칙, 애국애족의 사상,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사상,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사회적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상 등을 그저 일반적으로 종래의 관점에서 리해한것이 아니라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차원에서 파악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의 운명이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어있다는것을 깨닫고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으로 된것이다. 그들은 개인의 사회적자유와 행동, 개인의 행복과 영예우에 사회정치적생명을 올려놓았으며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단순히 령도자와 령도를 받는 대중의 관계로만 리해한것이 아니라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로 련결된 혈연적관계로 체득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실생활을 통해서 즉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주인공들이 체득한 진리이다. 주인공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자기자신들이 또한 과거와는 다른 새형의 인간, 주체형의 인간으로 재생하게 되었던것 이다.

주체형의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은 그들의 정신에 맥박치고있는 주체의 혈통에 있으며 주체형의 인간의 탄생은 사람들이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는데서 이루어지는것 이다.

사상적혈통은 사상의 창시자에게서 시작되는것이다. 주체의 사상적혈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새형의 혁명가들을 육성하심으로써 이루어졌다.

소설의 주인공들이 주체형의 새 인간들로 재생할수 있었던것은 그들이 자기 부모에게서 받은 피줄이나 사상으로 해서도 아니며 그 어떤 제나름의 진리를 깨달았기때문도 아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주체사상의 진수를 체득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회적실천속에서 사회적정치적생명을 가질수 있었기때문에 주체의 혈통을 이을수가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주체형의 인간으로 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그들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그저 단순히 깨닫고 실천에 옮긴데 있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젖줄기와도 같이 주체의 혈통을 받아안고 아버지수령님과 당에 의하여 애지중지 육성되었다는것이며 수령님과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조직적관계에 그치는것 이 아니라 육친의 정,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로 결합

된 관계였다는것이다. 주인공들과 수령님사이에는 조직사상적결함만이 아니라 거기에 친부모자식간의 관계와 같은 혈연적관계, 정신도덕적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끊을수 없는 혈맥을 이루고있으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주체형의 인간들의 성격의 본질을 주체의 혈통에서 찾게 되는것이다.

수령님과 주인공들의 관계, 나아가서 수령님과 전체 조선인민과의 관계에서 본질을 이루는 이 주체의 혈통은 력사에 의하여 형성된것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지워버릴수 없는 엄연한 력사적사실이다.

조선인민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할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희망의 등대였고 유일한 구성이었으며 남너로소 할것없이 온 겨레가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품에 안기기를 바라마지 않은 자애로운 어버이품이었었던것이다. 생명가진 만물이 태양을 따르듯이 조선민족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따르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조선사람들은 그 민족수난의 시기에 구원의 손길을 뻗친 령도자를 단순한 지도자로만 대할수 없었고 어버이로, 혈육으로 모시게 된것이며 충성과 의리로 그 은덕에 보답할 각오를 가지게 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조선인민의 이러한 관계는 우리 민족이 처했던 특수한 사정파도 관련

되지만 거기에는 인류의 종국적해방, 인간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반드시 찾아줘야만 할 보편적진리가 있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설에 묘사된 주체형의 주인공들의 성격은 그 본질을 이루고있는 주체의 혈통에 의해서만 리해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현명한 령도의 기초에는 민족, 인민, 인간에 대한 뜨겁고도 참다운 사랑이 놓여있다. 그렇기때문에 강병철은 무슨 과학기술적담보는 없었지만 신심과 긍지에 넘쳐 인명피해를 주지 않는 제강법을 연구완성하겠다고 수령님앞에 맹세하였으며 또 그것을 수행하였던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상식로서는 불가능한것도 능히 해결할수있는 창조력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동자와 농민, 기술자와 일군들, 모든 근로인민대중을 지도하여야 할 대상으로만 보시는것이 아니라 혁명의 동지로 보시고 혁명적의리로 대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범한 강선의 노동계급과 기술자들에게 《그래두 동무들은 나를 믿는단말이지... 고맙소. 동무들, 나도 동무들밖에 믿을데가 없소, 장

섭동무, 나는 동무들을 믿구 동무들은 나를 믿구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나가자구.》라고 하신다.

이러하신 수령님을 모시였기때문에 로장섭을 비롯한 강선의 노동자들은 수령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생의 목적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장범도와 같은 황철의 노동자들은 자기아들이 부서본위주의적으로 생각하던 나머지 수령님의 하해같은 은정을 잊어버렸다고 가슴아파하며 죄스러워하는것이다.

주용녀만이 아니라 우리 인민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육체적생명까지 재생시켜주신 어버이로 생각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주용녀가 수령님의 품에 안겨 수령님의 신임을 안고 사는 우리 인민에게 죽음이란 없다고 생각하며 《...언제면 단 하루라도 편히 쉬실수 있을가, 수령님, 이 몸이 쓰러져 한줌의 흙이 된다 해도 맹세를 기어이 지키겠습니다.》라고 속다짐할 때 독자들은 그의 사상감정에 전적으로 공감하는것이다.

소설의 주인공들, 주체형의 인간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으로 생각하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감동할 때에는 언제나 혈육의 정을 느끼는 사상감정, 바로 이것이 그들의 성격, 정신도덕적품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특성으로 된다. 이 특성이 다름아닌 주체의 혈통에서 흘러나오는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개조의 목표는 사람들을 주체형의 인간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이러한 인간개조의 힘은 주체형의 인간에게만 있다. 따라서 주체의 혈통은 인간을 개조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또한 주체의 혈통이 기적을 낳을수 있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낡은 세계에서 물려받아 고칠수 없는 고질로 되어버린 리기주의도 주체형의 인간들속에서는 건디지 못하며 종당에는 와해되어 새로운 인간탄생의 밑거름으로 된다.

《철의 신념》에 등장하는 서근팔은 그러한 리기주의자의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그러한 그도 종당에는 가열로를 지켜 생명을 내놓는것이다.

소설들에는 이와 같이 주체의 혈통이 과거사회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성격의 인간들, 주체형의 인간들을 탄생시켰을뿐만아니라 고질적인 리기주의자도 아름다운 인간으로 개조할수 있는 만능의 창조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 3. 노동계급의 새로운 성격

세계문학사에서 사회적치지개선을 위하여 계급투쟁을 벌리는 노동계급을 묘사하려고 한 첫 시

도는 줄라(프랑스)의 장편소설 《제르미날》에서 표현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줄라는 로자칸의 모순이 불상용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을뿐 그 해결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서 루공-마파르일가의 피줄을 이어받은 한 로동자의 특수한 생리적기질을 보여주었을 따름이다.

그 이후시기 로동계급형상주제의 소설작품들에 묘사된 로동계급은 현대생산과 련결된 무산계급으로서 선진사상을 가지고있고 혁명성과 단결이 강하며 사회의 다른 피착취, 피압박계급, 계층들을 사회혁명으로 이끌고나갈수 있는 계급이라는 데서와 주권을 잡은 다음에는 사회주의국가의 운명과 장래발전에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으로 형상하였다.

시대는 변화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이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확대심화되고있는 현시대에 있어서 로동계급앞에는 한 나라안에서 온 사회의 자주화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해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현대제국주의는 그 어느때보다도 공산주의리념과 사회주의제도에 악랄하게 도전하고있으며 저들의 운명을 멸망에서 건져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이러한 사회력사적환경에서 로동계급은 모든 자주세력을 령도하여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판가리싸움에서 최후승리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계급이 이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상적각오, 혁명적세계관이 더욱 심화되여야 하며 그 단결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교양되고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주체형의 인간본보기로 자라났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있을뿐만아니라 전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기여하고있다.

우리의 문학은 이러한 새형의 로동계급, 주체형의 로동계급을 훌륭히 형상하고있으며 우에서레로 든 장편소설들은 주체형의 로동계급형상에서 대표적인 성과작으로 되는것이다.

이 소설들에 형상화된 로동계급의 성격에서 새로운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형의 새 인간의 전형이라는데 있는것이다.

주체형의 인간의 성격에서 기본이며 핵으로 되는것은 혁명적수령관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는것 이다.

혁명적수령관을 가짐으로써 로동계급은 원래 그에게 고유한 선진사상, 혁명성, 단결력을 더욱 높일수 있는것이며 혁명실천에서 그것이 기적적

인 창조력을 날게 하는것이다. 혁명적수령관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됨으로써 로동계급은 사회정치적생명체로서의 혁명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게 되며 따라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의 계급의식에 도달하게 되는것이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함으로써 로동계급은 수령과 계급, 대중의 호상관계, 계급내부성원호상간의 관계의 본질을 투철하게 인식하게 되며 그러한 인식에 기초한 혈연적뉴대, 유기적단결을 이룩하게 되기때문에 그 순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정신도덕적순결성에 도달하게 되며 그로부터 기존상식으로써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무진장한 창조력을 가진 집단으로 전환되는것이다. 혁명적수령관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됨으로써 로동계급은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게 되며 혁명적량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생명이나 공명출세보다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 혁명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게 되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인생최고의 목적, 최대의 행복으로 삼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성격적특질은 주체형의 인간의 누구에게나 고유한것 이지만 로동계급이야말로 이러한 성격적특질을 가장 순결하게 체현하고있다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로동계급은 그의 사회계급적처지의 특성으로 해서 가장 곧바른 길을 통해서 혁명적수령관에 도달할수 있으며 그길외에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할 다른 길이 있을수 없기때문에 혁명적수령관이 가장 철저하고 깊이있게 설수 있기때문이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 《철의 신념》, 《뜨거운 심장》 등에 묘사된 주체형의 로동계급형상이 이것을 잘 립증하고있는것 이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주용녀, 황순동, 로장섭, 장범도 등은 다 생활을 통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현명성, 아버이의 정을 체험한 사람들이며 그로부터 그들은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을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수령님께서 주시는 과업을 어떤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한다는 불같은 결의에 차있으며 수령님의 은덕과 신임에 보답하는것을 최상의 영광, 행복으로 생각하는것이다.

주용녀에게 만약 이러한 혁명적수령관이 없었다면 자재도, 설비도, 기술도, 경험도 부족한 형편에서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심을 할수가 없었을것이다. 이 몸이 쓰러져 한줌의 흙이 된다해도 맹세를 기어이 지키겠다는 각오가 없었다면 사방에서 밀려오는 온갖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을것이며 더우기 허약한 그의 육체는 그 파중한 부담을 감당해내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수령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가장 깨

곳한 충성심을 간직하고있었기때문에 온갖 타산에 앞서 무조건적으로 양수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립장에 섰으며 자재문제에서 풀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였을 경우에도 강제 한톤, 세멘트 한톤을 수령님께서 직접 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령님께 손을 내민 자기의 행동을 용서할수 없는 범죄행위로, 의리를 저버린 배신행위로 낙인하고 것처럼 심각하게 뉘우치는것이다.

주용녀와 똑같은 사상감정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주용녀에게 《제의서》를 들려 중앙에 올려보낸 나이많은 세포위원장 황순동은 자기 행동을 씻을수 없는 사상적과오로 인정하고 어찌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자기의 충성심에 때가 묻었는가 하고 몸부림치는것 이다. 노동자들은 수령님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있고 자기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곳에 수령님께서 계신다는것을 생활의 순간순간에 절감하게 되며 그것으로 해서 행복과 희열을 느끼며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지고 기적적인 창조와 혁신으로 세월을 주름잡으며 찬란한 미래에로 달려가고있는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해서 로장섭을 비롯한 《철의 신념》의 주인공들은 6만톤 공칭능력의 압연기에서 12만톤을 밀어냄으로써 강제 1만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숭고한 바라심에 만족을 드리는것이다.

로춘섭이가 6개월간의 로동생활을 통해서도 심장으로 느끼게 되는 로동계급에게 특유한 숭고한 의리, 세포위원장 한중석이가 로동계급의 순결성,로동자들은 한집안식구라고 하는 말속에서 울려나오는 로동계급의 내적구조에서의 순결성과 혈연적누대,《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에서 표현된 로동계급의 자기의 력사적사명에 대한 고도의 자각-이 모든것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서만 생겨날수 있는것이다.

혁명적수령관은 사람들, 특히 로동계급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높고 풍부하고 순결한것으로 만드는것이다. 바로 그러한 높은 정신세계,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졌기때문에 평범한 로동자 로장섭은 금 몇톤으로는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념을 절대로 사울수 없으며 우리자신의 신념을 금 몇톤하구 바꿀수 없다고 하면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방해하는 해독분자들을 단호히 물리치는것이다.

바로 그러한 혁명적수령관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기때문에 김석철, 장범도 등 《뜨거운 심장》의 등장인물들도 용광로개건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다.

우리의 로동자들이 체현하고있는 혁명적수령관은 수령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단지 령도자와 대중의 관계로만 보는것이 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혁명동지, 친혈육인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로 느끼는 사상감정인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상감정을 성격적행으로 하고있는 로동자의 전형형을 형상화한것이 이 소설들, 나아가서 우리 문학이 달성한 특출한 성과로 된다.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로동자전형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우리는 아직 다른곳에서는 보지 못하였다.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새로운 성격적특질을 예술적전형으로 형상한 바로 여기에 이 장편소설들의 사상예술적매력도, 현대문학앞에 던지는 그의 문제성도, 그리고 우리 식 소설의 기본특징도 집약되어있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 4. 현대문학과 우리 식 문학

현대문학앞에는 결정적으로 생활에 대한 낱은 관점, 형상의 낱은 틀에서 벗어나 새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인류에게 오늘에 대한 확신, 래일에 대한 낙관을 안겨주어야 할 시대적과제가 놓여있다. 개인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여서는 아무리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부르짖어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를 남길뿐이다. 개인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할 때에는 개인을 중심에 놓고 그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화하고 모든것을 **그**에 복종시키게 되므로 개인을 사회, 집단과 대치시키지 않을수 없으며 그 대립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모순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개인은 타인에 대한 지배에서 만족을 느끼든가 아니면 슬픔과 고독, 비판과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현대문학은 이러한 개인주의적생명관에서 벗어나 날 때만이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현대문학의 이러한 전환은 하나의 거대한 력사적변혁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현대문학의 이러한 혁명적전환에서 우리의 주체문학은 그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는 해불로 되며 참다운 긍정적인 인간전형창조에서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인류의 진보적문학의 귀중한 유산가운데서 좋은것들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우리 식으로 발전풍부화한 우리식의 문학이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여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인간의 운명을 형상화하는데서 종래의 그 어떤 문학과도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식의 문학인것이다.

우리의 주체문학에서는 인간에게 귀중한것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이라고 보며 사회정치적생명의 원천은 개인자체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체에 있다고 보는것이다. 따라서 우

리의 주체문학에서는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근본문제를 언제나 인간의 사회정치적생명체와 연결시키는것이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바로 이와 같이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문제를 다루기때문에 그 형상방법에서도 우리 식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는데있다.

구성에 있어서는 인간자주성의 승리과정, 참다운 인간성의 승리과정으로 되게 하며 자주성을 위한 격렬한 투쟁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에 가서는 낙관적인 종말로 되는것이 특징이다.

묘사에 있어서는 생활론리, 성격론리를 철저히 추구하면서도 인정이 인간의 사상감정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력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는것이 우리 식의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우리 식의 소설은 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준엄하게 원칙적으로 그리지만 총적으로는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안겨주는 파사로운 인정미를 느끼게 하여주며 비판이 아니라 낙관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어둠이 아니라 광명을 느끼게 하여주는것이다.

생활의 낙관적법칙을 인간성, 인정미를 통해서 묘사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속에 혈연적으로 결합되어있는 개별적개인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그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구로 되지 않을수 없다.

우리 식 소설에서는 그러한 인정선이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의 주인공 주용녀가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초인간적인 인내력으로 육체적고통을 이겨내다가 마침내 병석에 누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병원을 방문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동무가 그렇게 애쓰다가 이 땅에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날을 보지 못할 때 누구보다도 내 가슴이 더 아프리라는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립회인이 되시여 주용녀의 수술을 보증하시고 끝내 그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여기에는 령도자와 령도를 받는 사람의 관계, 사람들사이의 사상적, 조직적 련관관계를 초월하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적관계, 운명을 같이하는 혈연적관계가 있는것이다. 여기에는 리성과 론리만이 작용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인정이 굽이치고있는것이다. 여기에는 권리와 의무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혼연일체, 순결

한 하나의 생명체로 만드는 인간성이 맥박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묘사는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식 소설 모두에 공유한 특성으로 되고있다.

장편소설 《철의 신념》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탈》을 만난 강괴를 압연하다가 사고를 저지른 로장섭작업반성원들을 고무하시기 위하여 사고를 퇴치할 때까지 무려 18 분동안이나 현장을 떠나시지 않는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인공 신철민과 그의 가족들, 특히 그의 안해 송경심의 입원치료, 수술에 대하여 친어버이의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보다 아름답게 꽃피도록 하기 위하여 용광로개건조업식이 있는 다음날로 신철민의 온 가족이 병원을 방문하도록 친히 전화로 신신 당부하신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에서는 수령님을 믿고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충성다하는 강병철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동지로 대해주시며 혁명적의리를 다하시여 대구에 있는 그의 안해와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의 품에 안겨주시는 숭고한 인간애를 베푸신다.

이러하신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며 충성으로 받드는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지극히 당연한 도리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평정한 리성과 준엄한 론리만으로는 묘사할수 없는 동시에 화려한 미사려구로 충만된 이른바 《예술적묘사》로서는 도저히 표현할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육친의 사랑, 뜨거운 인정이 느껴지게 묘사할 때만이 이러한 인간관계는 진실하게 형상화될수 있는것이다.

집단주의적생명관에 서야 인간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궁극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조선사람들에게만 진리로 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에 관계되는 진리인것이다. 기쁨과 희망, 미래에 대한 밝은 낙관, 뜨거운 인간애, 파사로운 인정은 누구나 다 바라마지않는 인류의 리상과 념원이 아닐수 없다.

우리 식 소설의 생활에 대한 관점과 태도, 형상방법은 오늘 우리 나라 생활현실자체가 낳은 필연적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주에로 지향하는 인류의 공통한 념원을 대변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식 소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문학에 의하여 창조된것이지만 인류공동의 재부로 된다.



## 짧은 토막기사를 낸 후에

리화

《리동무! 잡지에 낸 통신원고를 잘 보았네.》

얼마전에 시창작실에 나가니까 소설을 쓰는 나의 동료가 비양조도 없지 않은투로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었다. 나는 씩씩한 미소를 짓기만했다. 하자 나의 동료는 한마디 더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건가. 협동농장에 현지파견작가로나가있더니 로농통신원사업까지 말아보는셈인가?》

《허허...》

나는 허거프게 웃고말았다. 이런 말을 듣게도 됐다. 소설창작에 여념이 없는 몸이지만 나는 자주 신문이나 방송에 짧은 토막기사를 내기도 했고 얼마전에는 잡지 《천리마》에 《노력의 대가》란 두부모만한 크기의 보도기사를 발표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모름지기 내가 이즈막에도 자주 신문원고를 쓰게 되는 것은 현역작가가 되기전엔 로농통신원활동을 오래동안 하였고 그후에는 다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신문기사를 많이 쓰던 타성이 작용하기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갑자기 필을 든 것은 이번에 짧은 토막기사를 낸후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반드시 알리지 않으면 안될 각별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잡지 《천리마》에 난 그 기사를 본 독자들은 잘 알겠지만 거기에는 항구도시 남포교외의 지사협동농장 버섯분조장 신동원동무가 새로운 방법으로 느타리버섯을 많이 따고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혹 그 기사를 보지 못한 독자들을 위하여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거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간명하게 서술되어있다.

신동원동무네 버섯분조에서는 농촌에 흔한 강냉이숙을 원료로 삼아 큰골경사지밭에서 느타리버섯을 많이 땀다. 이들은 버섯파상과 파상사이에는 강냉이와 사철오이를 심었는데 버섯파상에 그늘을 지어주기 위하여 세운 덕대우로 싱싱하게 뻗어나간 사철오이는 서리가 내릴 때까지 열렸고 파상사이에 심은 강냉이는 버섯에 물을 풀 때마다 자연히 수분을 충분히 보장해주시기도 했거니와 버섯균이 강냉이 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어 포기마다 팔뚝같은 강냉이가 탐스럽게 달리었다.

가을에 가서 충화를 해보니 버섯밭에서는 그 발면적에 해당하는 강냉이와 오이는 그것대로 웅군

수확을 내고도 2 톤의 버섯을 공짜로 따낸셈이었다. 얻은 성과에 자신심을 가진 버섯분조원들은 이듬해에는 10 톤의 버섯을 따낼 목표를 세우고 그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

잡지가 배포되어나온지 한달쯤 지난 어느날, 버섯분조장 신동원동무가 불쑥 우리 집에 찾아왔다.

《이결 좀 보십시오.》

신동원은 어쭙은 기색을 지으며 한몽테기의 편지를 상우에 내놓았다. 그 편지들은 잡지 《천리마》에 실린 《노력의 대가》를 보고 각지에서 신동원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천리마》는 독자가 많은 대중잡지이다. 하지만 나는 그 잡지에 낸 짧은 기사들까지도 독자들이 주의깊이 읽고 이렇게도 예민한 반응을 보일 줄은 미처 몰랐다.

어쨌든 기뻐다. 밭에서 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신동원이 기울인 노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는 이것도 그의 성실성에 대한 마땅한 평가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 편지들을 손에 잡히는대로 집어들어 한장한장 읽어보았다. 삭주군에 사는 김태수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버섯은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으로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단히 좋은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 근로자들이 아직 톡톡히 먹지 못하는 것은 재배기술이 까다롭기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무는 버섯을 척박한 밭에서도 남새처럼 키울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한 동무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바쁘겠지만 밭에서 버섯을 재배한 경험을 자세히 써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

이외에도 함남도 영광읍에서 사는 최정성, 어느 한 공장에서 후방부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천주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여왔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신동원동무가 버섯재배에서 이룩한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바쁜몸이지만 밭에서 버섯을 재배한 경험을 자세히 써보내달라는 부탁들을 하였다.

나는 자신이 그 편지들은 받은 임자이기나 한 듯이 흐뭇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회답들은 해주었는가요?》

《엇그제 온 몇장의 편지들을 내놓고는 모두 회

답을 해주었지요. 하지만 난 어쩐지 쑥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신동원의 얼굴에는 뜻하지 않은 실책을 저지른 사람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난감한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나는 의아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왜 그렇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난 생각다 못해 작가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난데없이 매일같이 편지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나도 내가 소문난 큰 인물이나 된것처럼 생각들 한단말입니다. 밭에서 버섯을 재배한 기술이야 제가 처음 시작한 일이 아니잖습니까?》

한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말하는 신동원은 몹시 피로와하고있었다. 나는 자못 신중한 기색을 짓지 않을수 없었다. 그 기사를 쓰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리란건 생각지도 못하였던것이다. 나는 우리 마을에서 체논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을 썼을뿐이다. 발표된 그 기사에도 신동원이 처음으로 밭에서 버섯을 재배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나 대중용잡지에 그런 색다른 기사가 처음 나가니 못사람들은 심분 그렇게 인정할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하여 그것이 본의아니게 신동원의 량심을 괴롭히는 결과를 빚어낸것이다.

《작가선생, 수고스러운대로 글을 한번 더 써주십시오.》

《무슨 글을 말인가요?》

《내가 누구의 방조를 받아 밭에서 버섯재배를 하게 됐는가를 실지 있는 사실대로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이거야 어디.》

신동원은 머리를 휘휘 저었다.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신동원이 여러해동안 버섯재배에 바친 수고를 자기자신의 일처럼 잘아는 나는 그의 말에 인차 수긍해나설수 없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한 그의 완강하고도 꾸준한 노력은 이이상의 평가를 받고도 남음이 있다고 확신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부식퇴비를 마련하러 갔다가 아카시아버섯을 한망대기나 따온 그는 난데없이 흥분하여 말하는것이였다.

《글쎄 간해에 무저놓은 부식퇴비더미에 이렇게 무데기루 돌지 않았겠나요. 이걸 보면 버섯이 요구하는 조건을 자연상태보다 더 원만히 만족시켜주는건 없다고봐요.》

며칠후 그의 집 마당귀에서 나는 이전에 볼수 없던 뜸을 얻은 긴 덕대를 띠어보았다.

《이게 뭘니까?》

의문에 차서 묻자 신동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는것이였다.

《바깥에서 버섯재배하는걸 한번 시험해볼려구요.》

그제서야 나는 여러날전에 그가 산에서 아카시아버섯을 따가지고와서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는 은근히 감탄했다.

(연구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산에서 버섯이 돈을 벌고 누구나 그걸 인공적으로 야외에서 키우려고 시험해보는건 아니잖는가.)

그리고 또 생각한다. 그때로부터 달포가량 지나서였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뻤서였든지 정확치는 않으나 어느날 그는 나를 자기네 마당귀로 이끌고가더니 덕대우에 드리운 뜸잎을 들치고 어슴푸레한 안을 가리켰다.

《저걸 보시라요. 하얗게 흰게 봐지요?》

동원은 버섯과상을 주먹으로 두드려보였다. 잔뜩 엉켜붙은 과상에서는 탕탕소리가 났다.

《중균이 멋있게 퍼졌어요. 버섯은 먹어준거나 다름없어요.》

그는 자신있게 말했다. 나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확신성있게 말하는지 가늠이 가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한 힘센 버섯균을 보고있을뿐만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있는듯싶었다. 확실히 그에게는 버섯균의 상태를 감각할줄 아는 세심한 관찰력이 있었던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그 일은 더욱 잊을수 없다. 어느날 그는 《버섯재배기술》이란 번역도서를 읽고 있다가 어느 한 대목을 짚어보이면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버섯중균을 2월말에 파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지요. 하지만 우리교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고 봐요. 그 나라는 아열대지방이니까 그때에 해야 하지만 우리 나라는 온대지방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린...》

그렇다. 그는 남의 지식도 자기 실정에 맞게 제머리로 궁리하여 써먹을줄 알았다. 그가 밭에서 버섯을 대대적으로 재배하는데 성공한것은 이런 남다른 지혜와 세심한 관찰력, 꾸준한 노력의 결과인것이다. 하나 짚시간을 타서 촉급하게 쓴 짧은 보도기사에 이런 내용을 다 담을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부탁합니다. 전 이 사실을 꼭 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신동원은 이렇게 말하며 자기가 밭에서 버섯재배에 성공한 열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이에 대해서 그는 나에게 한두번만 들려준것이 아니였다. 그런데 신동원은 내가 도무지 그것을 모르고있거나 한듯이 열을 내어 또다시 말하는것이였다.

《사실 그때 양덕군 통동리 버섯분조에 가서 배워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밭재배를 이렇게 쉽

리 성사시키지 못했을겁니다.…」

신동원이 제집마당귀에 시험과상을 만들어놓고 버섯을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키울수 있다는것을 확인하긴 했으나 그것을 넓은 밭에 재배하자면 종균확보가 결정적으로 결리었다. 지금처럼 종균을 유리병에서 배양하여 써가지고는 심심풀이로 버섯을 재배하는 정도밖에 더 할수 없을게 너무도 뻔했다.

버섯재배에 관심이 높던 리 3 대혁명소조책임자가 한번은 휴가를 받고 집에 갔다와서 알려주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 들러서 물어보니까 양덕군 통동리에서 버섯의 밭재배를 잘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한번 가보는게 어떨가.》

그 말에 신동원은 구미가 부쩍 동하였다. 며칠 후 그는 서둘러 차비를 해가지고 길을 떠났다. 독자들에게도 양덕군 통동리란 지명이 귀에 설것이다. 그만큼 그곳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멀고도 외진곳이었다. 신동원은 기차를 타고 양덕에 내려 뺨스를 타고도 한것이나 가셔야 통동리에 가닿을수 있었다. 알고보니 통동리란 평남도와 강원도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있는 두메산골이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평남도적으로 밭버섯을 제일 잘하는곳으로 소문이 난고장이니 여기에서는 다른데와는 달리 무엇인가 특별한것을 보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나이 지긋한 버섯분조장의 안내를 받으며 차그마한 동기와잡에 들어선 신동원은 눈에 띄는 모든것이 너무도 초라하고 단순한데 놀랐다.

무균실이며 접종실들도 그가 리용하고있는 집에 비하면 대비할 여지도 없이 협소했으며 살균탕크라는것도 가정에서 돼지물 끓이는 가마보다 작으면 작았지 별로 낫지 않은 그런것이었다.

《소문난 잔치 먹을게 없다구 괜히 사람들이 말이나 퍼뜨렸지 볼게 없수다.》

마흔댓살쯤 난 버섯분조장은 토배기두메사람티가 수더분하게 풍기는 소탈한 사람이였다. 때는 9월초순 곳은비가 내리다말다 하였다.

버섯과상은 산경사지의 강녕이발속에 만들어놓았는데 해가림막에는 버짚이 없어 억새풀이며 참나무아지들을 덮었었다. 그래도 그 안을 들여다보니 들물을 마시려고 속살을 쭉 내밀고있는 탐스러운 소라같은 버섯이 그뻑 차있었다.

그 분조장도 찾아온 사람이 꾀내기가 아니라는것을 짐작하고는 구태여 말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보고싶어하는것을 다 보게 하고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다.

볼것을 다 보고 동기와잡으로 들어서자 그 분

조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저 그렇수다. 남포같은 대처에 대겠수. 모든게 촌스럽기 그지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겸손한 말이였다. 살균탕크에 넣고있는 원료에 눈길을 박은 신동원은 이 분조장이 성품은 소탈하기 그지없지만 보는 눈이며 일습씨가 여간만 예리하고 섬세하지 않다는것을 감득하지 않을수 없었다. 별방에서는 흔한 쌀겨를 종균원료로 쓰고있지만 이고장에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산골에 흔한 누에똥을 종균원료로 리용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종균배양에 그런 원료를 쓴다는것은 그 어느 책에서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누에똥을 버섯균의 밥으로 쓰게 한것은 하나의 발견이라고 해야 할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동원의 관심을 끈것은 새로운 종균배양법이였다. 여기에서는 병을 전혀 쓰지 않고도 종균을 무데기로 생산하여 밭에서 버섯을 남새처럼 키우고있는것이였다. 그 방법이 야말로 신동원이 그렇게도 찾아내려고 모색하던 바로 그것이였다. 옛날 우리 나라에서 산골이라고 하면 삼수, 갑산 다음에는 양덕, 땡산을 일러왔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대처사람이 산골에 찾아와 버섯기르는 섬세한 기술을 배워가게 되지 않았는가.

신동원은 그 분조장에게 진정이 넘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튿날 아침 뺨스를 타고 귀로에 올랐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차근차근 들려주면서 힘주어 말하는것이였다.

《사실 우리가 밭에서 버섯을 재배하게 된데는 그 양덕분조장의 숨은 지혜가 있었기때문이였지요. 전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서 꼭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동원은 아무런 가식도 없이 공정하게 진실을 밝히며 자기자신은 슬그머니 그런 숨은 노력이의 뒤에 숨고마는것이였다.

그는 정녕 자기가 흘린 땀 이상의것은 바라지도 않는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였다. 자기가 씨뿌리고 가꾸지 않은 열매는 자신의 수확물로 인정할수 없듯이 일신의 모든 일이 한치의 예누리도 없이 선명하고 명백해야만 마음이 편한 모양이였다. 나의 눈에는 티없이 깨끗한 그의 이러한 심정이 너무도 환히 들여다보였다.

나는 희귀한 버섯을 무우, 배추나 시금치처럼 무데기로 따내는 이들의 남다른 헌신성을 보게된것도 귀중했지만 또 한사람의 수수한 이웃에게서 새로운 숨은 인간미를 발견하게 된것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다.

# 분교의 녀선생

## 1

소나기는 올 때처럼 급작스레 가버렸다. 문발처럼 드리운 시뿌연 비줄기를 이끌고 천둥소리가 청암령너머로 구울러가자 곱절로 불어난 개울물이 징검다리를 삼켜버릴듯이 세차게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시내가에 바투 다가선 버들숲이 저녁해빛에 청신한 자태를 드러내며 뿌리 뽑힐듯 물결을따라 휘친거렸다.

몸매가 날씬하고 눈빛이 류달리 부드러운 40대의 한 녀인이 버드나무밑에서 비를 그으며 자주 징검다리쪽에 눈길을 돌리곤했다. 그는 과외지도를 나갔다 돌아오던 함박골분교의 녀교원 리이금이였다.

아이들은 징검다리로 건너다니기를 좋아했다. 올봄에 무지개다리에 쇠란간을 해달고 파아란 뽕끼칠까지 했던만 아이들의 마음은 웬일인지 징검다리에 더 쏠리곤했다.

이금은 아무래도 징검다리가 걱정되어 그쪽으로 발걸을 돌렸다. 발밑에서 물때오른 조약돌이 미끌거리었고 세찬 물결이 하얀 줄다리에 휘감기며 자꾸만 그를 아래로 떠밀었다. 이금은 팔소매를 걷어붙인채 맞춤형 디딤돌들을 골라 징검다리를 손질하며 한동안 물속에서 침버덩거리었다.

《선생님!-》

누군가 등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불렀다. 이금은 허리를 펴며 돌아보았다. 그의 앞에는 분교에서 인민반 1 학년을 배워주고있는 녀교원 설영이가 웃음을 짓고 서있었다. 몸매가 날씬한 이금보다 그는 키가 작았으나 오히려 몸집은 더 실팍했다.

이금은 좀 가름한 얼굴형이었으나 설영의 얼굴은 동그스름하고 복실복실하게 생기었다. 그 얼굴은 저녁락조에 발그스름히 젖어오르자 더욱 애되고 순진스러워 보였다.

《아유, 난 또 누구라구...》

《여기서 뭘하세요?》

《그저 좀 징검다리를 손질하던 참이야...》

《호호, 그런걸 난 고기잡이를 하는줄 알았어요.》

오늘 저녁 선생님께서 집에 들리면 틀림없이 산천어를 맛보게 됐구나 하구 말이예요...》

《에그, 이렇게 물이 불었는데 산천어가 다 뭐야...》

이금은 곱게 눈을 흘기었다. 설영은 재미있게 웃다말고 신발을 벗기 시작했다.

《아니, 그만뒤요.》

이금이 만류했으나 설영은 벌써 시내물에 발을 잠그었다. 그는 장난하듯 이금보다 앞서나가며 물방울들을 들썩우곤했다. 설영은 두달전부터

## 황청일

함박골분교 박철수학생의 영어개별수업을 맡아하고있었다. 철수네는 올봄에 도소재지에서 아버지가 탐사대와 함께 함박골지구로 나오는바람에 이사를 왔다. 그바람에 철수는 유치원때부터 해오던 영어공부를 중단하고말았다. 어느날 철수의 어머니가 이금을 찾아와 아들의 영어수업을 부탁했었다. 그러나 이금은 난처하였다. 그에게는 로어지식뿐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설영이가 영어수업을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하게 여기 함박골마을로 넘어오는 설영이었다.

이금이 보기엔 설영이가 공연한 수고를 하는것 같았다. 철수가 외국어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보이지도 않았다. 이금은 그것을 철수 어머니의 지나친 욕망으로밖에 보지 않았다. 교육에는 자기의 단계가 있고 그에 따르는 과정안이 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취미엔 아랑곳없이 때이르게 외국어를 내리먹이겠는가...

함박골분교는 립산작업소의 아이들을 위해 생겼는데 학생들을 다 합해도 열명이 되나마나 했다.

그래서 이금이가 혼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있었다. 그가 여기 분교로 자진하여 넘어온지도 십여년이 흘렀다. 이금은 다과목교수를 잘해서 군적으로 소문이 났으며 몇번 방식상학에도 출연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분교수업이야말로 능란한 다과목교수를 요구하고있었다. 때때로 복식수업도 해야 했다. 지나간 10여년간은 이금을 어느덧 분교의 책임자로 만들어버렸다.

설영이는 이금이가 열정을 바쳐 사랑한 학생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설영이가 아니었다라면 아마 이금의 운명이 달리 번져졌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느 여름방학때에 있는 일이었다. 새학년도 준비로 눈코뜰새 없던 이금이한테 앞날을 약속한 최명진이 농림대학을 졸업하고 찾아왔다.

이금기와 결혼하고 배치지로 데리고 가자는 속심이였다. 그는 이금이가 꾸려놓은 교재원을 밤늦도록 거닐며 미래의 행복을 열렬히 속삭였다. 최명진은 연구하고있는 식물의 경제적 효과성과 그것을 조국의 온 산판에 뒤덮을 앞날의 희망으로 이금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서도 이금이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금은 애인의 요구에 선뜻 응할수 없었다. 당장 그를 대신해줄 교원도 없었거니와 아이들과 중도에서 헤어질수가 없었다. 어릴 때 뜻밖의 사고로 한쪽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영순이

와 설영이, 뜻밖에 엄마를 잃은 민순이네 쌍둥이들, 채 꾸리지 못한 교재원의 사과나무... 모든 것이 아직도 결실을 멀리 두고있었다.

《이봐야, 2년만 더 기다려줘요.》

《아니, 아직도 2년을?》

《...》

《그게 진담으로 하는 말이오?》

이금은 고개만 끄덕이었다. 그다음에야 그는 왜 그래야 하는가를 설명했으며 자기를 이해하여 달라고 애원적인 호소를 했다.

최명진은 고개를 숙인채 묵묵히 걸음만 뜨직 뜨직 걸었다. 무거운 그 발자욱 발자욱이 이금에게는 운명의 판결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윽고 최명진은 고개를 들고 한숨쉬인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 아직 2년이란 말이지...》

이금은 순간 눈물이 핑그르 돌아 고개를 숙이었다. 최명진의 그 말속에는 기다려주겠다는 내심의 목소리가 함께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미안해요. 실은 저두 2년을 어떻게 기다려내겠는지 걱정스러워요. 하지만 지금형편이...》

《혹시 이금인 나보다도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요?》

《글쎄요. 어느쪽에 더 정이 가는지는 아직 ... 아니, 전 둘다 무척 사랑해요.》

이금은 얼굴을 확 붉히면서도 머리는 숙이지 않았다.

《사랑의 <비너스>로군, 허허허...》

최명진은 사나이다운 호탕한 웃음을 터쳤다.

그후 최명진은 약속대로 2년을 기다려주었다.

그사이에 설영이네도 졸업하고 토끼사며 교재원을 비롯한 모든 일이 이금의 노력으로 은을 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의 손이 더 안가도 될 것이었다.

이금은 최명진한테로 떠나려고 서둘렀다. 마침 여름방학때여서 분교사업을 립시로 본교에서 넘어온 신임녀교원에게 인계하였다.

이금이가 떠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마을사람들이 저저마다 음식꾸레미며 신접살림에 필요한 부엌세간이며 가구들을 가지고 찾아왔다. 뒤늦게 립철기관차 기관사인 설영의 아버지가 어깨가 딱 바라진 제 친구를 데리고 하숙방에 들어섰다. 그는 이금의 트렁크와 책들이 들어있는 큼직한 배낭을 남먼저 년땀 어깨에 올려놓으며 한마디 했다.

《선생님! 어서 감세다. 내 저기다 립철기관차를 세웠수다. 말하자면 오늘은 특별봉사입네다. 허허허...》

설영의 아버지 립대식은 입귀가 벙글썩해가지고 이금을 재촉했다. 그러나 립대식에게 못마땅한 눈길을 주고있던 그의 친구가 한마디 툭 내쏘았다.

《아따, 자네 오늘은 웬일인가? 마치 선생님을

마을에서 보내지 못해 안달아하는것 같구만 ... 하긴 자네야 막내까지 이금선생님의 손탁에서 인민학교를 졸업시켰으니 그럴만도 하이...》

구들이 꺼져내리게 모여앉은 아낙네들속에서 누군가 섭섭한 어조로 동을 달았다.

《우리 옥희는 선생님이 간다는 소리에 어제밤엔 울기까지 했다우...》

녀인이 울먹이는바람에 방안분위기는 저절로 무거워졌다.

이금은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두뺨이 핫핫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방망이질 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의 믿음에 죄되는 일을 하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가까운곳에서 립철기관차가 기적을 울리었다. 립대식은 이금의 짐들을 가지고 얼른 밖으로 나갔다. 이금은 저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

《설영의 아버지 ... 저 그 짐들을 ... 전머칠... 더있다가 떠나겠어요.》

림대식은 한동안 망설이듯 우두머니 섰다가 닻알 같은것을 목구멍으로 꿀꺽넘기고 말없이 되돌아섰다.

머칠후 이금은 최명진에게 편지를 썼다.

《...이곳을 뜨지 못하는 저의 마음을 리해해주세요. 차마 지금 당장은 못떠나겠어요...》

그후 일년동안 최명진의 편지들은 더미를 이뤄 이금의 책상우에 쌓아지다가 점차 뜸해지고말았다.

어느날 아이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오던 이금은 시내가에서 주춤거렸다. 누군가 트렁크를 든채 돌다리를 두개씩 넘어뛰며 이금의 쪽으로 건너오고 있었다.

(아, 그다.! 명진동무다!)

이금은 몇걸음 다가가다말고 멈춰서고 말았다.

그를 보는 기쁨의 순간에 뒤이어 그 어떤 죄의식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눈앞의 모든것이 핑그르 한바퀴 도는듯 싶었다. 그는 현훈증에 온몸을 내밀긴채 얼굴을 감싸쥐며 징검다리우에 주저앉았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최명진의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아일으켰다.

《이금이!-》

이금은 전에 없이 창백해진 최명진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지는것을 느꼈다.

《명진동무, 용서하세요...》

《정말 동문 너무하누만!》

두사람의 숨소리는 높아갔다. 시내가는 조용했다. 아이들은 이쪽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듯 아래쪽에서 고기잡이를 하고있었다.

《그런데 소식도 없이 어떻게?... 어데 조도이라도...》

《헛참, 이렇게두 눈치가 없다구야... 실이 어찌나 검질긴지 바늘이 되돌아온 셈이요... 이제 마음에 드오?》

이금은 최명진이 내든 파견장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다. 뜻밖에도 그가 이곳 립산사업소의 조립 지도원으로 온것이였다.

(고마워요, 어쩔 그런 결심을 다... 이젠 나는 함박골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됐군요!)

이금은 행복에 부르는 가슴을 안고 오래도록 시내가에 서있었다.

## 2

두 녀교원이 징검다리를 손질하고 방천길에 올라섰을 때엔 벌써 사방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방천길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들의 앞에는 이남박처럼 움푹 패인 아늑한 골짜기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로부터 함박골마을이라 부르는데도 몰랐다. 여기저기서 개들이 쾅쾅 짖어대고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녀인들의 격정스러운 말소리들이 저녁어스름에 깃을 달아준다. 어네선가 뒤산쪽에서 우르릉 우르릉 통나무들을 끌어내리느라 용을 쓰는 불도젤의 동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동음은 마을우에 떠도는 푸근한 저녁대기속에 잣아들며 여기도 한적한 고장은 아니라는것을 깨우쳐주는것 같았다.

두그루의 백양나무가 서있는, 산기슭에 자리잡은 아담한 분교가 저녁 어둠속에 자기의 룼박을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저쪽 무성한 나무모발속에서 아이들의 떠들썩한 웨침소리들이 들려왔다.

숨박꼭질이라도 벌어진모양이였다.

별안간 그들앞으로 사내에 하나가 나무모발에서 총알처럼 튀겨나왔다.

이금은 하마트면 그애와 부딪칠번했다.

《에참... 다 잡았던걸 놓쳤네.》

소년의 볼부는 목소리... 뒤이어 또 한 사내에가 혈레벌떡 거리며 달려왔다.

《잡았니?》

《놓쳤어... 그냥 쫓아갈까?...》

아이들은 다시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이금은 철수와 철남이를 알아보고 소리쳤다.

《철수학생, 설영선생이 왔어요...》

그들은 돌아서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어두운데 여태 뭘 잡느라구 그래요?》

이금은 철수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뭘, 별게 아닙니까.》

철수는 어물어물 대답을 피했다.

《호호, 내가 한번 맞혀볼까요?》

문득 설영이가 끼어들며 이렇게 말했다.

《히야!... 선생님이지? ... 맞혀보세요...》

동생 철남이가 말했다. 그 애는 2학년생인데 제 형과는 달리 몹시도 빨랑거리며 아무한테나 척척 달라붙는 푸짐좋은 성미를 가지고있었다.

이금은 가슴이 저도 모르게 두근거렸다. 설영이가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물었다.

《저... 반디벌레!-》

자신에 넘친 설영의 목소리... 철남이는 《야!-》하고 환성을 질렀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방금 반디벌레가 저기루 날아가더군요!》

이금은 설영이가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는 왜 반디벌레를 보지 못했는지 몰랐다. 부지중 마음이 즐거워졌다 그때 말없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던 철수가 설영에게 물었다.

《선생님, 반디벌레는 어떻게 빛을 냅니까?》

한동안 타박타박 발자국소리들만이 길가에 울렸다. 한참후 설영의 입에서는 《글쎄, 좀 생각해 봐야겠군요...》하는 애매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순간 이금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둠속이여서 아이들이 보지 않는것이 다행스러웠다. 교권이란 교탁앞에서만 이뤄지는것이 아니였다 바로 이러한 정황속에서도 교원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것이다. 매사에 꼼꼼하고 빈틈이 없던 설영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금은 마음이 서운했다.

그는 설영이를 난처한 립장에서 《구원》하려고 입을 열었다.

《반디벌레는 배끝에 특별히 빛을 내는 기관이 있어요, 불빛은 바로 거기서 생겨요.》

모두다 조용히 이금의 말을 듣는가싶었다.

이깎나무숲이 하늘을 떠받든 뒤산너머로 달이 떠오르며 신비로운 생각에 잠겨 말없이 걷고있는 아이들의 얼굴들을 엿비치였다. 이금리와 설영의 틈새에서 부지런히 걷고있던 철남이가 줄라대기 시작하였다.

《선생님, 반디벌레를 좀 잡아줘요, 꼭 두마리만!》

《그건 왜 두마리만 필요하냐?》

이금리가 물었다. 도시에서 자란 애들이니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무척 강했다.

《영호가 그러는데 눈에 불이고다니면 손전지도 필요없대요... 거짓말만 하면 내 그쳐...》

철남이는 중주먹을 해가지고 욱벌렀다.

《호호...정말 그럴듯 싶구나!》

이금은 웃음을 터뜨리며 슬쩍 설영의 어깨를 건드렸다. 생각에 잠긴듯한 설영의 기분을 돌려세우고 싶었다.

《설영선생, 어때요? 우리 한마리씩 잡아보지 않겠어요?》

그러자 설영이도 쾌활한 목소리로 지지 않고 응수했다.

《그래요, 저도 잡아보겠어요...》

그들은 기분들이 좋아서 떠들썩하며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동구앞의 물항철나무앞에서 염소 한마리가 《매-애-》하며 불안스레 울어댔다.

《야! 선생님네, 수염쟁이!->...》

철남이가 무슨 큰 발견이나 한것처럼 떠들었다.

이금은 사방을 휘돌러보았다. 물항철나무뒤 커

다란 너럭바위위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이금은 남편을 알아보았다 이금이가 늦어지면 종종 염소를 풀어가지고오다가 여기서 다리섬을 하는 최명진이었다. 다리섬을 한다가보다 자기를 기다리고있음을 이금은 잘 안다. 최명진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조림지도원인 동시에 다정한 그의 남편이기도 하였다.

이금은 설영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먼저 가요, 저녁은 우리 집에서 꼭 해요. 내 설영이가 좋아하는 햇당콩밥에다 산천어를 구워 놓겠어요...》

설영이는 시내가에서 있는 일을 생각했는지 생긋 의미있는 웃음을 웃었다. 설영을 바래우고난 이금은 남편이 있는 바위계로 발뽕발뽕 다가갔다.

남편은 채 타지 않은 담배를 비벼끄더니 움쭉 몸을 일으켰다. 바위보다 더 커보이는 형체가 달빛아래 솟아났다. 그 모습은 마치 아래보다 웃부분이 더 큰 바위선인장을 연상시켰다. 이금은 새삼스레 들직한 체구의 남편을 깨달으며 두눈에 행복한 미소를 담았다.

저녁은 지어놓고 기다렸으나 설영은 오지 않았다.

최명진은 저녁상을 물리기 바쁘게 옷방으로 올라가 그 무슨 도면을 펴놓았다. 요즈음 출창 그 도면과 씨름이었다. 이금은 학생들의 글짓기 학습장을 펴놓고 점수를 매기었다.

여름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다리아가 가웃이 창문을 넘보는 꽃발 어데신가 벵짱이가 찌르럭거리었고 열어놓은 창문으로 부나비며 하루살이떼가 날아들어 탁상등주위에서 맴돌아쳤다. 기다리기에 그만 지쳐버린 이금은 밖으로 나왔다. 성급하게 골짜기를 울리며 흘러내리는 개울물소리가 신선한 대기와 함께 이금의 가슴속에 흘러들었다.

기분이 거뜬해진 그는 천천히 철수네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대문앞에 다가가 마당안을 기웃이 넘겨다보던 이금은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마당 한가운데 깔아놓은 커다란 명석우에 설영이가 예닐곱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 무슨 이야기인지 신이 나서 하고 있었다.

(아이참... 남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줄도 모르구...)

이금은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자기의 성의가 무시당한듯 싶었기때문이었다. 빙- 둘러앉은 아이들속에서 영호를 띄여본 이금은 흠칫 놀랐다.

그 애의 집은 여기서 오리 남짓한 피나무곶에 있었다. 아까도 이금은 영호의 수학과목을 개별 지도하려고 피나무곶에 넘어갔었다. 영호가 어두운 밤길에 뿔때문에 철수네 집으로 왔는지 영문을 알수없었다.

《자 빨리 알아맞춰 보세요-》

설영은 정겨운 눈길로 아이들을 둘러보며 이렇

게 말했다. 그 무슨 수수께끼를 낸것 같았다. 무릎위에 턱을 고이고 두눈을 깜빡거리던 철남이가 영호의 옆구리를 쿡쿡 췌질렀다.

《거짓말이야, 사과 세알이 어떻게 네알로 되겠니...》

《야 요거... 좀 잠자코 있으려마...》

영호가 안타까운듯 이마를 싸쥐며 철남이를 나무랬다. 설영이는 방긋 웃더니 문제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모두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아요. 어머니는 틀림없이 <북청>,<황주>,<덕성>-이렇게 사과 세알을 내놓았는데 두명의 아버지와 두명의 아들이 제가끔 한알씩 가졌답니다. 정말 어떻게 된 영문 일까요?...》

정말 어떻게 된노릇인가? 철수의 영어수업때문에 먼길을 걸어온 설영이가 한가로이 수수께끼나 풀고있지 않는가... 영호랑 넘어온것을 보니 이런 《모임》이 처음인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자 그무슨 귀중한것을 잃어버린듯한 허전한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 홀려들었다. 마치도 마을아이들이 자기만 빼놓고 약속이나 한듯이 철수네 집에 모인것 같았다. 아니 그럴수가 없어... 이금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 누군가의 기쁨에 젖은 명랑한 목소리에 이금은 정신이 들었다.

《맞혔어요! 두명의 아버지와 두명의 아들이란 바로 이 세사람이었답니다.》

《에익, 그런걸 난 또...》

철남의 말에 아이들이 웃음보를 터뜨렸다. 대문손잡이를 잡은 이금의 손은 가볍게 떨리었다.

들어갈것인가 말것인가 한참 즈자리는데 행길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군가 이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있었다. 철수의 아버지 같았다. 이금은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놓고 뒤로 물러서버렸다. 자신의 당황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싶지 않았다. 이금은 일부러 마을을 한바퀴 돌아 집으로 돌아왔다. 전에없이 피곤이 몰려왔다. 그는 추녀아래의 구광돌에 주저앉았다.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저녁에 있는 모든것이 어쩐지 거짓처럼 여겨졌다.

옷방에서는 여전히 조림도면에 골똘한 남편이 이따금씩 터뜨리는 잔기침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금은 남편의 말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언제 밖으로 나왔는지 등뒤에 조용히 서있었다.

《왜 거게 앉았소?》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저》

이금은 부지중 호-하고 한숨을 토했으려다 얼른 입술에 손을 가져갔다.

그는 그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몸을 꺾듯이 일으켜세웠다.

《여보, 우리 집이 어쩐지 너무 조용한것 같지요?...》

《허허 그거야 우리 <종달새>.가 떠나버렸으니

그렇수밖에...》

종달새란 외할머니 한테 간 그들의 외동딸 은  
십이를 두고 한 말이였다.

《아니 그 애가 떠난거야 벌써 언젠데요... 난  
어쩐지 요즈음...》

《음...》

최명진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참후에 그는  
무겁게 입을 뗐다.

《하긴 마을애들이 왜 놀러오지 않소? .. 저 옷  
방의 책들이 언제봐야 뒤죽박죽이더니 지금은 한  
주일이나 가도 찾아놓은 그대로구만...》

이금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옷방의 서가를 바라  
보았다. 벽한면을 꽉채운 책들은 언젠가 대청소  
를 하느라구 먼지를 털어내고 정돈해놓은 그대로  
였다.

남편의 말처럼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다.

정돈해 놓으면 사흘이 멀다하게 뒤죽박죽이 되  
군 했다. 마을아이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만들었  
고 이금이 자신이 공부하느라 그랬었다.

이금의 눈앞에는 방금전에 본 설영이와 아이들  
의 명랑한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러자 모든것이  
명백해지는듯싶었다. 설영이가 철수때문에 함박  
골마을에 오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아  
이들의 발길이 뜸해지고있다는 그것이였다. 이금  
은 오래동안 생각에 잠긴채 일어설줄을 몰랐다.

### 3

머칠이 지나갔다. 본교에 갔던 이금은 늦어서  
함박골마을로 돌아오고있었다. 여름내 자란 풀에  
뒤덮여 퍼그나 좁아진 오솔길이 그의 앞에 휘  
우듬히 뻗어있었다.

생각에 잠겨 종종걸음을 놓던 이금의 앞으로  
무엇인가 찌르려거리며 불쑥같은것이 휙 날아갔  
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반디벌  
레!...》 하는 가벼운 탄성이 터져나왔다. 철남의  
얼굴이 얼른거렸다. 이금은 주저할새없이 반디벌  
레를 쫓아가기 시작하였다. 반디벌레는 마치 이  
금을 끌려주기도 하려는듯 잡힐듯말듯 몇발자  
국앞에서 날아갔다. 서서히 《저공비행》을 하던  
그놈은 《신변》에 닥쳐온 위험을 느꼈던지 점차  
속도를 높였다. 반디벌레는 물웅덩이를 가로질러  
시내가로 나가는가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산비탈로 날아갔다. 정말 심보가 고약했다.

아마 그래서 개똥벌레라고 부르는지 모른다고  
이금은 생각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짜지... 목에  
서는 겨불내가 났다. 이금은 숨이 턱에 닿아 헐  
떡거리였다. 손에 거의 잡힐듯하다가도 감쪽같이  
없어진다. 그러다가도 왕창같은데서 불쑥처럼  
떠오르며 마음을 홀리곤했다. 그래서 이금은 자  
꾸만 끌려갔다. 가시덤불에 얼굴을 할퀴우고 개  
울에 빠져서 한쪽 신발까지 잃어버릴뻔했다.

《깜찍한것,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이금은 이렇게 욱벼르기도 하였다.

정말 잡아낼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가...

허나 반디벌레는 결사적으로 날아갔다. 이금은  
점점 맥이 진해갔다. 그러다 그만 돌부리에 걸  
쳐여 앞으로 폭 꼬꾸라지고말았다. 누군가 이금  
이쪽으로 황급히 뛰어왔다. 억센 손길이 어깨를  
잡아일으켜세우며 《누구요?》 하고 물었다.

이금은 희미한 별빛아래 자기를 내려다보는 남  
편의 검실검실한 얼굴과 꺾벼거리는 두눈을 보았  
다. 이금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앞을 가리켰다.

《빨리, 저 반디벌레를 잡아요...》

《아니, 당신이요?》

《아유 뭘 꾸물거리요, 어서요-》

이금은 남편의 등을 떠밀었다. 최명진은 얼떨  
떨해서 저만치 앞에서 병긱거리는 반디벌레를 향  
해 달려갔다. 이금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자리  
에 주저앉고말았다. 남편은 한참후에야 돌아왔다.

《잡았어요? ...》

이금의 목소리는 간절한 기대로 떨리였다.

《허허 공짜로는 못내놓겠소.》

최명진은 병긱거리며 시간을 끌었다.

《아유, 빨리 이리 주어요...》

《글쎄 안된다니까...》

남편은 밍광스러운 정도로 극장을 부리였다.  
뿔때문에 반디벌레를 잡는지 사연을 대라는것이  
였다. 이금은 할수없이 모든것을 털어놓았다.

《허허 참, 꼭 그럴 땐 어련애 한가지라니까...》

최명진은 절절 웃더니 이금의 손바닥에 딱딱하  
고 꿈지락거리는 자그마한 생명체를 놓아주었다.  
《단단히 간수하오. 자칫하면 훌 날아가버릴수  
있소.》

《고마와요!》

이금은 그 무슨 희한한 보물이라도 받는듯이  
반디벌레를 줄안에 꼭 쥐였다. 기뻐서 어쩔줄 모  
르는 철남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기도  
했다.

두사람은 천천히 마을로 향했다. 얼굴에 감겨  
드는 밤의 부드러운 대기, 검푸른 밤하늘을 단숨  
에 쪽 갈라 던지며 그 어텐가 장쾌하게 내려쬐히  
는 별씨... 이금은 가슴이 후련하였다.

남편을 먼저 집으로 보낸 이금은 곧바로 철수  
네 집으로 갔다. 애들은 없었다. 한시간전에 탐사  
대로 갔다고 했다. 탐사대사무실은 얼마 멀지 않  
았다. 멀리 언덕우에 우중충하게 서있는 시추기  
들의 거무스레한 모습이 바라보였다. 이금은 걸  
음을 다그쳤다. 탐사대의 립시건물들은 다 불이  
꺼지고 다만 맨 끝방에서 한줄기의 불빛이 흘러  
나오고있었다. 이금은 창문앞으로 조용히 다가갔  
다.

창턱에 거의 다가붙는데 그 불빛마저 꺼져버렸  
다. 그 방은 언젠가 한번 와본적있는 탐사대의  
실험실이었다. 분명 방안에 사람들이 있는것 같  
았다. 두런두런 말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이금은  
행여나 하고 두귀를 강구다가 흠칫했다. 분명 설  
영의 목소리였다.



《자, 그럼 실험을 시작하기전에 한마디 하겠어요, 반디벌레의 빛은 루시펠린과 루시펠라제라고 부르는 효소들의 작용에 의하여 생긴답니다...》

(아니, 반디벌레의 빛?!)

이금은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러니 설영이가 반디벌레의 빛을 만들어보겠다는것이 아닌가? 그가 언제 이런 생각을 다 했는지 놀랍기만 했다.

《이 효소들을 시험관에서 반응시키면 반디벌레의 빛을 얻을수 있어요. 이제 곧 그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보지요...》

한동안 유리그릇들이 달그락거려였다. 이윽고 청백색의 파르스름한 불빛이 시험관을 짝 채우며 어둠속에 타올랐다. 이금은 비로소 철수네 두 형제와 함박꽃 아이들의 호기심어린 모습들을 보았다.

철남이는 설영이와 불빛을 번갈아 바라보며 《히야 이거 정말 멋지구나!...》하고 경탄에 찬 목소리를 터뜨리곤했다. 이금이라도 그 불빛을 닦을 앓고 바라보았다. 설영은 지금 어떤 불빛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있는가... 이금은 눈앞이 뿌얘졌다.

그는 설영의 목소리를 꿈결에서처럼 듣고있었다.

《이런 반응을 효소에 의한 발광반응이라고 합니다. 동무들은 아직 어려서 그 원리를 잘 모를수 있어요. 그러나 철수학생처럼 어릴 때부터 자연현상을 잘 관찰하고 연구심을 키워나간다면 그 어떤 자연의 비밀도 다 밝혀내구 말거예요...》

요란한 박수갈채,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웃음을 짓고 섰는 설영의 아름다운 모습... 이금은 두 눈을 감으며 창가에서 물러서버렸다. 온 저녁 반디벌레를 뒤쫓아다니던 일을 생각하자 어쩐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는 눈물이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철수의 물음에 선듯 대답하기를 주저하던 설영의 모습이 눈부리를 아프게 했다. 그 날 저녁 자기는 스스로 자신의 대답에 만족해하면서 설영을 딱한 처지에서 구원이나 한것처럼 얼마나 우쭐했던가... 다시 생각해보니 자기의 대답이야 말로 얼마나 빈약한것인지 몰랐다. 빈약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틀린 대답이였었다. 반디벌레가 어떻게 빛을 내는가고 물었는데 결국 자기는 어디서 빛을 내는가에 대답을 준 셈이였다.

정말 엉터리가 아닐수 없었다. 자신의 무식에 대한 모멸의 감정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설영이한테로 아이들이 쏠리고있는것이 과연 우연한 일이겠는가, 이금은 비로소 설영이가 자기처럼 교원이나 먼저 생각하고 구태의연한 교육방법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는 그런 교원이 아니였음을 깨달았다.

문득 한달전 어느 밤에 있었던 일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그날 학교에서는 아동절을 앞두고 등산조식을 했다. 이금은 학생들의 등산준비때문에 가정방문을 하다가 맨 나중에야 철수네 집에 갔

었다. 철남이가 시무룩해서 앞마루에 앉아있다가 이금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어데 갔니?》

《어머니랑 아버지랑 ... 다 출장갔어요...》

철남이는 팔소매에 눈굽을 닦으며 여전히 클쩍 거러였다. 부모들은 모두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탐사대본부에 들어간 모양이였다.

《그래 철수는 어데 갔나?》

이금은 철수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의아하여 물었다.

《선생님 한테 갔습니다. 나보구 염소랑 풀어오라면서...》

이금은 할수없이 철남에게 밥을 지어먹이고 체육복과 등산모드를 찾아 깨끗이 씻어놓았다. 장난에 지친 철남은 밥술을 놓기 바쁘게 뚫아떨어졌다. 철수는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금이가 애들의 학습장들을 펼쳐보며 시간을 보내고있는데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왔구나!)

이금은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밖에 서있는것은 뜻밖에도 설영이였다.

《철수가 아직 안왔어요?》

이금을 바라보는 설영의 두눈은 초조와 불안에 휩싸여있었다.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이금의 물음에 설영은 맥빠진 동작으로 마루에 걸터앉으며 대답했다.

《글쎄 철수가 범골에 갔다지 않아요..》

《범골엔 왜?》

설영은 까실까실 마른 입술을 감빳았다.

《제가 어제 그 애 듣는데서 광석표본 만들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애가 글쎄 새 광석덩일 얻어온다고 인범이와 같이 범골 시추작업장에 갔다질 않아요.》

설영은 풀이 죽어있었다. 이금은 놀랐다. 범골이란 분교마을에서도 산골길로 삼십리를 더 들어가야 하는 무인지경 막바지 골안이다. 어른도 한것에 다녀오기 힘든 그 먼길을 어린것들이 점심을 먹고 떠났다니 어떻게 어둡기전에 돌아온단 말인가.

이금은 더 다른 말을 앓고 머리수건을 고쳐쓰며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아니 어딜 가세요?》

대문간에서 설영을 몰아다보며 이금은 말했다.

《마중을 가야겠어. 애들이 밤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

《그럼 저도 같이 가요.》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이 걸었다. 말이 없는대신 심정은 복잡했다. 설영의 경우엔 철수에 대한 걱정과 이금에게 미안한 생각으로 속이 한줄만 했다.

이금은 이금이대로 아이들 걱정과 설영이에 대한 불만을 금할수 없었다. 학교울타리안에서만 해도 할일이 산갈은데 왜 오지략넓게 분교에까지

넘어와 이런 복잡한 일을 만들어낸단말인가. 그러나 종시 그런 불만을 입밖에는 내지 못하고 호호 한숨만 내뿜었다.

산골은 낮이 짧다. 해만 떨어지면 인차 어스름이 내려앉는다. 마을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듯 싶던 해는 그들이 겨우 십리길이나 축냈을가 할때 벌써 산넘어로 꼴깍 사라졌다. 그것으로 설영은 더더욱 미안해졌다.

《저때문에 애꿎은 선생님만 고생시키는군요.》

《고생이야 뭘, 이쯤한걸 고생이라면 애당초 교원노릇을 하지말아야지.》

그것은 이금의 진심이었다. 이제는 열다섯해도 넘는 그의 교원생활에서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산토끼를 쫓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느라고 산속에서 밤을 새운적도 있고 뱀에게 물려 정신을 잃은 아이를 업고 시오리나 되는 리소재지까지 달려갔던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금은 결코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키운 학생들이 장차 어른이 되고 나라의 훌륭한 재목이 되리라는 기대속에 고생을 락으로 여기었다.

《그런데 난 요즘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글썄 지능교편물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서 앉아몽겐다니까...》

《선생님이야 혼자서 인민학교과정안을 다 배워 주자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렇가? ... 헌데 설영이는 시간이 많은가 보지. 과정안에도 없는 외국어를 공부해, 지질학에까지 관심을 가지고있으니...》

설영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고집스레 번뜩였다. 《뭘 지질학이라고 할것까진 없지만 ... 그러나 어쨌든 우리 젊은 교원들마저 바쁘다고 배우기를 그만두면 안된다고 봐요, 당의 지능교육방침을 관철하자고 해도 욕망뿐인걸요. 외국어학습도 그래 하는거구요.》

이금은 설영의 말속에서 자기에 대한 비판을 감촉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의 말이 너무도 당돌해보였다. 그러나 인차 이금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참... 선생님, 우리 함께 영어공부를 하자요. 철수가 그러면 얼마나 빨리 발전하겠어요.》

《난 이젠 외국어를 배울 나이가 아니야. 글썄 인민학교 교원이 외국어까지 소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몰라도...》

설영의 두눈은 밝게 빛났다.

《생활은 벌써 우리앞에 그런 요구를 제기했다고 생각돼요. 글썄 이런 산골아이들이 언제 록을기를 다룰수 있으리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 철수를 좀 보세요. 이제 광산이 개발되면 또 어떤 재능있는 아이들이 오겠는지 전 기쁘기두 하고 두렵기도 해요...》

설영은 한숨을 쉬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우린 너무도 산촌의 고요속에서 살고있어요. 앞선 학교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막 안타까워

요.》

...

(아아 나는 그때 왜 설영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넘겼던가...) 이금은 피로운 생각을 더듬었다.

설영이를 한날 대학생티를 벗지 못한 철부지 소녀로밖에 여긴것은 아니었던지? 이금은 설영에게 용서를 빌고싶었다. 그러나 선듯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갑자기 호주머니안에서 잠자코 있던 반디벌레가 꿈지락거리었다. 이금은 한숨을 쉬고나서 그놈을 꼬집어냈다.

(반디벌레야, 용서해다오. 나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했구나... 너 어텐가 자유로이 날아가다가 제발 나같은 너인은 만나지 말아주렴...)

반디벌레는 이금의 손바닥우에서 서서히 땀물더니 뜻밖의 자유에 정신을 차린듯이 벌들이 반짝이는 검푸른 밤하늘로 쏜살같이 날아가버렸다.

이금은 멀어져가는 자그마한 불꽃을 오래도록 바라워주었다.

## 4

이금은 교원실에 홀로 앉아있었다. 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 아이들의 랑랑한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지금은 4학년 학생들의 영어시간이었다.

새 학년도부터 인민반 4학년 과정안에 외국어과목이 생기였다. 아직 외국어교원이 배치되어 오지 않아서 립시로 설영이가 영어수업을 맡게 되었다.

설영이가 잘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금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정말 45 분은 영원히 이금의것이 아니었던말인가? 언제 한번 대리수업을 받아본 일이없는 함박골마을의 학생들이였었다. 이금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것은 첫 아기를 처음으로 락아소에 맡기고 마음을 놓지 못해 하는 젊은 어머니의 그 불안한 심리상태와도 비슷하였다.

문득 글 읽는 소리들이 푹 그쳐버렸다. 이금은 교실쪽에 귀를 기울였다. 장난군인 영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주의력이 산만한 경팔이도 걱정스러웠다. 왜 저렇듯 조용할가?

이금은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교실로 다가갔다. 무슨 못할 짓을 저지르는것처럼 가슴이 널뛰듯했다.

그는 살머시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문은 소리없이 열리었다.

철판에 글을 쓰던 설영이가 돌아서다가 이금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학생들은 열심히 자모들을 옮겨쓰느라 이금의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설영은 수업을 계속하였다.

《다시 따라읽기를 하겠어요. 정확한 발음법은 외국어학습의 기초랍니다. ...에이, 비, 씨...》

아이들은 서로 뒤질세라 목청을 돋군다. 이금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것을 느끼며 저도 모

르게 따라 읽었다. 얼마후 점직한 생각이 든 그는 귀밑을 살짝 붉히며 입을 다물었다.

이윽고 첫 영어수업이 끝났다. 이금은 학생들의 명랑한 얼굴들을 보면서 성공한 수업임을 확신했다. 학생들을 돌려보내고 난 이금은 설영에게 의자를 권했다. 그러나 설영은 손가방을 집어들며 초조한 기색으로 말했다

《선생님, 전 빨리 가봐야겠어요.》

《아니 점심도 안먹구?》

《학생들이 기다릴것 같아요. 오늘이야 개학 첫날이 아닙니까...》

《그래 개교일이지 .. 정말 우리때문에 못올걸 왔구만! ... 그래도 우리 집에 잠깐 들려요.》

설영은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지었다.

《다음번에 들리겠어요.》

이금은 할수없이 설영이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정문가의 백양나무앞에 이른 두 교원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멈춰섰다.

《아이참, 어떻게 또 고개를 넘을가...》

이금은 고개길에 눈길을 던지며 근심스레 말했다. 오늘따라 본교로 넘어가는 고개길은 더 가파롭고 아득해 보였다.

《걱정마세요. 이젠 모든것이 습관된걸요...》

설영은 너학생처럼 고개를 숙이었다. 이금은 석별의 정으로 가슴이 애틋해지는것을 느꼈다.

《선-생-님!》

철수와 영호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오고있었다. 설영은 애들의 목소리에 흠칫하면 반사적으로 몸을 돌이켰다. 얼굴에는 조용히 웃음이 피어올랐다.

《동무들, 다시 만나요. 이번에는 새 록음테프를 가져오겠어요. 동무들의 발음을 록음하겠으니 복습을 잘해오세요...》

《옛-》

두 소년은 기운차게 대답하며 스스로도 대답에 만족한듯 벌췌 웃었다. 이윽고 설영은 발자국을 떼었다. 이금은 철수와 영호와 함께 설영이가 보이지 않을때까지 백양나무아래에 서있었다.

며칠후... 이금은 설영이를 배려주던 그 백양나무아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외국어시간인데 설영이가 오지 않아서 복습을 시켜놓은채 도망치듯 교실을 빠져나왔던것이다. 시간은 초조하게 흘러갔다. 이따금 창문으로 왁새처럼 목을 빼들고 내다보는 경찰의 모습이 눈에 띄우곤했다.

설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것 같았다. 이금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게다가 낮추 드리운 하늘에서는 구질구질 가을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였다. 백양나무가지들이 비를 머금고 우수수

설레이자 한잎두잎 단풍은 잎새들이 이금의 어깨며 발아래에 떨어져내렸다. 그것은 이금의 가슴에 우수를 자아냈다. 자신에 대한 불만이 다시금 마음을 괴롭혔다. 설영이도 다과목교수를 해야 한다.

할일이 많은 그를 언제까지 함박꽃분교로 불러온단말인가? 새 외국어교원이 와도 문제가 달라질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역시 험한 령을 넘나들어야 할것이다. 학생들이 몇명 안되는 본교에 두명의 교원을 둘수도 없었다. 이금은 두번째 영어수업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밤의 일들이 돌이켜져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제는 본교를 떠날수밖에 없구나...)

함박꽃분교는 외국어까지 소유한 교원을 요구하고있었다. 다과목교수란 개념에 외국어까지 포함되는 그날이 뜻밖에 찾아온것이었다. 설영이가 마치 오늘을 내다보고 그렇듯 자질을 높이기 위해 애써온것 같았다. 이금은 본교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본교를 꾸리기 위하여 밤잠을 설치고 뛰어다니던 나날이 돌이켜졌다. 아담한 교사의 구석구석에 그의 피땀과 사랑과 열정이 스며여있었고 남편을 비롯한 소박한 마을사람들의 정성의 깃들여있었다. 그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라기보다 마치도 이금을 위해서인듯 본교를 꾸리는데 진정을 쏟아붓곤했었다. 이금이가 바란것은 무엇이나 다 해결되었다.

어느해 겨울에는 영호의 아버지가 부엉이의 박제품을 만들려고 사흘밤을 눈속에서 새우다가 발까지 얼큰적도 있었다.

이금은 생활의 흐름이 이렇게 뒤번져질줄은 상상도 못했다. 남편의 사랑, 학부형들의 존경... 아름다운 산촌에 대한 애착... 게다가 아이들은 또 얼마나 이금이를 따랐던가! 행복속에 흘러가던 생활의 그 흐름속에 철수와 설영이가 뛰어들었다.

웅당 벌써 그때에 생활의 조용한 흐름은 자기의 물끓을 바꿔야 했었다. 이금은 어깨를 움츠리며 비발속에 더는 보이지 않는 고개길에 눈길을 주다가 할수 없이 교원실로 들어갔다.

그는 전화통앞으로 다가갔다. 자기의 생각을 교장선생에게 털어놓고싶었다.

그가 막 송수화기를 들려는 때였다. 교실쪽에서 《선생님이 오신다!》

하고 아이들이 웨쳐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금은 창박을 내다보았다. 비를 흠뻑 맞은 초췌해진 설영이가 자전거를 끌고 정문에 들어서고 있었다. 순간 이금은 가슴이 뭉클해오며 아래도리의 맥이 짙 뵈히었다. 아이들과 같이 달려나가고 싶었으나 온몸이 마비된듯 꼼짝할수가 없었다. 얼마후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을때 벌써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설영이가 복도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함초름히 젖은 까만 머리칼이 상채기가 난 이마우에 반쯤 흘러내리었고 봉대로 얼추 동여맨 왼쪽 무릎은 빨갭게 피가 내배었다.

이금은 와락 다가서며 설영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에그, 큰 일 날번 했군요. 좀 늦으면 뭐래요. 천천히 걷는게 그래도 낫지... 모두들 얼마나 속을 태웠다구...》

《정말 미안해요.》

설영은 자책에 잠겨 고개를 떨구었다.

《떠나려고보니 록음테프를 넣어둔 가세트가 없어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

이금은 놀란 눈으로 설영을 바라보았다.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가, 부끄러웠다.

《설영이, 난 그런줄도 모르구…》

《아이참 별걸다가지구… 자전거가 어찌나 째잔지 오랜만에 힘껏 밟아 봤답니다. 참 재미있더군요…》

《그래, 그래… 자 이제 저기 가서 약이랑 바르고 꼭 쉬라요.》

이금은 설영이를 약함이 들어있는 맞은편 책상 앞으로 이끌었다. 설영은 가볍게 이금의 손을 뿌리쳤다.

《선생님, 빨리 수업을 시작해야 하겠어요.》

그는 문지방에 모여선 아이들에게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빨리 교실로 들어들 가요. 오늘은 약속대로 록음기를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아이들은 떠들썩하며 복도로 달려갔다. 설영은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얼마후 교실에서는 설영의 말소리가 도란도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이금은 다시금 방안에 홀로 남았다.

(설영이, 너는 훌륭한 교원으로 자랐구나!)

이금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종잡을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되뇌었다.

이금은 이제야 비로소 참된 고민의 감정을 알게 된것 같았다. 이 함박골 부교의 참된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설영이었다.

아이들은 지금 설영이를 더 필요로 하고있었다.

그는 결연히 고개를 쳐들고 전화기앞으로 다가갔다. 마음은 폭풍이 지나가버린 바다처럼 조용히 가라앉았다. 교장실은 비어있었다.

수업이 거의 끝나갈무렵에야 어데 갔다왔는지 교장이 전화를 받았다.

이금이가 뜻밖의 문제를 제기하자 교장은 펄쩍 뛰어들었다.

《허참, 한심하오, 그게 무슨 소리요? 로어를 배운 선생이 조금만 노력하면 영어라고 왜 못해내겠소…》

이금은 상대방을 설복시키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하여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하면서도 머리속에는 (정말 내가 배워낼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것을 깨달았다. 첫 수업때 아이들의 뒤에 앉아서 따라읽던 생각이 느닷없이 뇌리를 쳤던것이다. 허나 그것은 한순간에 떠오른 너무도 가냘픈 희망의 빛발이었다. 이금은 고집스레 말을 이었다.

《그건 저 … 아무래도 사랑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허허, 사랑이라… 무슨 일인지 통 리해할수 없구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함박골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그러니 그게 어떤 사랑이었겠어요…》

교장은 《음-》하고 신음비슷한 소리를 내더니 더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금은 송화구에 더 바짝 입술을 갖다대며 거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저의 말을 신중히 들어주십시오. 절 본교로 옮겨주세요. 네…》

《그건 안되오…》

교장은 황급히 그의 말을 밀막아버리더니 덜컥 송수화기를 놓아버렸다.

《저, 선생님…교장선생님!》

이금은 안타깝게 불렀다. 전류 흐르는 소리만 고막을 칠뿐 저쪽은 귀죽은듯 잠잠했다. 송수화기를 놓는수밖에 없었다. 전화기앞에서 힘없이 돌아서던 이금은 문가에 의혹에 찬 눈길로 굳어져버린 설영을 발견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는 가슴이 섬적했다 설영이가 죄다 들은것이 분명하였다. 하긴 이제야 무엇을 숨기겠는가. 이금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설영은 학급부와 교과서들을 책상위에 놓더니 창가를 향해 돌아섰다. 성이 난것이다.

숨막히는 정적이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설영이!》

이금은 끝내 참지 못하고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날 리해해 줘… 난 달리는 행동할수 없구나…》

설영이는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섰다. 이금은 물기에 축축해진 그의 두눈을 떠여보았다. 설영은 입술을 바르르 떨더니 저으기 격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우리를 두고 교단을 떠나지 못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수 없어요, 그 모습은 나의 생활의 참된 거울이었어요. 선생님은 우리와 나는 그 결심을 지켜 오늘까지 교단을 떠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오늘은 스스로 아이들과 헤어지려는군요… 저는 리해할수 없어요.》

멀리도 흘러가버린 그 시절이 다시금 거센 파도처럼 이금의 눈앞에 밀려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듯싶던 시절이었다. 최명진도 끝내 일터를 옮겨오지 않았던가, 무슨 일이나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현실로 되곤하던 사랑의 시절, 정열의 시절 꿈과 랑만의 시절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설영의 말처럼 스스로 본교를 떠나려 하고 있었다. 과연 그것이 사랑때문일까? 아니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더욱더 세차게 가슴을 불태우고 있지않는가, 그 감정을 제 아무리 거짓이라는 보자기에 씌워보았지만 가슴속에선 전혀 다른 목소리

가 울리고있었다. 아이들은 그의 생명이었고 그 생명의 전부를 바쳐사는 사랑의 지령점이었다.

이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설영이,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난 그만 생활의 흐름속에서 떨어졌구나, 나에게는 거의 20년이나 아이들에 대한 사랑하나의 돛대밖에 없었어.

그러니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 노저어 가겠어... 애정 하나로 아이들과 연결되던 때는 이미 지나갔어...》

이금은 어떻게 그런 말이 자기 입에서 흘러나왔는지 스스로도 놀라왔다.

(그럼 나에게 없는 다른 하나의 돛대는 무엇이였을까?...)

그는 설영이를 생각했다. 교원생활에 겨우 한 돌기의 년륜밖에 새기지 못한 설영이! 허나 그 년륜은 얼마나 보기 좋고 굵다란것이던가! 그 년륜은 단번에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다. 그 년륜이 이제 또 한바퀴 돌아갈 때면 우리 아이들의 키는 몰라보게 클것이다. 그랬다. 사람들은 자연계에서 모든것이 어떻게 되풀이되고있는가를 알고 있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생활은 끊임없이 이 순서로 뒤바뀌고있다. 계절의 법칙성에 따라 철새들이 오가며 동물들은 겨울잠을 잔다. 그 반복의 생리에서 새것이 태어나는것이 아닐가...

교원의 생활도 하나의 끊임없는 반복에 기초를 두고있다. 시대와 생활의 요구앞에 오늘은 어제보다, 래일은 오늘보다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어제와 같아보이면서도 어제와 다른 교수사업의 혁신적방법이 있는것이다.

애정은 있었으나 탐구가 없는 자신의 교원생활이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금은 서글픈 눈길로 옛날의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설영이, 난 량심만은 깨끗하다구 생각해...》

설영은 부채살같은 속눈썹을 치켜들며 놀라운 눈길로 이금을 바라보았다.

《량심이라구요?...선생님은 자신을 속이고있어요. 먼 후날 우리가 생활의 새로운 요구앞에서 선생님처럼 물려선다면 후대들이 우리를 량심이 있다고 할것 같을까요? 네?...》

이금은 숨이 콕 막혔다. 입안이 타들고 눈앞이 핑 돌아갔다. 그는 대답을 찾을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눈길을 허둥거렸다. 설영은 이금의 손우에 자기의 뜨거운 두손을 올려놓았다. 그러며 열정적으로 속살거렸다.

그 열정이 내뿜는 뜨거운것이 이금이 가슴을 꿰뚫고지나갔다.

《선생님...물려서면 안돼요, 우리에겐 한결음도 물려설곳이 없어요. 우리가 교육의 높은 요구앞에 한결음 물려서면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향

한 한세대의 진군이 그만큼 늦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허락하시지요?...》

설영의 절절한 목소리는 이금의 가슴속에서 고패치던 그 모든 주저와 고뇌의 가랑잎들을 활활 불태워버렸다. 이금은 깨끗한 량심이 비낀 그의 두눈을 들여다보며 흥분하여 속으로 뇌이였다.

(설영아! 너는 끝내 이번에도 나의 마음을 돌려세우는구나...너는 나의 고마운 스승이다!...)

×

겨울이 왔다.

징검다리를 삼켜버릴듯 세차게 흘러내리던 시내물은 대리석처럼 얼어붙어 번들거렸다. 이따금씩 눈이 내렸으나 청암령을 날아넘어온 거세찬 칼바람이 비자루처럼 얼음우의 눈을 말끔히 쓸어가군했다. 그러면 거무스레한 징검돌들이 드러나며 여름에 있던 일들을 상기시키군했다.

해질녘이어서 날씨는 춥고 살을 에일듯 맵찔다.

이금은 털외투를 입고 흰 목도리로 두뺨을 얼추동여맨채 교원실을 나섰다. 눈을 드니 겨울의 짧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있었다. 이금은 운동장에 잠깐 서서 얼음판을 내려다보았다. 문득 그의 눈길이 아이들속에서 얼음지치기를 하고있는 설영이한테가 떨어버렸다. 설영이가 벌써 고개길을 넘어왔던것이다. 벌써 여러번 헤어질 때마다 이제 내가 찾아가겠으니 청암령을 넘어오지 말라고 당부했건만 허사였다. 이금이 먼저 함박꽃에 나타나는 설영이었다. 그동안 이금이 설영의 방으로 영어수업을 할수있는 수준에 도달했었다. 이금은 겨울방학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교수강습에 가서 외국어교수자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결심이었다.

문득 아이들과 함께 썰매타기를 하던 설영이가 이금의 쪽에 얼굴을 돌렸다. 그는 이금을 보고 뭐라고 소리치며 한손을 흔들었다. 이금은 손나팔을 해가지고 《설영선생!-》하고 마주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맵찔 대기속을 뚫고 맞은편 언덕받이의 이깔나무숲에 부딪혔다가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왔다.

설영은 아이들처럼 얼음을 지치며 기슭으로 나왔다. 그러다 미끄러져 뒤로 벌렁넘어졌다. 네댓명의 아이들이 부랴부랴 달려와 그를 안아 일으켰다. 유쾌한 웃음소리들이 얼음판을 비치는 연보라빛 저녁락조속에 녹아버렸다.

이금은 서둘러 언덕아래로 달음질쳐 내려갔다.

발길에 다져진 눈이 얼음처럼 깔려있어 몹시 미끄러웠다. 그래서 이금이라도 설영이처럼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고말았다. 그래도 좋았다. 그는 넘어진대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량전에서 눈보라가 일면서 귀뺨을 때렸다. 그는 설영이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이금은 마치 소녀시절을 되찾은듯한 기분이였다.

시조

## 통 일 열 원

동기춘

### 분 렬

분렬 -  
분렬된 땅이어서  
전쟁도 했다  
죽기도 했다

분렬 -  
분렬된 땅이어서  
눈물도 뿌렸다  
허리띠도 조였다

마흔하고도 다섯해  
통일숙원을 땀젖게 지고  
아버지 뛰던 세월도 가고  
내가 달린 세월도 거의 가고...

3 천만이 갈라져  
7 천만이 되었다.

오늘도 역적은  
호화락에서 코카콜라를 홀리고  
무동산 잎떨어진 나무밑에는  
안공이 튀어나온 렬사를 묻었다

먼 날의 후손들은 안대도 다 모르리라  
남녘의 아픔이며 홀린 피  
던진 돌맹이와 화염병을  
꺾이운 뼈와 뿌려진 살점을

매국노들의 이름이 덕지덕지 붙은

넘어서면 칼을 밟고가야 할 땅에  
누구도 지켜 못준 운명의 《수산나》  
성모 승천하신 날이어서  
한가닥 하느님의 지킴에 몸기대고

절망엔 희망이...  
슬픔엔 기쁨이...  
있어지라 있어지라  
눈감고 기원한 그 8.15

민족아, 우리는 과연 힘이 없어

이 분렬된 땅과  
분렬의 원썬들을  
우리까지 다음 세대에  
그 무슨 상속물처럼 넘길수야 없지 않는가

력사는 그어떤 량해를 기록하지 않더라  
후손들은 선대의 결과만을 인정하거니  
우리 세대가 통일을 못한다면  
피와 눈물과 모지름을 그토록 바치고도  
후세앞에 머리들수 없을게 아닌가

아, 절통한 분렬  
이대로 더는 못살아  
들어쥐는 주먹, 주먹속에서  
통일운명의 90 년대가 꿈틀 고패쳐라

### 아 품

딱지같은 렬사  
그 얼룩을 지우려  
사생결단하는 웨침은 이 시각도...

그렇게 근 반세기  
3 천만이 갈라져  
7 천만이 되도록  
못이룬 통일, 아 못이룬 그 통일

막아선 무리들  
미제와 파쑈의 무리들을  
그놈들을 강토우에 그대로 두고  
우리 1 억을 내다볼수야 없지않느냐

### 우리의 통일은

7 천만이 울며 보는 앞에서  
그 장한 통일의 꽃 수경이  
가슴치며 가슴을 치며  
하느님을 찾게 하였더라 말인가

믿었으리 아니 바랐으리  
순수한 애국의 그 절절한 기원이면  
청와대의 《사탄》들을 움직여  
떠드는 통일이 빈말 아니될것을

허지만 수갑을 찼고

하지만 감옥에 갇히고  
《국가보안법》의 희생물이 되더라도... 하던  
눈물배인 그 목소리는 눈물만 퍼내고...

아, 우리의 통일은

누가 줄 자비의 선물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저 제주도 려염집아낙까지  
폭파된 콩크리트장벽의 잔해우에  
자유래왕의 발자국찍을 거기에 있다.

## 어머니의 부름

- 해외 동포들에게 -

바다너머 저 멀리  
산너머 들너머 저 멀리  
내 동포 내 형제  
들이시나요  
어머니의 부름소리를

쇠사슬을 허리에 감고  
긴긴 마흔다섯해  
얼마나 아프시면  
피나는 상처를 붙잡고  
흩어진 자식까지 찾겠습니까

제 부모 급할 때면  
자식들이 단지도 했다는데  
자식된 그 마음이야

물건너 있다고 다르며  
먼 땅에 있다고 다르겠나요  
  
피를 나눈 한겨레  
살을 나눈 한동포  
들이시나요  
어머니조국의 부름소리를  
다같이 저런 가슴 부들키고 일어서자요

어머니는 지난 자연 묻지를 앓는답니다  
애오라지 기쁨줄 자식은  
통일을 위해 오늘에 피터워하는  
그 열에 있다고 해요  
그 열에 있다고 해요

## 통일 열원

꿈결에도 그리움에 소스라칠  
나의 살붙이 거기 없고  
피를 나눈 형제도 없고  
흘려간 시절의 련인도 없건만  
어느 먼 친척도 거기 산일 없고  
내 자란 고향도 거기 아니고  
동요의 옛추억이 사물거리는  
들팔기, 산나리, 개암술이  
거기 어느 산협에 없어도  
부르노라 부르노라  
피지도록 부르노라, 나의 남녘이여

내 한때는  
저 먼 날 한때는  
생각했노라 분한 마음으로  
갈라진 가족들의 쓰린 고통을  
한동네에 살던 춘천집늙은이

제 생전에 때묻은 길을 밟아야  
자손들께 이건 아무개고 저건 누구라고  
인사라도 시키겠다 하던  
그 늙은이 세상 떠나던 날  
발인하는 걸음이 돌에 걸채며  
통일아 통일아-  
내 피땀히게 소원했더라

조국이여, 나의 고백을 들어다오  
내 한때는 분렬의 비극과 통일의 절박함이  
심각한 가족들의 생리별에 있어  
피로워하는 그대인줄 알았노라  
하기에 그것을 가서드리려  
젊은 날의 잠못든 밤들이 있었노라  
그런 날 그런 밤엔  
동화같이 철조망 홀홀 제끼고  
귀밑머리 희여진 슬픔에 찬 손들을 잡고

전라도로 경상도로 가는 꿈도 꾸었노라  
 했건만 세월은 무엇을 깨우쳤더뇨  
 남녘이여, 오 남녘이여  
 어이하여 거기에선  
 젊은 목숨들이 포도에 등을 밀고  
 배를 가르며 몸에 불을 질렀느냐  
 그들이 제 아들딸이어서  
 그 희생을 막아보려고  
 백발의 목사가 사지판을 넘어  
 희망의 평양에 왔던가  
 홍안의 처녀 수경이는  
 갈라진 어머니가 북에 있어  
 지구를 한바퀴 돌아서 왔던가  
 통일렬사들이 살아있는 대학의 창가에 앉아  
 그들이 오빠여서 형제여서 울었던가  
 내 또한 이 모든것이  
 발은 혈분들이어서  
 주먹으로 눈굽을 짓누르고  
 락조꺼지는 공원에 점도록 앉았던가  
 아니여라, 정녕  
 혈육, 그것만이 아닌것  
 오늘에 고통스럽고  
 후손들앞에 죄되고 욕되는  
 이 반도의 분렬이 아파서,  
 이 분렬에 명줄건 놈들이  
 통일성업을 룡락하며  
 모략과 권모술수와 협잡으로  
 민족을 확대하는것이 가슴아파서  
 온 겨레가 나서고  
 울컥울컥 치미는 분노에  
 나 또한 가슴을 뜯는것  
 통일이라는 말만 나와도  
 순간으로 폭발되는 민족의 열원

그 념원 땅우에 차넘쳐  
 땅밑에도 통일갱, 통일역을 만들며  
 하늘의 해와 달을 쳐다보아도  
 가를수 없는 그 하나가 생각나고  
 뛰는 심장에 귀기울여도  
 둘일수 없는 그 귀뜸에 피끓는  
 아, 오늘의 실체  
 남녘이여, 오, 남녘이여  
 내 듣노라 너의 절규를  
 바란 일 없는 분렬의 세월  
 우리 서로 눈물을 흘렸다 피도 뿌렸다.  
 그 눈물값으로 그 피값으로  
 되찾자 하나된 내나라  
 자주의 푸른 하늘을  
 민주의 푸른 땅을  
 만일 이 세기를 넘어 분렬을 끈다면  
 더는 시계들에 태업을 감지 말라  
 나에겐 만일이라는 그 말조차 역겹노라  
 하지만 만일 그때까지  
 분렬의 적들을 그대로 둔다면  
 조선이란 말은 무엇때문에 있고  
 민족이란 말은 무엇을 위해 필요하더냐  
 3천리강토여  
 7천만겨레여  
 저 백두와 한나에 터졌던 용암을  
 하나로 모아  
 이 세기의 하늘에 화산으로 뿜어올리라  
 그 불물에 장벽이며 철조망이 녹아빠지고  
 모든 시계들이 통일세월을 기뻐 새길 때  
 오, 그때만이 우리 떳떳이  
 그때만이 우리 모두가  
 조상과 인류와 세계앞에서  
 수치와 오욕과 불행을 결별한  
 조선사람이 되리라